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깨끗하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0월 17일)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 대중과 외호 대중은 11월 4일 위례종교용지에서 선원 법당 봉불식과 현판제막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참여 스님들과 종단 주요 지도자 스님들이 상월선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노덕현 기자

"正覺까지 죽어도 일어서지 않겠다"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봉불 · 현판 제막식

자승 스님 등 9명 결사 대중들
3개월 천막 기거하며 안거 정진
초발심 되새기며 용맹정진 서원
"이곳이 한국의 부다가야 될 것"

삭발 · 목욕금지, 공양 1끼만 허용
"규약 어길 시 승적 박탈" 결연
종정 스님 직접 현판 휘호 격려
재가자 동참 가능한 공간도 마련

위례=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부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지도에도 보이지 않은 황량한 벌판에 9명 스님들의 결연한 서원이 울려 퍼졌다.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달을 벗 삼아 정진하겠다는 풍찬노숙 '위례천막결사'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 대중과 외호 대중은 11월 4일 위례종교용지에서 선원 법당 봉불식과 현판제막식을 봉행했다.

자승 스님 "가장 낮은 곳서 정진을"

천막결사 수행처인 '상월선원(霜月禪院)'은 눈과 비, 최소한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졌다. '서리와 달을 벗 삼아 정진하는 수행처'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월선원 현판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휘호를 내린 것으로 선원 대중들의 정진에 대한 지극한 격려가 담겼다.

선원 대중으로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용주사) · 호산(수국사) · 무연(해인사) · 심우(고불암) · 진각(봉은사) · 도림(정수사) · 인산(송광사) 스님들이 참여한다.

이번 위례천막결사는 백담사 무문관 동안거를 마친 자승 스님이 지난 2월 "가장 낮은 곳에서도, 다 놓아버린 곳에서도,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도 틀림없이 공부가 있을 것이니, 승가 본연의 모습으로 차별없이 정진해보자"는 뜻을 만나는 대중들에게 제안하며 시작됐다.

서울역, 광화문 광장부터 탑골공원까지 천막 안거 장소가 거론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무산됐다. 이후 종단 신도시 포교불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가 결사 수행정진 장소로 최종 논의 · 결정됐다.

청규 제정… 어기면 제적 불사

결사 참여 스님들은 내년 2월 8일까지 진행되는 안거에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깊은 서원을 갖고 참여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선원 대중들이 제정한 청규다. 청규는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공양은 하루 한 끼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도 제출했다.

결사 참여 스님들은 이날 고불문을 통해 초발심으로 돌아가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고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저희도 이제 위례신도시의 황량한 뜨락으로 찾아왔다. 우리에겐 이곳이 부다가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행 스님 "천막결사, 큰 울림될 것"

이날 봉불 · 현판식에 참여한 대중들은 위례천막결사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정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못하다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 출가자의 본분사를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 왔다. 이런 점에서 천막결사는 우리 불교계와 사회에 던지는 큰 울림"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스님들의 발원에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축사를 통해 "상월선원 개원은 이와 사의 정신이 모여 강단 있는 결기를 모아내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며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신도들에게는 신심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가 무문관 별도 공간 마련

이번 위례천막결사에는 재가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상월선원은 선원 무문관 옆에 불자들이 대중 스님들을 외호하며 기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짧게는 2박3일에서 최대 6박7일까지 정진이 가능하다. 현재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다.

이기흥 회장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천막 정진하는 스님들을 응원하고 저 역시 공부하기 위해 신청했다. 스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계사와 봉은사 등은 외호 대중으로서 결사에 동참한다. 상월선원 도감 혜일 스님(성남 봉국사 주지)은 "사판승으로서 정진 대중을 외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외호 경험은 많지만 천막 안거 정진은 전례가 없다. 선원 안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무탈 회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고불총림 해제

제217회 정기회서 만장일치로… 역대 두 번째

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에서 해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총림 구성요건이 수년간 충족되지 않고, 1996년 前 종정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으로 운영한다는 조건부 신청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결과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제217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추가로 접수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 안건은 종책모임 화엄회를 중심으로 24명의 종회의원들이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화엄회 간사 도심 스님이 했다.

도심 스님은 의안 발의 사유를 △백양사가 前종정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을 운영하겠다고 조건부 신청한 점 △총림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된 점 등 2가지로 정리했다.

도심 스님은 "제120회 중앙종회(1996.3.30.)는 백양사가 총림으로서 부족하지만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인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지정했다. 백양사는 총림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라며 "율학승가대학원과 염불원은 없는 실정이고, 경내 고불선원은 대중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쇄해 재가보살 선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종단에서 시정 요청을 했으나 시정과 내실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제안설명에 대다수의 종회의원들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제16대 중앙종회에 이어 제17대 중앙종회가 특위를 구성해 총림실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총림 구성요건 개선이 되지 않은 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총림을 지정했던 것과 같이 지정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정범 스님은 "학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할 문제다. 이 문제는 어느 총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중앙종회는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인지 거수로 찬반을 물었다. 출석의원 76명 중 67명이 찬성하면서 고불총림 백양사의 총림 지정 해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불총림 백양사는 조계종 현대사에서 두 번째로 총림서 해제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첫 총림 해제 사례는 98년 종단사태 당시 정화개혁회의를 주도한 영축총림 통도사다. 중앙종회는 1999년 7월 26일 제141회 임시회서 영축총림의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했다. 다만 통도사는 종단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제되고, 이듬해 3월 다시 총림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백양사와 차이가 있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이번 총림 지정 해제와 관련해 "사중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중앙종회 관련 기사 A2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本紙, 불교언론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그린 부디즘' 환경 기획 호평
대상엔 BTN 다큐 '사명대사'

本紙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의 '그린부디즘 연작' 기획 '必환경 시대&Green Buddhism' · '키워드로 읽는 Green Buddhism' (이하 그린부디즘 연작)이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은 11월 6일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26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서 열린다.

本紙가 진행한 '그린부디즘 연작'은 미세먼지, 라돈 사태 등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가 발발한 시점에서 불교 환경운동사를 되짚고 '必환경(Green Survival)'이란 화두를 제시한 연속 기획이다.

또한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TN 다큐드라마 '사명대사'가 선정됐다. 이밖에 방송부문 TV최우수상에는 KBS 스페셜 '세계유산 대흥사-인드라망의 숲에서'가, 우수상에는 KBS 1TV 다큐세상 부처님오신날 기획 '마음의꽃 연등'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에는 BBS특별기획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 신문부문 우수상에는 법보신문 '위법망구의 현장을 찾아서', 뉴미디어부문 최우수상에는 BTN 기획보도 '포교, 부처님 법 꽃피우다', 우수상에는 BBS불교방송 오디오 팝캐스트 붓다'가 선정됐다.

한편 불교언론인상에는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이사가 선정됐으며, 특별상으로는 영화 나랏말싸미'와 뮤지컬 '싯다르타'가 뽑혔다. 노덕현 기자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는 아함경!
한역 4부 아함의 온전하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주석!
한산 김윤수 역주 『아함전서』 1~16

잡아함경(전5권)

1권~5권 3,270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50,000원

증일아함경(전4권)

1권~4권 2,25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20,000원

중아함경(전5권)

1권~5권 2,912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140,000원

장아함경(전2권)

1권, 2권 1,228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 세트가 60,000원

★ 전집 구입시 별도 제작된 『전체 색인집』을 드립니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67-1 3층 전화: 02)926-8361 팩스: 0505-115-8361

기해년 동안거 결제 2000여 수좌 정진

"자기사 밝히는 데 최선을" 진제 스님 결제법어로 당부

불기2563년 기해년 동안거 결제에 따라 전국 선원에 수좌들이 방부를 들이고 화두 참구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1월 11일 동안거 결제에 앞서 대중의 수행을 독려하는 동안거 결제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해마다 반복되는 결제와 해제에 빠지지 않는 사부대중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는 목적은 자기사를 밝히는 데 있다"면서 "여러 대중은 법문을 잘 새겨듣고, 공부를 지어가다가 반짝 나타나는 하찮은 경계들을 가지고 살림으로 삼아 자칫 중도에 머무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부처님의 정안을 밝히는 데 근간을 두고서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결제 하루 전날인 11월 10일 저녁에는 전국 선원서 결제대중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했다. 이후 11일부터 사찰별로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종정 · 방장 결제법어 A7면〉

윤호섭 기자

종평위원장에 도심 스님

2년 임기, 위원장 포함 10인 구성



정부와 지자체의 종교편향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외 종교 탄압, 자유 등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했다. 위원장에는 중앙종회의원 도심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임기는 2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종평위원장에 도심 스님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직 위원은 前위원장인 만당 스님을 비롯해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대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당연직 위원인 덕조 스님(사회부장), 가섭 스님(포교부장), 일감 스님(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윤호섭 기자

'대종사 자격요건 강화 개정안' 철회

조계종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 결과

총 20명 대종사 추천했으나
법계위원회서 8명 제외 논란
대종사 심의는 원로회의 몫
법계위 위법행위 비판 높아

승려복지제 본인부담금 도입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추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승려의 수행과 법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법계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법안 내용상 하자가 아닌 법계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성토에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1월 5~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7회 정기회를 개원하고, 이번 회기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대두된 법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계법 개정안은 현행 승랍과 연령으로 정한 대종사 법계의 자격요건에 방장 · 총무원장 · 중앙종회의장 · 원로의원 등 특정 직책 경력이나 안거성만 횟수 등을 추가한 법안이다. 또한 대종사 특별전형과 관련해 법계위원회가 적격대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법계위원회가 각 교구에서 추천한 20명의 대종사 후보자 중 8명을 제외하고, 12명만 추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법상 법계위원회는 종사 특별전형 심의 자격만 있을 뿐 대종사 특별전형은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회서는 법계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 스님은 "법계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계위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개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우 스님의 발언에 다른 종회의원들도 문제를 공감하면서 법계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무엇보다 법계법 개정안에 담긴 법계위원회의 대종사 심의 권한은 법계위원들이 중앙종회의원들에게 요청해 마련된 것이어서 법계위를 향한 비판이 더 높아졌다.

한 종회의원스님은 "법계위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통과된 것처럼 행동한 것은 법계위 전횡"이라고 지적했다.

승려복지회 구성원 확대

승려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승려 개개인에게 본인기본부담금을 부과하는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국가복지제도나 이웃종교의 복지정책이 개인의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승려복지제도의 본인부담금은 앞서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내년 7월부터 구족계 수계 5년 이하인 스님에게는 월 5천원, 수계 6년 이상인 스님에게는 월 1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스님들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승려복지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기존 7인 이내로 구성하던 승려복지회를 11인 이내로 확대한다.

대종사 법계 재적승의 당연직 총림 임회위원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총림법 개정안과 승려법의 징계조항을 분리해 징계 종류와 양형의 기준을 제시한 징계법 제정안은 대표발의자가 철회하면서 추후 보완해 상정키로 했다. 또한 시대 상황에 맞게 포교 용어를 변경하고, 원활한 포교원 업무 처리를 위해 체계를 정비한 포교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조계총림 송광사 산중총회서 방장후보로 선출된 현봉 스님의 방장 추대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1월과 1977년 5월 송광사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1년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32안거 이상 성만했으며, 제11 · 12대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주지,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조계총림선원 유나 · 감원 · 한주 등을 역임했다.

교구특별분담사찰 추후 재논의

이어 지난 214회 임시회서 총무원장이 제출한 이후 계속 이월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개정안과 연동 종법개정안은 총무원이 철회했다. 총무원은 현재 전국 1000여 사찰에 설문지를 보내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도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왕산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원장에는 호성 스님이, 임기만료에 따른 소청심사위원장에는 동명 스님이 다시 선출됐다. 또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은 법계위원회가 제외한 8명의 스님들을 차기 회의에 올리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했다. 이번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포함된 스님은 법인 스님, 자광 스님, 동광 스님, 청우 스님, 천진 스님, 혜거 스님, 정우 스님, 정광 스님, 보광 스님, 종성 스님, 선용 스님, 문인 스님 등 12명이다.

추가 접수된 '총림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림별 특성을 반영한 종헌종법 개정을 위해 11인으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활동기한은 2020년 정기회까지이며,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이후 중앙종회는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끝으로 회기를 앞당겨 7일 폐회했다.

조계종 '2040 비전' 여론조사 시작

불교사회硏, 2040조계종 비전연구 기초조사 돌입

대국민 외 승단 첫 설문조사
시대상 비롯해 불교내부 포함
100여개 문항으로 질문 구성

불교 미래를 밝히는 2040 조계종 종책 비전 및 과제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인 '종단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11월 6일 서울 전법회관에 위치한 백년대계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5개 교구 스님을 대상으로 '종단의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서는 출가자 감소와 승단 고령화, 승가공동체 위기란 지적 속에 불교의 미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조사로 4차 산업 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탈종교화 등 사회 현상과 연계된 변화 양상과 이에 대한 대응 등이 함께 분석된다.

불교사회연구소는 3년에 한 차례씩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불교기반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승단을 대상으로 불교의 각 분야 인식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설문조사는 크게 △스님들이 생각하는 신도상 △미래사회종단과 사찰의 역할 △출가자 감소 극복 △종단의 미래지향적 종책 △시대에 맞는 신행 · 계율 · 청규 · 수행 등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요 문항은 62문항으로 세부문항까지 포함해 총 100여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4차 산업 시대 AI설법과 로봇스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래 사회에 사찰의 구조가 예경 공간 외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등 일반사회에 대한 접점의 질문과 '출가 장려종책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연로한 스님의 예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불교 내부적인 질문이 함께 포함된다.

여론 조사는 승랍 10년 이상 스님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불교사회연구소는 응답률 등을 고려해 1000명 수준에서 표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는 결계포살법회에서 대면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내 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백년대계본부에서는 종단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고자 불교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스님들의 진솔하고 지혜로운 답변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질적 성숙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인선

11월 13일 회장 취임법회… 수석부회장 능인 스님

조직 일부 개편, 국제부 신설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임기 시작에 맞춰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1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수석부회장은 대구 대원사 주지 현정 스님이 맡았으며, 부회장에는 능인(의정부 석림사 주지) · 성본(무주 향산사 주지) · 광용(마포 성림사 회주) · 정명(가평 연화세계 주지)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집행부는 △총무부장 보련 스님 △기획실장 명법 스님(해인사 국일암 감원) △재무부장 지효 스님 △교육부장 정수 스님(의정부 정수선원 주지)이 임명됐다. 아울러 조직이 일부 개편되는 문화포교부장에는 상화 스님(서울 보현정사 주지), 사회복지부장에는 덕환 스님(인천 지선사 주지)이 내정됐다. 신설부서인 국제부장은 정혜 스님(고창 마사하 주지)이 맡는다. 이외에도 사서실장 겸 법룡사 주지는 혜연 스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은 수경 스님, 사찰음식연구소장은 선재 스님이 맡게 됐다.

이와 함께 각 부서 실무를 책임질 국장단은 총무국장 설해 스님, 기획국장 지일 스님, 재무국장 덕효 스님, 교육국장 유정 스님, 문화포교국장 무여 스님, 사회복지국장 수안 스님, 국제국장 시현 스님, 승가연구소 국장 정문 스님, 사찰음식연구소 국장 경운 스님, 법룡사 도감 중제 스님 · 법룡사 총무 지응 스님이 임명된다.

부회장을 비롯해 각 집행부 소임자 임명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서 봉행되는 제12대 회장 취임법회에서 진행된다. 다만 감사 선임과 집행부 조직 개편은 회칙에 따라 종회를 거쳐 확정된다.

윤호섭 기자

일상 속에서 조석으로 써야하는 필수생필품인 비누(BLOOD MATE®), 치약(ORAL MAT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ORAL MATE®(치약)는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치후 뱉어내고 구강건강을 위해 별도로 잇몸을 관리하고 있으나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으며
과식,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때 양치후 먹으면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며
특히 구강건강 (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 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범어사 신중도 60여 년만에 '제자리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외로 유출됐던 조선 후기 불화가 60여 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범어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환수고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 스님,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신중도의 환수를 환영했다. 스님은 "종단은 사찰을 떠난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해 왔고 이러한 조그마한 결실이 오늘의 고불식으로 이어지게 됐다"면서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성보문화재들이 오늘을 계기로 하루 속히 원래의 자리에서 예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중도는 조계종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긴밀한 협조와 원 소장처인 범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 9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외경매시장에 출품된 한국문화재 모니터링 중 신중도 1점을 발견하고, 이를 조계종에 알렸다. 조계종은 곧장 전체적 화풍과 화기 일부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신중도가 1891년 화승 민규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범어사 칠성도와 화기의 구성이나 내용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또한 범어사 극락암에 봉안됐던 작품인 것도 확정했다. 국외 유출 시기와 이유는 특정할 수 없으나 한국사회 혼란기였던 1950~60년대로 추정된다는 게 조계종의 분석이다.

이후 조계종 문화부와 범어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환수 추진단을 구성해 응찰을 통한 환수를 결정했고, 지난 10월 6일 미국 LA서 진행된 경매에서 신중도를 낙찰 받았다. 신중도는 지난 10월 30일 한국으로 이운됐으며 서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간단한 보존처리를 마쳤다. 환수고불식 이후에는 본래 자리인 범어사에 이운 · 봉안된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환수된 신중도는 1891년에 조성돼 칠성도와 마찬가지로 범어사 극락암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추정된다"면서 "범어사는 극락암 신중도 환수를 계기로 현재 도난 · 유출돼 있는 범어사와 교구말사의 성보들을 온전하게 제 위치로 모셔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환수된 범어사의 신중도는 19세기를 대표하는 화승인 민규 스님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범어사 신중도는 예적금강, 마리지천, 위태천 등 중요한 불교 호법신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천상의 신과 불법을 지키는 팔부중 신상 등을 채워 넣었다. 이는 19세기 중후반 유행한 도상으로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도 유사한 104위 신중도(1862년작)가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범어사 신중도'는 19세기 후반에 조성되기 시작한 104위 신중도 형식을 계승한 19세기 후반 불화로 현전하는 사례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20세기에 조성된 104위 신중도의 전통을 보여주는 중요한 불화"라며 "주존의 도상부터 위태천 주변의 산신 조왕신 등 표현되어 있는 등 19세기 후반 신중도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전체 구성도 안정감 있고 존상 표현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신중도의 귀환으로 19세기 화승 민규의 화맥이 범어사를 중심으로 계승됐음이 향후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향후 성보문화재 환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서원하며 환수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미국서 60여 년만에 환수된 범어사 신중도. 19세기 유행한 도상을 지닌 중요한 불화이다.



조계종은 11월 5일 총무원 1층 로비에서 범어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내빈들이 신중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 11월 5일 환수 고불식
모니터링 중 美경매 출품 확인
종단 · 사찰 · 정부 연계해 되찾아

19세기 유행한 도상 지닌 불화
畵師 민규 추청… 화맥 파악도

성철 스님 수행 발자취, 직접 느껴보자

산청군 '성철 스님 순례길' 조성
겁외사부터 엄혜산 · 원지마을까지
약 3㎞ 구간, 1시간 정도 소요돼
향후 단성면 산책로 연결 계획도



산청군이 새롭게 조성한 성철 스님 순례길. 길을 걸으며 양천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제공=산청군

20대 청년시절의 성철 스님이 용맹정진을 다짐하며 지리산 대원사를 향해 걸어간 구도의 길이 '순례길'로 거듭났다.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단성면 소재 겁외사를 시작으로 신안면 원지마을을 거쳐 단성교로 이어지는 '성철 스님 순례길(양천 엄혜산 생태길)'을 조성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 길은 성철 스님이 20대에 수행을 위해 걸어간 길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순례길에서는 성철 스님 생가인 율은고거가 있는 겁외사를 비롯해 묵곡생태숲을 찾는 방문객들이 양천강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지리산으로 향하는 관문인 신안 · 단성면을 걸어서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한 걷기길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순례길은 묵곡 대나무 생태숲길과 나무데크로 조성된 양천(엄혜산) 생태길, 원지마을로 이어지는 대나무 생태숲길로 구성됐다. 엄혜산자락을 오른편에 두고 왼편으로는 조용히 흐르는 양천강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어 산림욕에도 좋다는 게 산청군 설명이다.

순례길은 겁외사에서 원지마을 강변둔치 공터까지 약 3㎞에 달한다. 엄혜산 구간의 일부 계단을 제외하면 평지여서 왕복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산청군은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원지마을에서 죽전마을 인근까지 조성된 뚝방길과 데크길을 더 걸을 수 있다. 이 경우 2시간의 여유가 필요하다"며 "순례길을 모두 걸은 뒤 겁외사로 돌아오면 묵곡생태숲도 거닐어보길 추천한다. 2007년부터 4년에 걸쳐 조성된 생태숲은 14만2000㎡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이어 "앞으로 성철 스님 순례길을 엄혜산 건너편 단성면에 조성된 산책로와 연결해 총 길이 7.8㎞의 순환 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길은 묵곡생태숲과 겁외사, 엄혜산, 문익점목면시배유지 등을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명품 걷기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년 콘텐츠 장려, 지원 필요"

숨도, 10월 31일 교불련과 불교미래포럼

청년문화공간 숨도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10월 31일 숨도 회관에서 '제6회 불교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송운석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 시대에 '한국 청년들에게 불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종수 중앙대 교수는 5G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국형 수행의 체계화 그리고 청년 친화적 명상 프로그램으로 융합 명상법을 소개했다.

이어 이영숙 동국대 교수는 불교영상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교수는 불교 가르침을 녹여 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호모 포노사피엔스'에 맞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9초 영화제', '불교 영상사진전' 등 위에서부터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자연스럽고 쉬운 불교의 모습이 필요하다. 불교의 가르침을 녹여낼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청년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소외계층 위한 아이연탄맨 뛴다

한국의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평가받는 '아이연탄맨 캠페인'이 11월 8일 서울 인사동 북광장에서 릴레이 연탄 기부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인사동 거리에서 불자와 시민들에게 두루마리 휴지로 만든 연탄을 나눠주며 캠페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 따라 ARS나 후원계좌를 통해 5천원을 기부하면 연탄 6장이 적립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이와 함께 아이언맨과 같이 손바닥에 연탄 그림을 그린 뒤 SNS에 올려 주변인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문화체육관광부 2013-82호. 고유번호 101-82-23205.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 법왕청.com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09-19호
고유번호 101-82-18115

국제 승려 구족계 금강계단 제5회 비구 수계 대법회

테라와다 상좌부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직접체험

2020년 2월 16일 ~ 2월 22일

세계불교정상들의 모임
개최 예정으로 각국불교대표 및 승왕
(금강계단과 회의 일정 조율 때 친견계획중)
세계불교도들의 우꾸마라 법왕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종정)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사아, 중국,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몽골, 인도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450여 종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10년, 20년, 30년, 40년의 법납의 스님들을 행자, 사미승의 마음으로 초발심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갖고자 큰 마음 큰 뜻으로 미얀마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도움을 받아 三師 七證 대원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승가대 많은 스님들의 독경 속에 장엄하고 여법한 국제 금강계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립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교와 연방승가회 정식 비구 계첩을 받게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214874 세계불교 법왕청
■신청기간 : 선착순 50명 * 제출서류 : 이력서1통, 사진1매, 여권사본
■서류제출 :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호)
■문의전화 : 02-733-5665 / 010-3618-6061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⑥

“젊어진 새 찬불가, 유튜브로 들어요”

찬불가 그룹 별빛사리 팀

불교크리에이터 1기로 선정된 찬불가 앙상블 그룹 별빛사리는 PBM이라는 대중불교 음악을 보급하고 있는 이들의 모임이다. 이들을 만나 새로운 대중불교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찬불가 앙상블 그룹 ‘별빛사리’의 공연 모습. PBM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바쁜 일정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박정환 씨를 중심으로 각 분야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Q: PBM이라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기존 대중불교 음악과 차이점은 머죠?

박정환 씨 : PBM이란 대중불교음악 ‘Popular Buddhist Music’의 줄임말로 2018년 4월 21일 동국대서 첫 PBM 장르로 음악회가 열리며 시작됐어요. PBM은 말그대로 대중들에게 불교음악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발라드, R&B, 트로트 풍으로 다룹니다. 랩 찬불가도 하나의 PBM이죠.

Q: 불교 포교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우주 씨 : 가장 먼저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서정주 씨 : ‘친구따라 교회갔다가 멋진 교회 오빠를 보고반해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웃음) 누가 포교를하느냐에 따라 어떤 새로운 신도가 오는지도 달라지겠지요.

요즘 불교란, 산 속에 있는 절,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 등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요. 타종교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기에 새 젊은 이미지를 주는게 중요하죠.

송승현 씨 : 일단은 접해봐야 호불호가 생길텐데, 불교를 한번이라도 접해볼 마음을 갖기 어렵죠. 젊은 세대층이 쉽게 접하는 컨텐츠들이 생겨나야 해요.

Q: 별빛사리가 유튜브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먼가요?

송우주 씨 : 유투브, SNS에 꾸준히 올려보자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던 중 우연히 기회를 얻었어요.

서정민 씨 : 보살님들의 합창 음원 말고는 현대화 된 찬불가는 드물었어요. 저희는 ‘멋지게’ 노래 할 수 있고 보살님들이 노래하실 때 ‘가이드’ 역할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멋진 PBM이 저희를 통해 보급되고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송승현 씨 : 음악을 전공하는 불자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아쉬우던 찰나 선불남성합창단을 통해 불자성악가인 정환이 형을 알게 됐어요. 형이 유튜브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저도 형과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Q: 불교 크리에이터로 선정된 느낌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환 씨 :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유투브 채널 ‘play박정환’ 또는 ‘별빛사리’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나오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향후 ‘미스틱스토리’라는 채널을 벤치마킹하여 청년들의 찬불가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됐으면 해요. 저번 인터뷰에서 불교크리에이터 정태호PD님께서 함께 작업하기를 요청하셨는데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노덕현 기자

2019문화재지킴이 한마당 성료

11월 2일 중앙청소년수련원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조상열)와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종재 지홍)가 주관하는 ‘2019년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한마당’이 11월 2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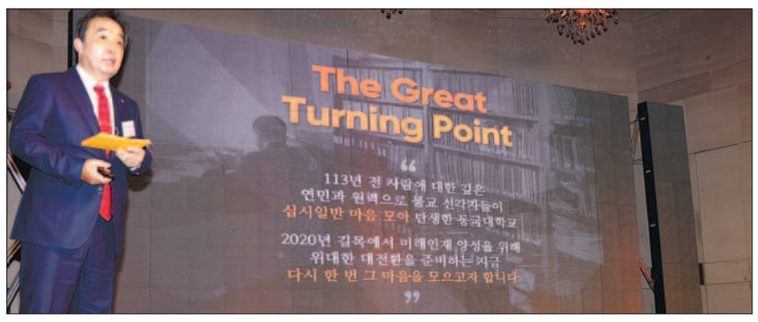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는 청소년이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청소년 특화활동이다. 올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는 74개 학교 26개 민간단체에서 2만 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한마당 행사는 전국의 청소년이 모여 한 해의 문화재보호 활동 성과 공유와 상호교류를 위해 전국행사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번째다. 올해 행사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를 대표해 학교 · 민간단체 등 28개팀 총 225명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부, 동국 발전 원동력”

동국대, 5일 ‘에너자이즈 동국 후원의 밤’ 개최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동국대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 100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국대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5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Energize Dongguk(에너자이즈 동국)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윤성이 총장, 前 총장 보광 스님, 박대신 동국대 총동창회장 등 동국대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 성타 · 법타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동국을 아끼는 사부대중이 원력을 모아준다면 명문민족사학 동국, 글로벌대학 동국으로 반드시 도약할 수 있다”고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동국의 발전은 곧 불교의 발전이며, 동국의 미래는 곧 불교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행 스님은 조계종의 동국대 발전기금 30억원 약정해 눈길을 끌었다.

윤성이 총장은 직접 학교 발전 계획을 발표하며 사부대중의 후원을 독려했다. 이날 윤 총장은 2022년까지 동국대를 국내 10위 대학, 10개 학과를 세계 100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교육 · 연구 · 인프라 분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불자, 동문들의 기부금은 대학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년불자 스마트폰 중독 예방 시작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11월 2일 Cycle R · E · S · E · T운동 펼쳐


인사동 광장에서 불자청년들이 스마트-쉼 운동 동참을 알리며 활짝 웃고 있다.

불교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하는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이사장 이기흥)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쉼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국사회평화協과 중앙신도회는 11월 2일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용 선물을 전달하는 등 스마트쉼 캠페인 ‘Cycle R · E · S · E · T운동’을 펼쳤다.

이번 스마트쉼 캠페인은 조계종 포교원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공동 진행하는 2019 청년대학생 신행축제와 더불어 불자청년들을 대상으로 답게살기 캠페인 동참 서명운동과 연계해 진행됐다.

스마트쉼 캠페인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청년불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인사동 거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최근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어 한국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스마트쉼’을 주제로 한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의 강연이 진행됐다.

가섭 스님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삶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 · 대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이였지만 휴대폰도, 나 자신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섭 스님은 디지털 과의존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현재 불교계는 스마트쉼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을 축으로 스마트쉼 전문강사를 배출하고 중독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약 60여 명이 과의존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 바 있다.

또 ‘스마트쉼 사찰’ 선정과 기도 법회 등의 스마트폰 사용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에 대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많은 신도 불자들의 삶에 스마트폰이 들어와 있다. 특히 청년불자들과 스마트폰은 뗄수 없는 관계”라며 “많은 부분을 활용하지만 이에 너무 빠져드는 중독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관음종 신곡맞이 법회 11월 6일 봉행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1월 6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신곡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신곡맞이 법회는 한 해 결실을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법회다.

이날 법회서는 전화를 통해 불자들에게 1분 법문을 전한 홍파 스님이 그동안의 법문 원고를 모은 책 ‘아침이 힘든 당신에게’를 봉정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홍파 스님은 ‘아침해우소’라는 이름으로 2017년 3월부터 1분 법문을 해왔다. 신곡맞이 법회에는 가수 조영남 씨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법회 후 축하연에서는 홍파 스님은 대중들에게 ‘오유지족’이라는 문구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 달라는 격려도 남겼다.

노덕현 기자







11월 2일 열린 청년대학생 신행축제 영상공모전에서 수상한 청년불자 크리에이터들이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불자 청년유튜버 열정 확인하세요

대상



대상은 송영훈 씨의 '관세음보살의 보살핌' 이다.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움을 일러스트 영상으로 표현했다. 송영훈 씨는 불교의 아름다움을 연꽃과 정병, 화관 등 상징물을 연결해 차분한 음률과 함께 마음을 평혼하게 하는 영상으로 재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주소(youtu.be/m06ibpv1NGQ)



최우수상은 중앙승가대 재학생인 이수현 씨의 '붓다가 되고 싶은 중생들의 가무' 이다. 말 그대로 부처님이 되고 싶은 청년들의 춤과 노래를 담고 있다. 부처가 되기 위한 바람과 피나는 노력의 과정을 재미있는 가사와 노래를 통해 표현했다. '붓다야~붓다야~붓다야~' 등 여운이 남는다.

영상주소(youtu.be/IBNaLRkh9TQ)



우수상에 선정된 금당선원 무여 스님의 '무여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여행' 이다. 무여 스님은 유튜브에 무여 스님TV를 진행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이다. 법주사, 보탑사, 선암사 등 무여 스님이 그동안 진행해온 사찰탐방을 축약하여 짧은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영상주소(youtu.be/RZCb_bKA5Ss)



우수상에 선정된 박정인 서울교대 재학생의 '템플스테이' 영상은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교대 불교동아리 불연의 템플스테이 여정을 담은 것으로 초심자인 대학생들이 처음 목탁습의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다뤘다.

영상주소(youtu.be/2kaAechFDuk)

2019청년대학생 신행축제 영상공모전

포교원 영상공모전에 톡톡튀는 아이디어 돋보이는 44점 접수

'관세음보살 보살핌' 대상 수상

청년들의 다양한 신행문화를 담은 영상 공모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9 청년대학생 신행축제' 를 열고 영상공모전 시상식과 영상 상영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불자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 44점이 접수됐다. 포교원은 전문심사진을 구성해 미래세대 포교 등을 고려해 심사했으며, 대상과 최우수, 우수상 등 8개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청춘, 2019년 청년 대학생 신행축제가 불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열정과 용기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밝은 미래를 축원하며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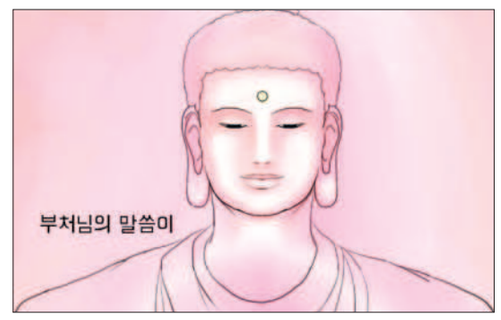
최우수상에 선정된 동국대 재학생인 혜공스님의 '외국인 포교-피터와의 대화' 는 짧은 영상이지만 외국인 학생이 생각하는 불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불교에 관심이 많은 네덜란드 친구인 피터에게 한국불교에 대해 알려주고 짧은 시간이나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절과 명상 등을 함께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주소(youtu.be/newIOwOxlp4)



우수상에 선정된 김계윤 씨의 '행복을 일깨우다' 는 지친 일상 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행복을 되찾는 직장인 가장의 모습을 플래시 무비로 담았다. 3040세대들에게 불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수작이다.

영상주소(youtu.be/ugaVYgYHZsU)



우수상은 강산 씨의 '자네 수인이라고 아는가?' 이다. 강산 씨는 아이고절런을 통해 유튜브에서 톡톡튀는 영상을 대중에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영상은 '수인' 에 대한 설명으로 펑키한 음악과 함께 수인의 여러 가지를 설명했다.

영상주소(youtu.be/0DWY2Svby2E)



우수상에 선정된 음악가 양영재 씨의 천상천하유아독존 영상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천상천하 유아독존' 등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만든 음악과 기도 신행의 모습을 함께 영상으로 표현했다.

영상주소(youtu.be/a_pu05VebTw)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1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선운사복지재단 이사장 경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테이프를 자르며 고창시니어클럽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고창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선운사복지재단 시니어클럽 개관

고창지역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고창시니어클럽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이사장 경우, 선운사 주지)는 11월 6일 고창읍 월곡뉴타운지구에 건립한 고창교육문화센터(고창불교회관)에서 고창시니어클럽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피어라! 은비 꿈!’ 이라는 주제로 고창불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개소식은 판소리보존회의 식전공연에 이어 시니어클럽 지정서 전달, 기념테이프 절단, 경과 및 운영방안 보고, 기념사, 축사, 시니어 모델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다.

1층 로비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와 전북지역 각 시니어 클럽의 활동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돼 참석한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복지재단 상임이사 범여 스님, 고창불교회관장 법만 스님, 고창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미소사 주지 종범 스님,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고창군의장 등 전북지역 시니어클럽관장과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해 고창시니어 클럽 개소식을 축하했다.

선운사복지재단 이사장 경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고창지역 어르신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보람을 안겨드리고 지역사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화로 장엄한 개산 1346년

부산 장안사, 제3회 ‘가을, 국화향기를 품다’

부산 기장 천년고찰 장안사가 개산 1346주년을 맞아 가을 국화로 도량을 장엄하고 개산조 원효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장안사(주지 정오)는 11월 2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3회 ‘가을, 국화향기를 품다’ 를 진행했다. 장안사 대중은 개산조인 원효 스님 영전에 직접 재배한 차를 올리며 개산의 의미를 강조했으며, 참석 내빈들은 함께 헌화하며 축하했다. 범종 타종으로 행사 시작을 알렸으며 장안사와 고불사를 주제로 열린 사진공모전 및 국화분재 시상식도 이어졌다. 장안사는 매회 사진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독려하며 아름다운 장안사 풍경을 담은 사진으로 전통문화 중요성을 알려 왔다. 아울러 열린 국화분재는 장안사가 위치한 기장 지역 농업 기술을 장려하고, 국화분재로 가을의 정취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진행되고 있다. 이어 미스트롯 신동으로 불리는 성민지와 가수 박서진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다.

주지 정오 스님은 “경내를 아름다운 국화로 장엄한 모든 분들과 사진으로 전통문화의 보고인 장안사를 아름답게 담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모두가 대상감이며 상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다”며 “오늘 개산조 원효 스님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가을 정취를 나누고자 흥겨운 무대도 준비했다.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정여 스님(前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장안사 주지), 황운철 기장군의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부산 50년’ 불국토 건설 다짐

삼광사, 기념법회 봉행 및 다양한 행사 진행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삼광사가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미래 50년의 도약을 다짐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는 11월 1일 부산 천태종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등 승가 내빈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김희근 삼광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동참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연혁보고 △표창패 수여 △봉행사 △법어 △치사 △축사 △축가 △발원문 △관음정진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삼광사는 신도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천태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했으며 또한 부산지역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인재불사에도 앞장섰다. 자비나눔을 위한 발걸음도 이어졌다. 삼광사는 불교계 복지시설에 자비의 쌀 3만㎏을 전달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천태 일승 묘법의 깃발아래 굳은 신심으로 모여든 대중들이여, 일심청정 한결같은 기도 속에 반백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백양산 소나무와 같이 변치 않는 정성 대조사님 호념 속에 불보살님 감응하시니, 마음 깊이 빛나는 초발심의 원력이 성불의 길 밝혀주는 등불되어라”고 법문했다.

3만여 사부대중 운집… 축하인사
장학금 · 자비의 쌀 등 자비나눔
지역민 함께 하는 행사로 거듭나
“성불의 길 밝혀주는 등불 되라”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삼광사에 무수한 사람이 인연을 맺어 보살도를 실천하니, 이 지역에 대도량을 건립하라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부촉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는지 절실히 느낀다”며 “삼광사는 대조사전 건립이라는 큰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부대중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도량을 확장하고 전법의 토대를 넓혀가는 불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부산지역 전법과 삼광사 개산 50주년에 원력을 품고, 삼대지표와 삼대강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만만의 중생을 이 도량으로 귀의시켜 국운융창, 인류평화, 불국토가 건설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11월 1일 부산 천태종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삼광사는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뿐 아니라 수행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불자들과 기념한다. 삼광사는 지난 10월 31일 경내 지관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기리는 기념음악회를 봉행했으며 11월 22일까지 법화경 산림법회를 이어간다. 아울러 11월 2일 입재한 100만독 관음정진 결사는 2020년 2월 9일까지 계속된다.

이외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꽃꽂이 전시회와 한 · 중 · 일 전통음식 한마당도 개최됐다. 한 · 중 · 일 전통음식 한마당에는 시민 및 다문화인 등 1천여 명이 동참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음식 전시와 전통차 시음, 떡메치기, 500인분 대형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 발우공양 체험, 공연 등으로 이뤄졌다.

삼광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넘어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마련한 대형비빔밥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나눠줬으며, 전통가야금, 태극권, 바라무 등의 공연도 선보였다.

아울러 11월 23일에는 지관전에서 개산 50주년 기념 청소년 음악제가 봉행되며 삼광사의 개산 50주년과 부산 불교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학술제도 열릴 예정이다.

가을향기 가득한 내소사 산사음악회

‘천년 북소리 마음 울리다’ 주제
각종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진행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과 꽃살무늬 문살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11월 2일 가을색이 짙어가는 수령 1,200년 된 느티나무와 천년고찰의 전각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천년의 북소리 마음을 울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내를 꾸민 내소사는 음악회를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11월 2일 부안 내소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내소사 산사음악회.

범종과 법고타고로 막을 연 내소사 산사음악회는 타악그룹 ‘얼쑤’ 의 타악 퍼포먼스가 음악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어 뉴코리아 목관앙상블의 클래식 음악공연, 프로젝트 ‘경취’ 의 경기민요 공연, 뮤탐보이스의 성악공연과 가을에 어울리는 가수 해바라기의 공연이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가을빛 가득한 산사에서, 전통문화와 어우러지는 소생과 힐링의 공간 내소사에서 쉼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한 내소사 대중스님들과 백양사 율원장 정봉 스님, 임실 혜월암 주지 종고 스님, 부안 혜원사 정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부안군 한근호 부군수, 군의회 문창기 의원, 김정기 의원, 변산국립공원 김효진 소장과 관광객 1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가을 정취를 한껏 즐겼다.

내소사 전각 곳곳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템플스테이 홍보 부스, 연꽃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열렸고, 봉래루에서는 내소사 단청사진 전시회도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是非長短 내려놓고 화두 타파”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眼中無翳休挑括(안중무예휴조괄)하고 鏡中無塵不用磨(경중무진불용마)어다.

信足出門行大路(신족출문행대로)에 橫按拄杖唱山歌(횡안주장창산가)로다.

唱山歌兮(창산가혜)여!

山是山水是水(산시산수시수)로다.

눈 가운데 티끌 없으니 긁으려 하지 말고 거울 가운데 먼지 없으니 닦으려 하지 말라.

발을 디뎌 문을 나가 큰 길을 행함에 주장자를 횡으로 메고 산 노래를 부름이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금일(今日)은 기해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산문(山門)을 잠그고 삼동결제(三冬結制)에 임하는 대중(大衆)들의 마음자세는 모든 반연(攀緣)과 갈등(葛藤)과 시비장단(是非長短)을 내려놓고 이번 결제기간 동안 반드시 화두(話頭)를 타파(打破)해서 대오견성 하겠다는 각오가 확고해야 함이라.

흉내만 내고 앉아 있는 반딧불 같은 신심(信心)으로는 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부처님 진리의 세계에 도저히 갈 수가 없음이라.

해마다 반복되는 결제와 해제에 빠지지 않는 사부대중(四部大衆)이 가상(嘉尙)하기는 하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는 목적은 자기사(自己事)를 밝히는 데 있다.

이번 결제동안 부지런히 정진해서 각자의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대오(廓撤大悟)하게 되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祖師)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그때는 이 사바세계(娑婆世界)가 그대로 불국토(佛國土)가 되고, 팔만사천 번뇌가 그대로 반야지혜(般若智慧)가 되는 것이다.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여야 할 것이라.

중국 선종의 4대 조사(四代 祖師)이신 도신(道信) 선사 당시에 우두 법융(牛頭法融) 스님이 있었다.

우두 스님이 젊은 시절에 혼자서 정진(精進)을 하고 있노라면, 온갖 새들이 꽃을 물어 와서 공부하는 자리에는 항상 꽃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공양(供養) 때에는 천녀(天女)들이 공양을 지어 올렸다.

하루는 우두 스님이 도신 선사를 찾아뵙고 그간에 공부했던 것을 말씀드렸다. 도신 선사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는,

“네가 그러한 삿된 소견(所見)을 가지고 어찌 불법(佛法)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시며 직하(直下)에 방망이를 내리셨다.

무릇,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온갖 새가 꽃을 물어 나르고 천녀가 공양을 올렸으니 큰스님 중의 큰스님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불법의 근본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건대는, 그것은 몇 푼어치 안 되는 살림살이이다.

우두 스님이 도신선사께 법 방망이를 맞고 분발(奮發)하여 다시 정진(精進)을 하니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않았고, 천녀들도 공양을 지어 올리지 않았다.

이렇듯 대적삼매(大寂三昧)를 수용하면 모든 성인(聖人)들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천룡팔부(千龍八部)며 귀신 · 선신(善神)들은 더더욱 볼 수 없으며, 온갖 새와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다.

광대무변한 진리의 심오한 세계는 스승 없이 혼자서는 다 알았다 할 수 없기에 반드시 먼저 깨달은 눈 밝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로다.

스승 없이, 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요즈음도 부지기수(不知其數)인데, 그것은 다 외도(外道)의 소견(所見)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무사자오(無師自悟)는 천마외도(天魔外道)다” 즉, 정법을 이은 선지식(善知識)으로부터 점검받은 바 없이 깨달았다 하는 자는 천마이고 외도일 뿐이라고 못을 박아놓으신 것이로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스님이 남전(南泉) 선사께서 여쭙기를,

“우두 스님에게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고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하니, 남전 선사께서는

“걸음걸음이 부처님의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답하셨다.

“도신 선사로부터 방망이를 맞은 후,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않고 천녀들도 공양을 올리지 아니한 때는 어떻습니까?”

“설령 온갖 새들과 천녀가 오지 않는다해도 나의 도(道)에 비하면 실 한오라기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 진리에도 깊고 얕은 세계가 있다.

그러니 여러 대중은 이러한 법문을 잘 새겨듣고서, 공부를 지어가다가 반짝 나타나는 하찮은 경계들을 가지고 살림으로 삼아 자칫 중도(中途)에 머무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부처님의 정안(正眼)을 밝히는 데 근간(根幹)을 두고서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산승(山僧)의 스승이신 향곡(香谷) 선사께서 우두 선사의 법문을 들어 산승에게 물으신 적이 있음이라.

“우두 스님이 사조 선사를 친견하기 전에는 천동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고 백 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이에 산승이 “삼삼(三三)은 구(九)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면 우두 스님이 사조 선사를 친견한 후로는 천동 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백 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도 아니한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이에 산승이 “육육(六六)은 삼십육(三十六)입니다”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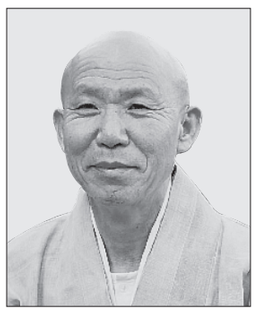
필경(畢竟)에 최고의 진리의 일구(一句) 어떠한 것인고!

橫按拄杖不顧人(횡안주장불고인)하고 卽入千峰萬峰去(즉입천봉만봉거)로다.

주장자를 횡으로 메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천 봉과 만 봉 속으로 들어감이라.

누가 고불당에 먼저 도달하려는가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불조덕광(佛照德光)선사가 백양법순(白楊法順)선사께 물었습니다.

“진불(眞佛) 즉 참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는 곳에 있다.”

“이미 참 부처인데 어찌하여 정해진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해진 곳이 있다면 그것은 참 부처가 아니다.”

이 말씀에 불조 스님은 크게 깨쳤습니다.

진불(眞佛)은 고불입니다. 고불(古佛)은 본래부처를 말합니다. 결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래부처자리인 고불당(古佛堂)을 찾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법안문익(法眼文益)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고불당전십마인선도(古佛堂前什麽人先到)니까? 고불당 앞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도달합니까?”

“부동보자(不動步者)니라. 발걸음을 움직이지 아니한 자이다.”

산문의 빗장을 걸고 90일 기간 동안 애써 정진해서 공안(公案)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법안문익 선사가 말한 부동보자(不動步者), 즉 발걸음을 움직이지 아니한 자의 낙처(落處)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용담종효(龍潭從曉)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고불당 앞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도달합니까?”

“퇴사자(退些子)라. 조금 물러나거라.”

대혜종고선사는 ‘공부인들이 속효(速效)만을 구하지만, 그 속효라는 것이 그릇된 것 인줄 모른다’ 고 탄식했습니다.

속효심은 치구심(馳求心)입니다. 빨리 도를 이루어야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기만 한다면 오히려 병을 일으켜 공부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용담선사는 ‘조금 물러나거라’ 고 하신 것입니다. 공부의 완급(緩急)을 잘 조절하라는 당부라고 하겠습니다.

차암수정(此菴守淨)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고불당 앞에 어떤 사람이 먼저 도달합니까?”

“무안촌옹(無眼村翁)이니라. 눈 없는 촌 노인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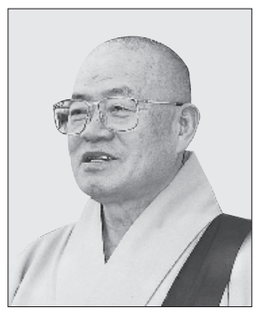
마음마저 푹 쉬었기 때문에 보아도 본 바가 없는 촌 노인처럼 일체 바깥 경계에 절대로 끄달리지 않고 오로지 애써 정진해서 한 철을 보낼 수만 있다면 해제 때 결코 얻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불조덕광선사께서 남겨놓은 고불당 게송의 낙처(落處)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수세계변석(水洗溪邊石)하고, 풍취고전번(風吹古殿幡)이로다. 어사지락처(於斯知落處)인댄, 가필재영산(可必在靈山)이니라.

개울가의 바위 돌 물에 씻기 우고, 고불당의 깃발에 바람이 부는구나. 여기에서 낙처(落處)를 안다면, 반드시 영산회상에 있으리라.

화두 긴하게 잡고 한바탕 공부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大地山河毘盧體(대지산하비로체)요 蠢動含靈觀音化(준동함영관음화)로다.

日月星宿(일월성숙)은 衆生心(중생심)이요 無邊虛空(무변허공)은 果山心(고산심)이로다.

대지산하는 비로자나불의 몸이요 준동함령은 관음보살의 교화대상이로다.

일월성숙은 중생의 마음이요 가없는 허공은 고산의 마음이로다.

虛空之外 無一物(허공지외 무일물)이요 衆生心外 無一塵(중생심외 무일진)이로다. 豁然頓悟卽正覺(활연돈오즉정각)이요 正覺者卽不見空(정각자즉불견공)이로다.

허공 밖에 한 물건도 없고 중생 마음 밖에 한 티끌도 없도다. 활연히 돈오하면 곧 정각이요 정각한 이는 곧 허공을 못 보도다.

時會大衆(시회대중)은 不除妄想(부제망상)하고 不求眞(불구진)하라!

妄想卽覺悟之本(망상즉각오지본)이요 眞亦在妄想中(진역재망상중)이로다.

心安卽天下太平(심안즉천하태평)이요 心不安卽苦海中(심불안즉고해중)이로다.

諸人(제인)은 緊把繩頭做一場(긴파승두주일장)하라! 言下(언하)에 卽時大悟(즉시대오)하리라.

시회대중은 망상을 제하려고도 하지 말고 진을 구하지도 마라! 망상이 곧 깨달음의 근본이요 진도 또한 망상 가운데 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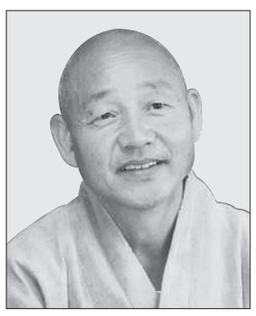
마음이 편안하면 천하가 태평할 것이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곧 고해중이로다. 모든 사람은 화두를 긴하게 잡고 한바탕 공부를 하라! 언하에 곧 크게 깨치리라.

念念(념념)에 釋迦出世(석가출세)하고 步步(보보)에 彌勒下生(미륵하생)이로다.

생각마다 현세불 출현이요 실천하는 것마다 미래불 출현이로다.

본분사 마친 대자유인 되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千尺絲綸直下垂(천척사륜직하수)하니 一波纔動萬波隨(일파재동만파수)로다.

夜靜水寒魚不食(야정수한어불식)하니 滿船空載月明歸(만선공재월명귀)로다.

천자의 긴 낚싯줄 곧게 드리우니 한 물결 일어나니 만 물결 일어나네. 고요한 밤 물은 차가워 고기 물지 않으니 배 가득 허공 싣고 달빛에 돌아오네.

총림대중이 겨울 석 달을 기한으로 동안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조의 관문을 타파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포단 위에 오뚝이 앉아서 화두타파에 목숨을 걸고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잡다한 세상일을 떠나서 불조의 관문을 타파하는 일은 상근기의 수행자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요, 얕은 물의 적은 고기가 아닌 깊은 바다의 큰 고기를 낚는 일과 같습니다.

거친 번뇌가 잔잔해 지면 미세한 번뇌를 알게 되고, 미세한 번뇌가 흩어지면 본래면목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본래면목을 확연히 깨닫고 활용할 수 있는 수행자를 본분사를 마친 대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릴 것 없이, 범부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구족한 본래면목을 찾아 대자유인이 되고 대교화인이 되는 일은 불조의 은혜를 갚고 단월의 은혜를 갚는 일이며, 밥값을 하는 일입니다.

雲捲秋空月印潭(운권추공월인담)하니 寒光無際與誰談(한광무제여수담)고 豁開透地通天眼(활개투지통천안)하니 大道分明不用參(대도분명불용참)이로다.

구름 걷힌 가을 하늘 달이 물에 비치니 서늘한 빛 끝없음을 누구와 이야기할꼬?

천지를 꿰뚫는 안목 활짝 여니 대도가 분명하여 참구함을 쓸 게 없도다.

총본산 불사로 종단 숨원 이루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㉑ 근대 조계종의 탄생지 조계사

1. 조계사 이전의 모습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의 현주소이다. 이곳은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알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도 위치이지만 조계사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저마다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면 위안을 얻는다. 주변의 직장인은 점심식사 후 이곳을 거닐며 업무에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다. 요즘은 외국인들의 방문도 많아졌다. 시내에서 접근성이 수월한 전통사찰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계사는 사찰의 역할 이외에도 조계종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행정기구와 중앙종회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심사찰의 역할과 조계종을 대표하는 조계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조계사 위치와 규모 그리고 역할에 비해 창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이곳은 보성고보 자리였다. 보성고보는 1906년 9월 이용익이 설립하였고 후에 손자 이종호가 경영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이종호가 해외로 망명하면서 학교경영이 어려워졌다. 그 해 12월 천도교가 학교를 인수하였고 손병희가 대표가 되어 경영하였다. 조계사 옆 조그만 숲에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표지석이 있는 것도 그런 연유이다.

그런데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천도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 1922년 5월 대표인 손병희가 죽자 내부 갈등이 야기되었다. 재정이 어려워지자 각 방면으로 경영자를 물색하였고 불교총무원이 학교 인수에 관심을 갖고 교섭하였다.

2. 불교총무원의 보성보고 인수

한국을 병합한 일제는 불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1911년 6월 3일 제령 7호로 전문 6개조의 사찰령을 제정하였다. 이 사찰령과 동시에 전문 8개조의 사찰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그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런 법령의 제정으로 일제는 행정적으로 전국의 사찰을 30본산과 그 말사로 등록케 하는 본말제도를 확립해서 주지의 임면권을 총독부와 지방장관이 장악하였다. 그리고 사찰의 폐합과 이전 그리고 재정의 처분 등 각가지 규제로 1,300여 한국불교 사찰을 지배할 수 있었다.

한국불교의 중앙조직이 된 30본산은 1912년 5월 28일 11본산의 주지가 원종종무원이 있던 원흥사에 모여 향후 30본산 주지회의를 정례화 하였다. 본산주지들은 원종종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선불교선교양종 각본산주지회의원으로 개정하고 규칙을 정하면서 30본산주지회의원을 출범시켰다. 그들은 10개조의 各本山住持締約을 작성하여 사찰령과 시행규칙을 준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일제의 통제에 철저히 순응하였다. 이렇게 한국불교를 완전히 장악한 총독부는 1912년 6월 원종과 임제종을 해체시켰다. 이후 30본산주지회의원은 1913년 1월 5일에서 11일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사법의 실시를 안건으로 다루는 등 일제의 한국불교 통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30본산주지회의원으로 출범한 한국불교 체제는 1915년 30본산연합사무소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30본산을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일제의 의도였다. 총독부는 1914년부터 '조선각본사연합제규대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총독의 인가를 얻어 놓고 그 기회를 엿보다가 1915년 1월 정기회의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독부 관리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실행을 요구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조선사찰각본사연합제규'는 1915년 1월 16일 30본산 주지회의 원장인 강대련의 이름으로 제출되었고, 2월 25일 총독부의 인가를 얻었다. 이후 30본산은 원흥사에서 각

불교혁신으로 총본산 건립 추진해
'조선불교 선교양종 총본산 각황사'
태고사 사명변경 후 조계사로 탄생

황사로 옮기고 명칭도 30본산연합사무소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30본산의 연합을 통해 한국불교를 강력하게 통제하려던 일제의 의도는 1919년 3.1운동 이후 다소 바뀌게 되었다. 조선불교청년회는 12월 16일 조선불교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30본산연합사무소에 8개조의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30본산의 연합제규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백양사, 석왕사, 위봉사, 봉선사, 송광사, 기림사, 건봉사 등 10개 본산 주지들과 연합하여 총무원을 세우고 그 사무소를 각 황사에 두었다. 그러나 총무원 설립에 반대한 16본산은 강대련이 주지를 맡고 있는 용주사에서 30본산 주지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무원과 대립하였다.

별도의 노선을 지향한 총무원은 불교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였다. 보성고보를 인수하는 일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1923년 6월 총무원은 회의를 열어 소속 사찰의 재정 1/5를 총무원에 제공하여 보성고보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천도교 측과 만나 인수, 인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1924년 1월부터 경영할 생각이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사진 왼쪽 위)과 앞마당. 조계종 총무원이 내려다보이는 전경사진.

3. 중앙교무원 설립과 보성고보 이전

30본산의 분열을 지켜본 총독부 학무국은 지속될 경우 통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1922년 5월 24일 30본산 주지들을 불러 종래 30본산 연합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10본산이 설립한 총무원도 폐지하고 새로운 통일기관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26일부터 개최된 회의에서 30본산연합제규가 폐지되었고, 27일에는 불교중앙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하여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1922년 10월 15일 통도사, 석왕사, 범어사를 제외한 27본산은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설립을 신청하여 28일에 인가를 받았다. 총독부의 압력과 보성고보의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총무원은 결국 1924년 4월 3일 교무원과 통합하여 30본산은 재단법인 중앙교무원이 되었다.

중앙교무원은 불교전문학교와 보성고보를 이전할 계획으로 1925년 5월 숭일동 북묘터 6천여 평을 매입한 후 교사를 신축하였다. 1927년 5월 건물이 완공되자 보성고보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교전문학교 증자에 어려움을 겪자 중앙교무원은 다각도로 재원마련에 고심하였다. 예전 보성고보 자리를 매각할 생각이었지만 팔리지 않았다. 1931년에서 1935년까지 재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1935년 9월 13일 보성고보를 고계학원에 양도하면서 13년간의 학교경영은 끝나고 말았다.

4. 태고사 건립과 조선불교조계종 탄생

1920년부터 본사주지들의 전횡에 맞서 정교분리와 사찰령폐지를 주장한 청년 불교인들은 불교혁신운동 일환으로 총본산 건설을 주장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1930년대에 이르러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36년 한국불교는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연합체가 형성되더니 1937년에는 전남까지 확산되어 지금과는 다른 불교계 연합 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런 분위기는 1937년 2월 열린 본산주지회의에서 통일기관 설치안으로 이어졌다. 23일 건축설계를 위한 이사회와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 방법이 논의 되었다. 그리고 25일에는 총본산 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교무원안을 본사주지회의에서 협의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위원 14명을 선정하였다.

이런 움직임을 지켜본 총독부는 1937년 2월 26일과 27일에 개최된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총본산과 관련한 법규를 제시할 것과 총본산의 권위를 한국불교 스스로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런 총독부의 지시를 받은 본산 주지들은 총본산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1937년 3월 5일 31본산 주지회의는 제1회 총본산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 명칭을 조선불교선교양종총본산 각황사로 하며 현 재단법인인 교무원은 해체하여 총본산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불교계의 주요 활동이 전개된 각 황사도 매각하여 기지 확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곳은 배불정책의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동대문 밖에 머물고 있던 한국불교가 1910년 10월 27일 창건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온 의미를 지닌 곳이다. 불교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포교관계와 불교 강연 그리고 서적발간 등 여러 가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곳이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처분하였다.

총본산건설위원, 상임위원, 그리고 고문 등을 선출한 31본산의 총본사 건립위원회는 1937년 7월 27일 기공식을 시작해서 1938년 10월 25일에 준공되어 봉불식이 거행되었다. 1938년 10월 26일 열린 본산주지회의에서 사명과 사격을 다루고, 총본산의 사명을 북한산 태고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1939년 5월 22일 총독부에 신청하여 1940년 5월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총본산의 허가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국가 통제 하에 두려고 하였다. 그리고 8월부터 총력전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시작하였다. 1939년에 이르자 총독부는 이런 분위기를 넘어 불교에 대해 예전보다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총본산제보다 일본에서 통과된 종교단체법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한국에는 여러 종교가 존재하여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행을 보류하였다.

종교단체법이 실시되지 않게 되면서 총본산 건설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1940년 4월 寺名을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를 옮겨오는 형식을 빌었다. 그해 11월 31본사 주지들이 모여서 종래 '조선불교선교양종'이라고 사용해 오던 종명을 '조선불교조계종'으로 개정하였다. 마침내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 태고사가 건립된 것이다.

총독부는 1941년 4월 23일 개정된 사찰령 시행규칙을 인가하였다. 이때 제정된 태고사법은 1941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태고사 안에 종무원이 설치되어 불교인들의 여망이었던 총본산이 출범하게 되었다.

1941년 5월 1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태고사 사법이 시행되었고, 6월 5일에 조선불교조계종 제1회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종정으로 한암과, 9월 29일 종무총장 지암을 선출하였다. 10월에는 종무원 승적법 등 종회법을 심의하고 제정 반포되었다. 그리고 1942년 6월에는 조계종 종회법과 상벌법 승규법 승규법 시행세칙 등이 인가되고 시행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단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총본산은 비록 일제의 통제 속에서 건설되었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다. 총본산 건설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근대적 의식 속에서 생겨난 종단 건립의 숙원을 이룬 것이다. 근대 한국불교 종단은 1908년 3월 6일 각 도의 사찰대표 52인이 원흥사에서 총회를 열고 세운 원종이 시작이었다. 임제종과의 갈등을 겪은 후 1912년 6월 강제로 양 종단이 해체되면서 사라졌다. 그 후 30본산 체제로 이어진 한국불교는 총본산 태고사를 중심으로 전국의 본산들이 결집되는 조선불교조계종이 세워지면서 종단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 태고사는 광복 이후 '조선불교조계종'이 '조선불교'로 바뀌고, 정화운동 후 '대한불교조계종'이 세워질 때 이름이 조계사로 바뀌었지만 한국불교의 대표사찰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부처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마지막에 절실할 것을 지금 하라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㉑ 죽음을 생각는 삶



그림 · 박구원

60대 후반의 옥연씨, 최근 자꾸만 허무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따져보니 활기차게 살아 있을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일이든 무의미하고 재미가 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해왔다.

- 그런 생각을 하신 지 얼마나 되었나요?

- 올해 초, 아니 지난 해 초겨울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새벽이 눈이 떠지면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그 무렵부터 뭘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얼마 안 남은 인생 같고.

- 그 무렵 특별한 변화라고 할 만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 지난 가을에 둘째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매일 하던 아들아이 식사 준비나 옷 챙겨주기 같은 일상이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딸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뭔지 허무하고 딱히 할 일도 없어지고.

- 그러시군요. 아들 보내기 전과 보낸 후의 달라진 점에 대해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아들이 있어서 꼭 해야 했던 일을 말씀해보실까요.

- 매일 따뜻한 밥을 지었고 시장을 보았지요. 아들아이 출근 때 밥 반 공기라도 먹여 보냈거든요. 그리고 청소와 빨래도 미루지 않았고요. 가계부도 열심히 썼어요. 하루에 집안일을 2-3시간은 꼭 했네요

- 그러면 아들 뒷바라지로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 아무래도 장기여행은 어려웠지요. 아들은 가라고 했지만 사나흘 이상 집 비우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미국 사는 딸아이가 와서 손녀도 봐 주면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도 다음에 생각하자고 했지요. 명상센터에서 머물며 수련하고 싶은 일도 나중으로 미루었고요. 또 식단을 소식과 채식 위주로 바꾸고 싶었는데 고기 좋아하고 잘 먹어야 하는 아들 때문에 여러 반찬을 만들다 보니 내 입맛은 뒷전으로 밀렸어요.

- 지금 하고 싶었는데 미루었던 일들을 말하고 나니 어떤가요.

- 글쎄요… 하나씩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신다고 했는데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죽으면 끝이죠 뭐.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면 끝이지.

- 끝이라서 아쉽거나 허무하거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죽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 죽는 거야 어쩌겠어요? 다 가는 거지요. 오래도록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단지 죽음 자체가 무서워요. 오래 아프다 죽게 될까봐, 걱정이고요. 남편도 일찍 가고 없는데 치매나 암에 걸려서 혼자 앓는 것도 무섭고 아이들 고생시킬까봐 걱정되고 그러네요.

- 그러니까 죽음이 빨리 올까봐 걱정이라기보다 죽는 과정이 두려우신 거네요. 죽는 과정의 두려움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뭣보다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도록 애써야겠지요. 건강한 동안 재미나게 잘 살아야 하겠고요.

그 다음 옥연씨와의 코칭은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할 일을 열심히 하자는 것과, 죽는 과정이 덜 고통스럽도록 건강관리를 비롯해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으로 좁혀졌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오지 않을 것처럼 외면하는 일, 그게 죽음이다. 당장 심각한 병이 들지 않는 한 어쨌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산다.

어떤 이들은 '죽음' 의 공포를 외면함으로써 피하려고 한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인데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느라 지금부터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생로병사의 번뇌를 삶의 의지로 극복하는 용기

죽음이 곁에 올 때까지는 굳이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를 벗어나서, 미리 준비하고 가능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자는 운동이 웰다잉(Well-Dying)이다. 웰다잉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뜻에서 나아가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인간다운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삶의 시간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웰다잉이 웰빙(Well-Being)이라는 것이다.

불교철학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진정한 삶의 의지로 극복하는 용기와 지혜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죽으면 끝이죠'란 인식
미리 생각하며 인생 대비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삶 살자

〈숫타니파타〉의 화살경을 보자.

이 세상에서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고,
비참하고, 짧으며 고뇌로 얽혀 있다.
태어난 존재에게 죽음을 피할 방도는 없다.
늙음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한다. 정말로 생명 있는 존재에게 이것은 정해진 이치(법)이다.
익은 과일은 떨어질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태어난 자는 항상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붓다는 생로병사, 즉 생명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실존의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을 시작했다. 오랜 고행 끝엔 붓다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설파한다.

불교에서 죽음이란 단지 태어나고 소멸하는 숙명이 아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한 연기의 조건이다. 죽음의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난 삶의 가치를 자각해 소중한 인생의 여정을 수행을 통해서 향상시킬 것을 불교는 강조한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며 자기 결정권 갖기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 수 백 명의 이야기 〈죽음의 순간〉과 〈인생수업〉으로 죽음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상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것이었다. 저자들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삶은 기회이자 아름다움이며 놀이라고 말하면서, 삶을 붙잡고 감상하고 누릴 것을 권한다.

20년 가까이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해 온 김형숙씨는 저서인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이들 대부분은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 하지만 그곳은 한 인간이 삶을 매듭짓는 데 적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단 그 안에 들어선 이상 쉽게 나올 수도 자신의 뜻을 강하게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평소에 그 어떤 바람도 표현하지 않았다면 가족과 의료진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떠맡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 역시 법과 의학, 도덕적 책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다."

저자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최대한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할 때 죽음을 상상하기를 권한다.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시전의료의향서의 작성을 제시한다.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300 여개의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게 해놓았다. 불교단체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여성개발원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여러 비영리 단체와 법인에서 시니어 층을 대상으로 하는 웰 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남은 삶을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명존중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웰 다잉 관련 교육은 ▲지나온 인생그래프와 남은 인생 설계하기 ▲삶을 정리하는 기록 남기기 ▲유언장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자신의 묘비명 짓기 ▲ 관점을 바꾸는 죽음명상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례식 설계하기 ▲용서와 화해 등으로 다양하고 유익하게 구성되어 있다.

1인 독거노인의 임종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다.

시니어희망공동체는 누구나 인간답게 생을 마감하는 준비를 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보다 충실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에게 엔딩노트와 유언장 작성을 보조하는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엔딩노트' 는 유언처럼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아름다운 웰다잉을 위해 자신의 신변을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아름답게 정리하는 메모를 말한다. '나의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 주세요!' , '나의 유품은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 '나의 친구 누구에게 나의 죽음을 알려주세요!' , '나의 장례식에 이 노래를 꼭 들려주세요!' 와 같이 나의 장례방식과 장지, 가족관계등록부 등 유품처리, 영정사진, 사전의료의향 등을 미리 밝히는 것이다.

옥연씨는 코칭대화로 죽음을 적극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나눠주었다. 그녀는 코치와 함께 '웰 다잉 7계명' 을 작성했다. 첫째 해마다 하고 싶은 일 실천하기, 둘째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기, 셋째 유언장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넷째 장례 계획 세우기, 다섯째 매일 한 가지 보시하기, 여섯째 미운 사람 용서하고 고운 사람 더 사랑하기, 일곱째 추억의 물품 보관하기, 이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원스톱 시스템이란?!...

염불정서를 모르는 지역음향들의 부실시공으로 전국의 사찰들이 이중고를 겪으시는데 프로에게 맡겨 한 번에 최고의 시설만이 하자보수가 없어 오히려 큰 절약이라는 뜻!

원스톱시스템 구경방법 : 구경 신청이 오면 지역별로 방문. 다루기 1초 간단견본의 마이크와 법당현장 시설의 마이크를 양손에 들고 번갈아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내 소리가 편안할 때 나이가 들어 염불이 점점 힘이 드시는 분은 보물시스템으로 여기고 시설! 또는 다음을 기약

특장점!

(1) 영남권 20년 1천여 시설에도 단 한번도 A/S가 없었음 (A/S 기간 10년)
(2) 초간편 간단 시설로 앰프다루기 1초
(3) 중견사찰 기존 음향시설비의 1/3정도지만 염불소리는 비교시 놀라운 차이

▣ 추호라도 과장시는 본사 망신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할부가능

▣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하게 월등함.**

※ 스피커 계속 연결시는 비용추가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염불시설 전문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Projector EPSON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HITEC 아이텍 미디어 대표 박공희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2020년 1월 7일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불생불멸 세계엔 '生滅' 없다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㉑ 오온연기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한 6근 · 6경 · 6식, 시간연기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으로 되어 있다. 이제까지는 일체법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온에 들어오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이 없어지고, 색수상행식으로 출발한다. 여기에는 6근도 없고 6경도 없고 6식도 없다. 이것은 생명체가 형상이 생기기 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몸뚱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개념이 오온으로부터 출발한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두 가지 속성은 무상과 무아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무상이다.

변화로 존재 알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인식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로 이루어졌고, 이 변화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변화의 인식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했고,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술을 발효시키면 식초로 변하고, 우유를 발효시키면 요구르트나 치즈로 변하게 된다.

먼저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술을 생각해 보자. 술이 발효하면 식초가 된다. 술이 식초로 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술이 변하기 전의 밥을 A법이라고 하고 변하고 난 다음 식초가 된 상태를 B법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지금 오온을 고하고 있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오후 5시를 기해서 만약 이 술이 식초로 변한다고 하면 5시 전에 술이 있었고, 5시 이후에는 식초밖에 없다. 즉 5시를 기점으로 A법이 B법으로 바뀌었다. 무상을 설명할 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했다. A법이 B법으로 바뀐 상태가 무상이다.

술과 식초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해서 5시 전에는 술이 있었고, 5시 이후에는 식초가 있다. 5시를 기준으로 없던 식초가 생겼다. 식초는 생을 했고, 술은 없어져 버렸다. 원래 있던 술은 5시를 기준으로 해서 멸했다. 5시를 기준으로 해서 없던 식초는 생했다. 여기에서 무상이란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무상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은 모든 존재는 생멸한다는 것이다.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확실해 진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자체가 무상이었는데,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의 출발은 생이고, 모든 것은 생겼다가 마지막에는 없어진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생멸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의 출발은 생이며 끝은 멸인 것이다. 생(生)에서 멸(滅)까지 생각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멸(生滅)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A법에서 B법으로, 술에서 식초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없다가 생기는 것을 보고 생했다고 하며, 있다가 없어지는 술은 멸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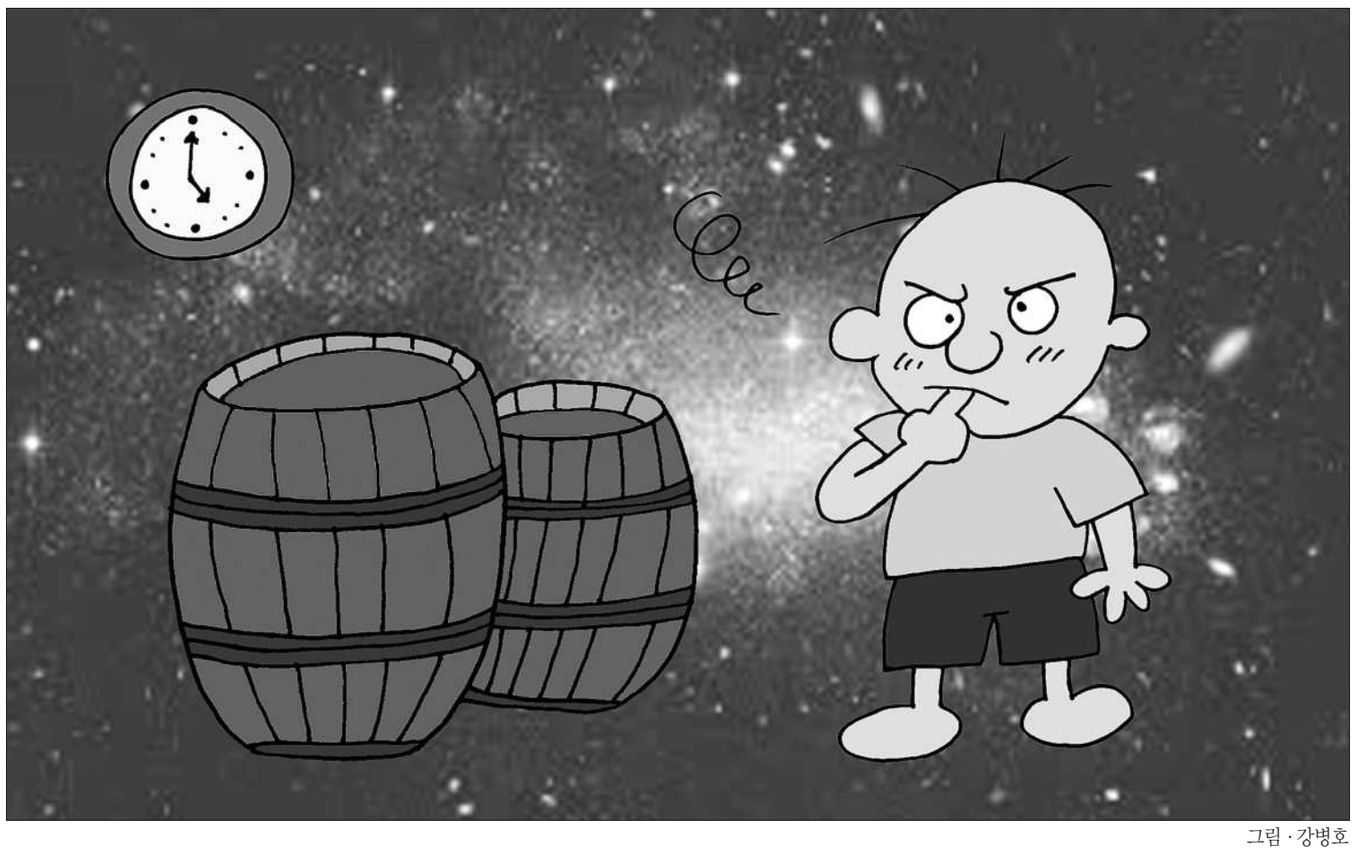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존재는 연기 · 실상론적인 관점서
다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연기적으로는 생멸의 세계이고
실상으로 볼 때는 불생불멸이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생멸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분명 5시를 기준으로 식초가 생겼고, 그 전에는 술이 있었다. 술이 없는데 식초가 생길 수 있는가? 식초가 생기려면 술이 있어야 하며 술에 의해서 그 다음 식초가 생기게 된다. 식초를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술이 있어야만 식초가 생길 수 있다. 이 생멸 법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5시를 기해서 분명히 A법인 술은 멸했고, B법인 식초는 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A와 B에는 서로 연고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고관계의 형성

부처님께서는 볏단 두 개를 가지고 연고의 관계를 설명했다. 연고관계는 시간연기를 설명할 때 앞의 것이 전제 되어야만 뒤에 것이 생긴다고 했다. 이것을 연고관계라고 설명했다. 식초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고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식초가 생기기 위해서는 술이 있어야 한다. 술이 없이 식초는 생길 수 없다. 이 술과 식초는 연고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것이다. 연고관계가 성립하려면 볏집 두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는 연고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술이 있어야 식초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A와 B가 서로 의존한다는 연고관계를 생각했을 때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연고관계가 가능한가. 술과 식초는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도 연고관계가 가능할까? 연고관계라는 것 자체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즉 의지하지 않고는 연고관계가 안된다. 볏짚 두 단이 서 있을려면 볏짚 한 단에 의해서 다른 한 단이 서 있듯이 A에 의해서 B가 존재하려면 동시에 있어야 만이 연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동시에 있어야만 가능한데 A에서 B로 변해버렸으므로 A는 없어지고 B가 생겼다. 여기서는 A와 B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하나가 멸 해버리고 하나가 생한다. 시간연기에서는 연고관계를 설명할 때 6식 6촉 6수 6애는 앞의 것에 연하여 뒤의 것이 생겼다. 앞의 것이 전제되어 뒤의 것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술과 식초와의 관계 속에서 술이 있다가 없어지고 식초가 생겼는데, 술과 식초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술이 있을 때는 식초가 없었고, 식초가 있을 때는 술이 없다.

A와 B가 어떤 한 시점에서 동시에 존재해야만 연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술이 있을 때는 식초가 없고, 식초가 있을 때는 술이 없으니까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이 없다. A법과 B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위대한 사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한다. 시간적인 상황을 공간적인 상황으로 존재의 상황을 바꾸어 버린다. 시간적인 흐름을 생각할 때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서 앞의 것이 있어야 만 뒤의 것이 생긴다.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인 시간과 공간에서 시간은 앞의 것이 있어야 만 뒤의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공간은 그냥 있는 것이다. 공간의 개념으로 넘어오면 동시에 존재하는 연고관계가 성립되지 않아도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에서 무아를 이끌어낸다. 즉 시간의 문제에서 공간의 문제로 넘어오게 된다.

관점의 변화

시간적인 문제에서는 연고관계가 성립해야만 가능했던 것이 공간의 문제에서는 연고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게 된다. 술과 식초와 같은 변화의 존재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공간의 관점으로 넘어가면서 사고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 당시 대중들에게 연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있어 최고의 묘수를 던진 것이다.

시간을 공간으로 치환해놓고 보니까 연고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은 그냥 있기 때문에 시간의 연속성과 흐름에 의해서 동시에 있지 않더라도 연고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간적인 관점에서 시간적인 문제가 공간적인 문제로 치환되다보니까 5시를 기점으로 술이 있다가 식초가 생겼다. 그래서 술은 5시를 기점으로 멸했고, 식초는 5시를 기점으로 생했다.

시간차원서 공간차원으로 치환

인식의 대전환은 시간적인 문제를 공간적인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고의 대혁명은 시간적인 문제를 공간적인 문제로 치환하는데서 부터 이루어진다. 5시를 기점으로 공간에서 생각하니까 공간은 지하, 1층, 2층 층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현대불교신문사 건물의 1층, 2층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2층인 위로 들어나는 세상과 1층인 아래로 내려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5시를 기점으로 위로 드러나는 세상과 아래로 내려가는 잠재된 세상으로 나누어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드러난 세상과 보이지 않는 잠재된 세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5시를 기점으로 술은 잠재된 세상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 연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식초가 생겼고, 술은 잠재된 세상으로 내려가 멸했다. 우리가 인식할 때 잠재된 세상으로 내려가면 멸한 것이고, 눈으로 귀로 육근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드러난 세상으로 올라오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드러난 세상과 잠재된 세상

드러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식할 수 있어 존재하는 것이다. 드러난 세상에 올라오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잠재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면 멸하는 것이니다. 드러난 세상과 잠재된 세상이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니까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닌 단지 존재하고 있던 것이 내려가면 멸했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잠재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면 멸한 것이고 드러난 세상으로 올라오면 생한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멸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생멸이 아니고 불생불멸이다. 잠재된 세상에서 드러난 세상으로 올라오면 생했다고 하고 드러난 세상에 있던 것이 잠재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면 멸했다고 하는 것이다. 전체 구조를 놓고 보니까 불생불멸일 뿐이다.

불생불멸의 세계에서는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위대한 구조 중 하나이다. 존재에 대한 인식은 연기적인 관점에서도 이해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상론적인 관점에서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생멸의 세계이고 실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생불멸이 되어 열반적정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고 살고 한다.

끊임없이 죽고 사는 이 생멸의 세계를 법안으로 보니까 열반의 세계로 불생불멸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다. 실상론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불생불멸의 세계를 말한다. 불생불멸의 실상으로 이해하게 되면 상주불멸의 세계가 된다. 열반경이나 묘법연화경 계통은 실상론을 바탕으로 진리의 세계를 설명한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생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불생불멸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생했다 멸했다하는 것이 결국 불생불멸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기를 드러난 세상과 잠재된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니 불생불멸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천하대도 죽음을 면하는 대용맹정진 숨 한번 멈춘 90초로
천문과 혜안이 열려 영혼백이 하나로 되는 견성성불 건강장수
거부장수 일류스승 삼계를 통섭하는 숙명통용맹정진대법회

숙명통이란 정신세계, 심신세계, 육신의 세계 일체가 하나 되어 전생금생현생미래생사와 우주와 내주인공인 마음이 하나 되어 내육신속 주인공 내부처와 막힘이 없는 수행으로 묵언, 참선, 염불, 문자, 화두 등은 마왕의 장난 비행으로 찾지 못하는 자성은 내부처 태궁을 찾아 빛을 보는 단 한번으로도 누구나 성불 도통하여 평생직업으로 민중생을 제도하는 의통력, 신통력, 초능력, 건강력, 자비력, 자금력 일류 스승 되는 수행.



일체 고액 소멸하는
달마구입처 : 태일
010-9292-3110

■ **입 제 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밤해시 ■ 19일 화요일 해제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간편한 옷, 무박 2일. 귀신을 부리는 천서 교제
■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마음의 보시금 : 천문천서 교제대**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010-9718-4449

지구촌 모든 불교는 삼대요소가 없으므로 불교저변 확대를 위하여
불교법인단체 총연합회를 창종, 부처님 진법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귀와 눈에 있는 자 알아듣고 눈으로 보아 진정 부처를 찾고자 하시는 도인과 불제자 등 입문 바랍니다.

종도모집 : 사암, 사찰, 포교사, 철학원, 수행자, 입종자, 법당염불자, 신도 등

◎ 불교법인단체 달마조계종 ◎ 불교법인 불선도무술달마기공회 ◎ 불교법인 민족문화예술연합회
◎ 불교법인 동양철학 풍수지리학술원 ◎ 불교법인단체총연합회 환성태일대종사 합장
◎ 공고 : 대한불교달마종으로 등록된 사암사찰, 승려증 및 일체 증명서류 무효함.

※ 2019년 11월 12일자 폐업신고, 직인무효이므로 각종 증명서를 회수바라며,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연회비 36만원, 제반서류 등 접수.

천기공사 불선도육신통천문도통회총본산 **달마용천사 환성** 합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뭐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新 불교사자성어

㊵ 오매일여(寤寐一如)

오매일여(寤寐一如). '자나 깨나 한결같다(寤寐一如)' 는 뜻이다. 일반적인 뜻은 그렇지만, 선에서는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한결같아야 한다.' 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매일여(寤寐一如)는 근래 우리나라 선원에서 새롭게 대두된 말이다. '무', '이뭣고' 등 화두를 들어서(참구하여) 화두삼매의 경지가 된 상태, 삼매가 된 상태를 말한다. 오(寤)는 깨어 있을 때를 가리키고, 매(寐)는 잠들어 있을 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일여(一如)는 '오로지', '한결 같다' 는 뜻으로 삼매(三昧)를 가리킨다.

삼매는 '집중', '몰입' 으로서 정신 통일을 말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영어의 '올인(all in)' 과 똑같은 뜻이라고 보면 된다. 일념으로 화두에 올인, 집중해서 일체 잡념이나 다른 생각(망상)이 없는 상태,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상태(삼매)가 되어야만 화두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예로 부모는 자식이 매우 아프거나 군에 입대하면 자나 깨나 오로지 자식만 생각한다. 오매일여. 아버지는 남자라서 조금 덜하지만 어머니는 여성이고 게다가 모성애가 작용해서 한층 더 가슴앓이를 한다. 군에 가서 잘 있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등등. 자나 깨나 갖가지로 상상을 하면서 자식 걱정에 몰입한다. 딸이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거나 시집을 가도 걱정은 마찬가지이다. 오매불망 자식 걱정, 자식 생각. 그것이 곧 선에서 말하는 오매일여이다. '화두 오매일여' 는 아니지만 '자식 걱정 오매일여' 라고 할 수 있다.

오매일여는 삼매로서 '자나 깨나 오직 한결같이 화두에 몰입, 전념(專念)해야 한다' 는 뜻이다. 잡념, 딴 생각, 엉뚱한 생각은 일절 하지 말고 오직 화두만 생각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갖가지 번뇌 망상이 물러가고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져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화두만이 아니고 사업이나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이고, 그 밖에 다른 일이나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올인(all in), 전념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기술도 전념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되고 자장면이나 칼국수, 곰탕으로 유명하다는 집도 가보면 보통 10년에서 20년 동안 그것만 만들었다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애인을 그리워하듯이, 또는 주야로 사업이나 돈을 버는데 매달리듯이 화두를 참구한다면 아마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대부분 좌선을 한다고 앉아서 화두를 들고 10분 정도가 지나면 경쟁하듯 졸거나(昏沈) 잡념에 빠져있거나(掉擧),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無記) 앉아 있기 때문이다.

오매일여(寤寐一如)의 어원은 유가의 경서인 〈시경(詩經)〉 관저장에 나오는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이라는 말에 기인한다. 즉 남녀가 서로 오매불망 잊지 못하고 한결 같이 그리워한다는 뜻인데, 앞의 '한결같다(一如)' 는 말이나 여기 '잊지 못한다(不忘)' 는 말이나 용어는 달라도 그 뜻은 모두 똑같다.

오매일여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의미를 과잉으로 부여하여 '무', '이뭣고' 등 화두를 들고(참구) 있는 상태가 깊은 숙면 속에서도 생생하게 화두를 들어야만(화두 참구) 한다고 한다. 그것이 오매일여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화두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하여, 또는 화두 참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오류라고 판단된다.

'오매일여' 의 정의는 분별심을 버리고 일심으로 화두를 참구해야만 깨닫게 된다는 상징적인 말이다. 자나 깨나 일심으로 참구하라는 상징적인 말인데, 너무 신비화시켜서 그것을 사실로 오판하고 있다. 너무 더워서 죽을 뻔했다는 말을 사실로 이해한다면 '어린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는 속담과 같다. 동의어로는 '오매항일(寤寐恒一)', '오매상일(寤寐常一)', '몽교일여(夢覺一如)' 등이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보수가 방장실로 돌아간 까닭은?



격절록 강설

㊵ 보수개당 2

[評唱 2]

三聖云 "恁麼為人 瞎却鎭州一城人眼去在" 此處又作麼生 禪和家 也須子細試去體究看. 莫是保壽不會便歸方丈麼. 是何道理. 看他悟底人. 爪牙迥自不同. 後來僧問 "萬里無片雲時如何" 壽云 "青天也" 須喫棒.

삼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을 위한다면 (다만 이 스님의 눈만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진주성 사람들 모두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고 했는데, 여기엔 또 무엇이 있는가? 참선하는 스님들(禪和家)이라면 모름지기 시험 삼아 자세히 몸소 참구해보라!

보수가 몰라서 바로 방장실로 돌아간 것인가?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저 깨달은 사람(悟底人)을 보라! 학인을 지도하는 방법(爪牙)이 (일반적인 방법과는) 아득히 멀어져서 정말로 같지 않은 것이다.

뒤에 어떤 스님이 물었다.

"만 리에 한 조각의 구름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수가 말했다.

"맑은 하늘(青天)!"

(그렇게 하지 말고) 모름지기 한 방(棒)을 쳤어야 했다.

臨濟遷化 三聖作院生 濟云 "吾滅後不得滅却吾正法眼藏" 聖云 "誰敢滅却和尚正法藏眼" 濟云 "忽有人問汝 作麼生祇對" 三聖便喝. 濟云 "誰知我正法眼藏 到這瞎驢邊滅却"

임제가 천화할 때, 삼성이 제자(院生)로 있었는데, 임제가 말했다.

"내가 입멸한 뒤 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멸각해서는 안 된다."

삼성이 말했다.

"누가 감히 화상의 정법안장을 멸각하겠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홀연히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삼성이 바로 "할(喝)!" 했다.

(그러자) 임제가 말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 먼 나귀에 이르러 멸각하게 될 줄을!"

後僧擧此 語請益風穴. 穴云 "密付將終 全主即滅" 復云 "只如三聖一喝又作麼生" 穴云 "可謂入室之真子 不同門外之游人 臨濟一宗 風穴親承 不同小小" 後來南禪師道 "百丈耳聾猶自可 三聖瞎驢愁殺人" 看他從上宗風 豈是規模聞聽得來. 須是桶底子脫相似 大用現前 始有如此作略.

뒤에 어떤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 풍혈(風穴, 풍혈연소 896~973)에게 청익(請益)하자, 풍혈이 말했다.

"은밀하게 부촉하고 돌아가시려 했으니, 완전히 주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삼성의 일 할(一喝)은 또 무엇인가?"

풍혈이 말했다.

"가위 진정한 입실제자라면 문 밖에서 노니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 법입니다. 임제의 일종(臨濟一宗)을 풍혈이 친히 이은 것은 사소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뒤에 남 선사(南禪師, 황룡혜남)가 말했다.

"백장이 귀먹은 것은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눈 먼 삼성은 몹시 근심스럽게 한다."

저 예로부터 내려오는 종풍을 보라! 이것이 어찌 무슨 본보기 같은 것이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모름지기 통 밑이 쑥 빠진 것과 같이 되어 대용이 눈앞에 드러나야(大用現前) 비로소 이와 같은 작략(作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㊵ 이해의 길 20

부파불교가 소승인 이유

우리는 불교를 소승과 대승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에 익숙해있다. 그래서 태국이나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남방불교를 소승이라 부르고 중국이나 한국, 일본, 티베트 등의 북방불교를 대승이라 한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면서 붓다의 가르침마저 소승이라 여기는 예기치 못한 오류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본래 소승이라는 말은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이 부파불교의 행태를 보고 붙인 용어다. 소승은 본래 '히나야나(Hinayana)' 란 말로서 '작은 배', 혹은 '열등한 가르침' 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이란 말을 남방에서는 아주 싫어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부파불교뿐만 아니라 근본불교까지 포함해서 소승으로 인식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붓다의 근본 교설마저 열등한 가르침으로 취급하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자들 스스로 붓다의 교설을 폄하하는 요즘말로 '웃픈'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은 왜 부파불교를 소승이라고 비판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부파불교가 지니고 있는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파불교는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지적 재능을 갖춘 출가자 중심의 불교였다. 그들이 이론을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불교의 실천성은 점차로 약화되었다. 종교의 생명력은 누가 뭐라 해도 실천에 있다. 붓다가 평생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도 자신이 세운 이론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었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생명력 넘치는 실천 중심의 불교를 이론을 중시하는 관념적인 불교로 변질시켰다. 불교가 모든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식을 갖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것이다.

부파불교는 지나치게 학문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문자를 모르는 대중들이 붓다의 가르침에 접근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다. 깨침과 자비는 불교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두 기둥이다. 불교에서 깨침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를 통해 진정한 자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자비라는 대사회적 실천에 무관심했다. 비록 불교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지나치게 이론에 집착한 결과 중생들을 향한 자비의 기둥이 무너지고 말았다. 불교라는 거대한 건물 역시 무사할 수 없었다.

무너진 불교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붓다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붓다가 걸었던 길을 손에 손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는 일이었다. 그런데 부파불교는 대중들의 손을 뿌리치고 홀로 그 길을 가려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열반행 버스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고급 승용차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들만의 길을 선택했던 부파불교는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그들의 한계를 지적한 사람들은 부파불교를 향해 '소승(小乘)' 이라고 외쳤다. 여기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작은 배, 작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의식이 담겨있다. 그리고 붓다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승이라 불렀다. 대승이란 범어로 '마하야나(Mahayana)' 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열반의 땅을 향해 함께 타고 가는 '커다란 배', '훌륭한 가르침' 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 대승이란 구분이 부파불교에게는 아픈 상처다.

요즘은 '소승' 이란 용어를 잘 쓰지 않는다. 이 말 자체에 대승적 편견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장로불교(長老佛敎)나 상좌불교(上座佛敎), 혹은 그들의 언어를 살려서 '테라(Thera)' 불교라고 부른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 당시 부파불교의 한계를 지적한 대승불교의 입장은 정당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부파의 전통을 계승한 그들의 문화 전체를 소승이라 폄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대승이라 자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고, 보살행을 소홀히 하는 소승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관음보살 자비사상 세상에 널리"

무등산 미륵사, 관음전 3천불 점안

자비의 가르침 실천을 위한 관음 3천불 점안식이 열렸다.

무등산 미륵사(주지 혜법)는 11월 1일 관음전과 3천불 조성을 마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 관음전은 천수천안 관음보살을 주불로 하고, 주변에 3천개의 관음보살 원불을 조성해 일반인들에게 관세음보살의 자비사상을 일깨우는 의미를 담았다.

주지 혜법 스님은 "관세음보살은 자비사상이다. 자비의 마음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함께 자비사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성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불사는 지난 2018년 10월에 시작해, 60평 규모의 전각을 마련하고 원불조성을 진행해왔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관음사 주지 소운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점안의식과 공양의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 완공한 관음전은 기존 일반건물을 사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 불단과 내부시설을 갖춰 첫 선을 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화합 도모"

제19회 전북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재학생과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제19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1월 2일 김제 금산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우리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전북불교대학, 화엄불교대학, 무주불교대학, 정읍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수현불교대학 등 6개 불교대학 동문 및 재학생 500여 명이 동참했다.

전북사암승가회 주최로 해마다 열리는 체육대회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교무국장 응묵 스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총무 우림 스님, 정읍불교대학 학감 우일 스님,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조영석 금산중고등학교장 등이 동참했다.

배구, 단체 줄넘기, 2인3각 달리기, 줄다리기 등의 경기와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으며, 각 불교대학인들은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전북불교대학이 3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16회 대원상 대상 혜거 스님

불교진흥원, 6일 수상자 발표
수행 대중화 공로 인정받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목 스님 혜거 스님 지일 스님

출가 부문 특별 · 장려상에는 정목 · 지일 스님 영예 안아
재가 특별상에 여성개발원

불법 홍포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개인과 단체를 발굴 · 시상하는 대원상의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다. 제16회 대원상 대상에는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장인 혜거 스님이 수상했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5일 대원상 최종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6회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16회 대원상 출가부문 대상에는 혜거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에는 유나방송 대표 정목 스님이, 장려상에는 한국불교법사대학장 지일 스님이 선정됐다. 재가부문 특별상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수상했으며, 장려상에는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 · 일일시호일(대표 심정섭) · 진주불교회(이사장 홍수승)가 이름을 올렸다.

제16회 대원상 대상 수상자인 혜거 스님은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평생을 도심포교와 역경불사에 헌신해 왔다. 특히 금강경 강송대회를 열어 〈금강경〉을 널리 알리는데 힘썼다. 탄허기념박물관을 개관해 일반대중에게 심도 있는 수행과 공부, 문화를 통해 문화 불교를 전파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참선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혜거 스님은 이 같은 공로로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진흥원 측은 "(혜거 스님은)수행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명상지도자들과 함께 수행법 전파에도 기여하는 등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포교와 문화 불사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왔다"고 공로를 인정했다.

유나방송 대표이자 방송진행자인 정목 스님은 힐링 멘토로서 젊은 세대와 호흡하는 등 시대에 적합한 수행 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장려상 수상자인 지일 스님은 재소자 포교와 불교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가부문 특별상 수상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교를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상 수상자인 박찬욱 소장은 지속적인 학술연찬회 개최와 총서 발간을 통해 지식인 대상 포교의 장을 개척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일일시호일은 이주노동자 병원비 지원 등의 공로가 인정됐으며, 진주불교회는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진주 지역 포교를 이끌어왔다.

한편,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대원상은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을 위해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금을 배로 올려, 수상자에게 대상은 2000만원, 특별상은 1000만원, 장려상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편, 제16회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5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린다.

생명나눔 대상 박원순 시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제1회 대상 발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생명나눔 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생명나눔은 "생명나눔 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진문)가 최종심의 과정을 거쳐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첫 회 대상 수상자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선정됐으며, 홍보상 부문에는 불교신문, 생명상 부문에는 김남명 홍보위원, 나눔상 부문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으로 선정된 박 시장은 지난 2001년 4월 생명나눔을 통해 장기 및 안구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장기기증 홍보, 생명나눔 가치의 사회적 실천에 큰 기여를 했다.

생명나눔대상 선정위원회는 "장기기증 등과 같은 생명나눔 실천은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앞장설 때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남다른 실천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선정 직후 박 시장은 "2001년 장기기증을 약속한 후 그동안 어떤 실천을 해왔는지 돌아보게 된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나눔의 정신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외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최응천

문화재청 1일 임명… 현역 교수는 처음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3대 이사장에 최응천 교수를 임명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에 현역 교수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대 불교미술과와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최응천 교수는 일본 규슈대(九州大) 대학원에서 '한국 범음구(梵音具)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범종 · 정병 등 불교금속공예 연구에 많은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범종 관련 연구 논문만 40여 편에 이를 정도로 범종 분야에서는 가장 탁견을 가진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한 국외소재 문화재 연구에도 매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프랑스 기메박물관,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 등의 문화재 조사에 참여했다.

최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이 사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불교 종립대 교수이자 불교미술을 전공한 저를 임명한 것은 해외 유출 불교문화재 환수에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재단 이사장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2년 10월 31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재소자들의 佛法 귀의

동화사, 대구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는 11월 5일 대구교도소를 찾아 재소자 수계법회를 열었다. 교도소 내 법당에서 열린 수계법회서는 102명의 재소자들이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계사인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계를 받는 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계를 받은 수승한 공덕으로 자유와 행복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자비의 쌀 나눈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빛고을나눔나무에 2000㎏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지난 10월 29일 광주지역 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신도들이 모은 자비의 쌀 2000㎏을 전달했다. 이날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기탁한 자비의 쌀은 11월 6일 서구청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을 담은 산사 문화 '활짝'

부산 청량사 '노을 물든 산사음악회'



부산 청량사(주지 보혜)는 11월 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2019 노을 물든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보혜 스님의 3번째 시집인 〈바람이 전하는 말〉의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린 이번 산사 음악회는 박우철, 영탁 등 인기가수와 메소드필하모닉이 함께해 가요와 국악, 클래식을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무대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빙의 치유 사례

◈ 질병 뒤에 숨은 영가확인 천도 병고 치유 ◈

- 수십년동안 신기라는 등의 병으로 고통받은 사례
- 쇠부치 (커터칼, 책스프링, 가위 잘라먹던 사례)
- 거식증 ●이명 ●환청 ●공황장애
- 몽유병 ●가위눌림
- 온몸이 너무 아픈데 병명이 안 나오는 사례
- 밤만 되면 무릎 밑으로 불같이 뜨겁다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잠을 못자는 사례
- 갑자기 숨을 못 쉴 만큼 호흡곤란
- 음식만 보면 토하는 사례
- 연중 행사식으로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입원, 퇴원 반복 사례
- 집안 내력으로 무당하던 사람들 정리해서 일반인으로 사는 사례
-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 (직계)
- 방에서 안 나오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난폭해지는 사례
- 난폭을 일삼아 정신병원을 수시로 입원하는 사례
- 부인이 남편이 무서워 보인다고 이혼하자는 사례
- 오랜 기침과 가래로 고통 받은 사례
- 팔에 생선비늘이 있다고 칼로 자해하려한 사례
- 이성만 보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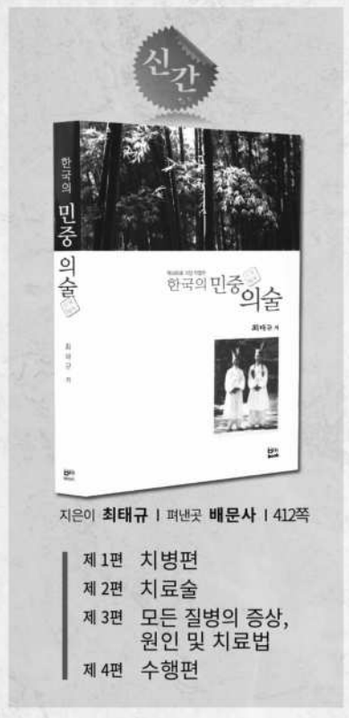
(치유사례가 수없이 많으나 지면상 표기가 힘듭니다)

약사도량 자비정사

031)285-1173, 010-3268-1173 (010-4283-117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75 (용인 한국민속촌 주차장 앞)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68호 | A13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남의 허물만 찾으러 다닌다.



부처님 말씀 읽기 -《불설무희망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되지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평생돈벼락 운**(運재테크)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수강생 모집

사주 추명설 알기쉽게 단시일 지도함

• 길흉직업 • 궁합선택
• 영가천도 • 작명상담

010-9323-5693

재의식 속성 지도도량

49재 천도재 속성지도합니다.

사찰 포교원 암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없이 염불소리로 재의식을 여법하게 진행할수 있게 속성으로 지도합니다. 관심있는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4주완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4
중앙시장내 법공스님
010-4382-3448

• • •

사찰처사
(운전가능)님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 • •

010-9157-2276

• • •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010-2168-2800

종단기관지 양도

종단 기관지
(신문·잡지)
양도합니다.

010-5412-8040

신 통 력

손에 쥐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 • •

법화경 공부 같이
하실분 찾습니다.
비구니, 보살님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충남 공주시 쌍신길 223번지
법화사 해봉 합장

010-3008-1269

컴퓨터 봉사자 인연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관리 경험자분
블로그(카페)제작, 홍보 경험자분

부산에 있는 작은암자(토굴)입니다. 지역은 관계가 없으며 컴퓨터 관련 좋은인연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비는 지불하겠습니다.)

대원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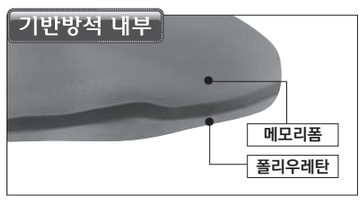
051)529-2100
010-9085-0792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충북 감곡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60대 컴퓨터 및 운전 가능한 분

봉은사에서는 스님분들 염불, 음치교정, 전통가요, 민요, 관음시식, 체계적으로 강의

문의 010-5883-2255
010-5893-3705

• • •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매듭으로 뭘 만들까요?

모던하고 멋있는 장신구는 물론, **108염주**, 인테리어 소품, 단주, 묵주도 만듭니다.

◈ 매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

지도 성낙윤 ☎ 010-5282-843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68호 | A14 | 전면광고

비록 사람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뒤에
삼가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이.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연수원(터) 안내

- 위치 : 경부선 영동I.C 15분거리
- 경관수려. 완전 독립된 산속 전답.
- 총평수 : 약 5천평
- 가액 : 평당 15만원

010-9504-2388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광진불사

◎ 위치 : 경기도 시내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5천

◎ 위치 : 서울신도시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14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및 수목장 부지안내

- 위치 :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70번지 / 마우나 리조트 부근.
- 울산, 포항에서 25분 거리임
- 용도 : 사찰 및 수목장으로 최적지임
- 토지 : 2만7천평임 / 현.지목은 대지 및 임야 주차장이며 임야는 70% 부지 조성 되어 있음
- 건물 : 800평(6층/현재 연수원으로 사용하며 깨끗함)
- 특징 : 정남향. 전면하천. 청수폭포. 인근 민가 없음
- 양도가는 현장 답사후 결정함(양도. 임대협의)

010-3877-6899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방도로 변
- 거창읍에서 6분 거리. 정남향 집 뒤 북쪽 소나무산
- 총 1200평 중 대지 329평 전 489평. 기타토지
- 주택건물 35평(황토방1) 창고 57평(황토방1)
- 암반우물1. 자연우물1. 소나무 정원
- 가액 : 3억 8000만원

010-3848-245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 오거리 최고요지. 도보 5분~10분거리 뒤에는 산.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
- 대지 : 100평 사용중, 74평 허가득.
- 건물 : 법당30평. 방1개.창고2.화장실2. 요사채30평.방2개.다용도실1.샤워실1.창고1
- 가액 : 3억3천

010-6565-2042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1층-공양간(방3개,화장실), 2층-방3,화장실, 3층-법당,3존불,지장불상,칠성,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급) 안내

- 위치: 부산 최고 바다전망
- 부산시내(문화재 사찰)
- 토지 : 임야 대지4,100평
- 건물 : 법당38평, 산신각6평
- 지대방10평
- 요사체 공양간 95평
- 가액23억

010-5346-41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차로10분,안산20분 ● 총110평정도 4층 전체 및 옥상 전체 사용 ● 삼존불(상단),신중단(홍탱화),산신탱화,약사전(약사관음,후불탱화), 영단(목단상조성) 법당 약 70평 이상 ● 사찰소임으로 급히 결정되어 부득이 ● 몸만오셔서 즉시법회가능 ● 큰방3(에어컨),사무실1.다용도실1.공양실.법당.앰프시설,에어컨2대 ● 보증금:1000만원.월150만원(보증금에따라 월임대료 조절가능) ● 총시설비 6500만원. 현포교원개원13년이상. ● 월곶.배곧신도시아파트대단지,서울대학교,이마트,대부도,오이도 근교

010-8599-946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 안내

- 위치 : 용인터미널 10분거리.버스,빌라.주택많음.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 456m2. 138평. 목조 5칸
- 법당3칸.방2개.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지붕 칼라강판 ● 창건연대 40년 이상된 고찰. 생활불편 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2천

010-3565-008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 : 약 100평
- 건물 : 법당 30평. 스님방. 주방. 화장실 있음
- 산신각 : 3평(용왕당 별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 대출 : 1억 7천

010-9042-77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가액 : 16억(대출금 5억 포함)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6억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 착공. 사찰연결

010-9647-0723

토굴 안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문구 신이문역 3분거리 삼존불,신중,산신,지장,칠성
- 법당 겸 거실,작은방1,주방,화장실, 창고2개,고정주차1대,3층건물 중 1층
- 보증금 : 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500만원(즉시법회가능)
- 스님,무속인 혼자운영하기 참 좋은곳

010-5129-5275

사찰 안내

- 위치:경기 파주 지역 •대지:90평 •1층. 건평70평 중 50평. 황토방 편백 •법당 2층 30평. 바로 법회 가능 •서울역~파주지하철.교통편리.주차편리.최상시설.시야광활한 동향집(용도:사찰. 포교원. 교육. 명상센터. 쉼터등)
- 가액:4억 7천만원(조절가능)

010-2122-0075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3323-7000

사찰 안내

- 위치 : 구미근교(북삼읍)
- 대지 : 약 178평
- 건물 : 1층 약 100평 실내골프장 (월세 120만원 나옴) 2층 : 법당 및 요사채(약100평)
- 가액 : 6억 5천 (대출3억2천 포함, 조정가능)

010-8008-6781

사찰 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7천

011-9143-009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티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포교당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
- 평수 : 약 50평. 큰방. 거실. 중간방 2개. 마당. 기름보일러 별채 : 큰방1. 거실1. 화장실1
- 독채 전세. 위치 좋음
- 역학이나 무속신앙 하시는 분도 가능
- 가액 : 3500만원

010-3293-170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북구 재래시장요지 신협~농협중간
- 건물2층60평(無세대 상가) 2층~옥상 단독사용
- 삼존불.신중.칠성.산신.용왕.소불200불.좌대법고
- 친견실.객실.명상수련.편백황토 힐링방
- 냉온 난방.실내외 보안시설 및 대형 주차시설
- 열차.지하철.버스(도보5분)공항(차량10분)거리
- 전세 : 2천/30만, 시설 : 3천8백 현~법회중
- 건강문제로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010-4535-2568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마을 안. 186평
- 조립식 법당. 15평
- 청동, 삼존불, 후불, 104위신중, 독성, 산신 탱화, 요사채, 냉방, 온히터, 앰프시설 완비, 주차시설 완비, 창고 등
- 보증금 1000만 / 월세 30만
- 시설비 2900만. 절충가능

010-9150-0029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토굴안내(몽땅3,700만)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동현중학교 뒤
- 평수 : 대지50평, 건평 30평
- 가액 : 몽땅(집기포함) 3,700만(조절안됨)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직접거래(부동산 사절)
- 입주와 동시 법회가능

011-590-2555

사찰건물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등산로 접함
- 주차가능, 공기맑고 텃밭있음
- 건평 : 30평, 국유지 90평
- 보증금 5천만 / 월 50만

010-3885-8989

멋진 2층상가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총 217평
  1층 : 상가 약 45평(방6개)
  2층 : 주택 약 35평(방3개.거실. 화장실)잔디마당 및 조경좋음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사찰건물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등산로 접함
- 주차가능, 공기맑고 텃밭있음
- 건평 : 30평, 국유지 90평
- 보증금 5천만 / 월 50만

010-3885-8989

멋진 2층상가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대지 : 총 217평
  1층 : 상가 약 45평(방6개)
  2층 : 주택 약 35평(방3개.거실. 화장실)잔디마당 및 조경좋음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달라이라마 "이제 환생제도 끝낼 때"

세계 대학생 대담서… 부정적 사례도 언급해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직접 티베트 불교 특유의 '환생제도'에 대한 종지부를 선언해 화제다. 불교전문 외신 '라이온즈 로어'를 비롯해 '타임즈 오브 인디아' '아시아 타임즈' 등의 외신들은 10월 28일, 달라이라마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달라이라마는 10월 25일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환생에 대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세계 각지에서 온 100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한 대담에서 '현대에 살아있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답 중이었다.

달라이라마는 "스승이 환생하는 제도를 인식하는 관습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티베트에서 생겨난 특별한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는 환생제도가 고대 인도불교 전통에서는 없었던 것이며, 용수보살과 같은 인도의 대선지식들이 환생했다고 인정한 적도 없다고 예시를 들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환생제도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원래의 인도불교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는 불교교리상의 윤회와 환생에 대한 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달라이라마는 환생제도에 대해 "티베트의 환생제도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봉건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봉건제와 관련된 환생제도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이어 "실제 불법의 증장이나 지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욕을 위해 환생제도를 이용한 환생자들이 있었다"면서 환생제도의 시대착오적인 면과 부정적인 사례를 지적했다.

인도불교에는 없던 환생제도
티베트 특별한 전통이었지만
이젠 시대와 맞지 않는 제도
중국 개입 막기 위한 해석도

외신 '라이온즈 로어'는 티베트 불교에서 환생제도는 약 700년의 역사를 가지며, 법맥을 전승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달라이라마가 지적한 것처럼 봉건제도상 지방의 정치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도 이용돼 왔으며, 최근 중국정부가 티베트의 환생자는 중앙정부의 인증을 거치게 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정부는 최근 거듭되는 달라이라마의 건강이상설에 맞춰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나 후계자가 중국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라이온즈 로어'는 "달라이라마만으로는 티베트 불교 전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티베트 정부의 수반을 이어온 역사성에서 티베트 불교 전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달라이라마 환생제도에 집착하는 이유를 지적했다.

한편 계속되는 환생자와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10월 28일 달라이라마를 접견한 미국의 종교자유 대사인 사무엘 브라운백과 대표단은 "미국정부는 달라이라마를 지지하며, 그 승계에 있어서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부가 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달라이라마의 후계자를 선발하는 역할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과 그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 다른 정부나 단체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 역시 "달라이라마 제도의 존속과 그 후임자에 있어서는 티베트인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중국정부는 이번 발언과 브라운백의 미대표단의 발표에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베이징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티베트 관련 문제는 중국 내부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세계각지에서 온 대학생들과 대담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20대 스님들이 브레이크 댄스를?

대학서 함께 춤 춘 스님들
청년 포교 위해 무대 올라
"평화의 가르침 알아가길"

일본의 국보를 소장한 산문(山門)에서 벌어지는 댄스타임. 춤을 추는 이들은 다름 아닌 젊은 스님들이다. 스님들이 사찰에서 특별한 댄스공연을 펼친 소식을 11월 1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마이도나 뉴스'가 전했다.

일본 교토 히가시야마 지구에 위치한 고찰 지온인(知恩院). 일본 정토종의 총본산이자 종조 호넨(法然) 스님의 묘소가 있기로 유명하다. 지온인의 산문에 해당하는 삼문(三門)은 높이 25m의 거대한 문으로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다.

가을을 맞이해 지온인에서 한 달간 열리는 야간 라이트업 행사에 맞춰 이 문 앞에 설치되는 특설무대에서 두 명의 스님들이 브레이크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



브레이크 댄스와 불교를 접목한 카와하라, 아스카이 스님. 사진출처=마이도뉴스

출연자는 지온인의 소임을 보고 있는 카와하라 코키 스님과 아스카이 죠지츠 스님. 20대 동갑내기의 두 스님은 대학시절 같은 댄스 동아리에서 함께 춤을 시작했다. 비록 서로 다른 종단에 속해있지만 춤으로 하나 되어 동고동락해왔다.

댄스 공연은 지난 5월부터 기획했다. 코키 스님은 "야간 라이트업 행사 기획회의에서 '대학시절 브레이크 댄스를 했다'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스님은 "회의를 진행하던 다른 스님들과 직원들이 농담조로 공연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 실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웃어보였다.

코키 스님은 "미국에서 태어난 브레이크 댄스는 불교의 가르침과 통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댄스는 미국의 갱단들 간의 항쟁을 멈추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했으며, 점점 인종과 국적을 묻지 않는 춤으로 발전했다는 게 그 이유다. 스님은 "브레이크 댄스는 평화와 평등의 바람이 담겨있다. 이 메시지는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론, 정토종의 종조인 호넨 스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코키 스님은 "댄스 전에 간단한 법문을 준비하고 있다. 공연을 보러 온 젊은이들이 불교나 사찰에 흥미를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죠지츠 스님은 "종파의 벽을 넘어 젊은 스님들이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연에 나서는 포부를 밝혔다.

두 스님은 "평화와 평등의 바람이 담긴 마음으로 춤을 출 것"이라며 "단순한 댄스 공연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공연이 성황리에 회향되길 기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전통극화로 풀어낸 부처님 일대기

印 이야기꾼 기르다니 씨, '다스탄고이' 기법 활용

인도에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여성 이야기꾼이 있어 화제다. 인도의 유력매체 '더 힌두'는 11월 2일 여성 이야기꾼 푸남 기르다니 씨가 인도 전통 스토리텔링 기법인 '다스탄고이(Dastangoi)'로 부처님의 서사를 풀어내는 작업을 소개했다.

'다스탄고이'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인도전통 극화예술 중 하나다. 중세 인도의 공용어인 우르두어나 힌디어로 진행되며, 한 사람의 이야기꾼이 일인극 형식으로 서사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1928년 마지막 전통 다스탄고이 이야기꾼 미르 바카르 알리의 사망과 함께 명맥이 끊겼다. 이에 전통예술을 부활시키려는 유지들이 생겨났으며, 푸남 기르다니 씨는 보기 드문 여성 이야기꾼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기르다니 씨가 불교를 이야기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해 부처님의 이야기를 써달라는 동료의 부탁에 회의적이었던 기르다니 씨는 우연히 아잔타 석굴을 방문, 부처님에게 유미죽을 공양 올리는 수자타 벽화를 보고 감동받았다.

불교 지식이 없던 기르다니 씨는 먼저 〈본생담〉 등의 이야기가 중심인 불교문헌을 공부했다. 그 중 초기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 스님들의 게송집인 〈테리가타(장로니게)〉를 접하면서 각본과 이야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부처님의 서사시를 이야기하는 푸남 기르다니씨. 사진출처=더 힌두

기르다니 씨는 "〈테리가타〉는 부처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보호문제를 생각하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 싱글 맘으로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그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최근 몇 년간 내가 느껴온 상실감과 그 대처법,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해줬다"며 전통적인 우르두어와 힌디어 다스탄고이 안에 불교의 고전언어인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넣은 각본을 준비하고 있다.

기르다니 씨는 "싯다르타가 떠나갔음에도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렸던 야쇼다라 공주의 이야기를 곁들여 보편적인 진리와 사랑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펴뜨리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불가촉천민 1,500명 단체수계

카스트제도 불평등에 항의… 불교신자 점차 늘어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열린 단체 수계식에서 1,500여명의 불가촉천민이 불교에 귀의했다. '글로벌 부디스트도어'는 10월 27일 인도 남서부의 아마다바드에 있는 사르달 발라브바이 파탈 파탈 국립기념관에서 열린 단체 수계식을 보도했다. 수계식은 대만 불광산사 산하의 '국제불광협회(BLIA)'가 주관했다.

이번 수계식에서 남편, 세 아이들과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만줄라 마크와나 씨는 "평등은 우리가 불교에 귀의한 유일한 이유이다. 힌두교도로서 우리는 평등하게 지낼 수 없었다. 차별과 멸시를 겪었다. 내가 사는 수렌드라나가르는 불가촉천민에게 차별과 멸시로 악명 높은 곳"이라고 수계와 개종의 이유를 밝혔다.

경영학 학위를 준비하는 엔지니어 니사르 파르말 씨는 약 25명의 대가족 구성원들과 불교로 개종했다. 파르말 씨는 "가족 모두 힌두교도였지만 차별과 카스트 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불교는 평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불교에 귀의하기로 했다. 나는 인도가 세계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카스트제도가 인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 내에서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부터 불가촉천민을 향한 폭력이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이 문제되고 있다. 2018년에는 결국 수십만 명의 불가촉천민이 계속되는 차별에 항의하며 집단 시위를 벌인바 있다.

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 바드리나라얀 교수는 "이 현상은 힌두교 종말의 시작이다. 만약 힌두교 상류층이 지속적으로 불가촉천민을 몰아낸다면 힌두교도들의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인도에는 약 840만 명의 불교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집단개종에 의해 그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행복 찾아가는 나만의 작업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㉑ 지금 이 순간, 행복하려면



여기저기 흩뿌려진 나의 행복
어느 순간 느끼는지 찾아보자
작은 결정 하나로 얻는 결과
그 속에도 좋고 나쁨이 있다

나의 행복어 사전 만들기

당신에게 행복은 소중한가? 무슨 엉뚱한 질문이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당연히 행복하고 싶다. 그것도 길을 걷거나, 말을 하거나, 일을 하는 모든 순간 행복하고 싶다. 그래? 그렇다면 '모든 순간 행복하고 싶다' 는 말을 곱씹어 보자. 뭔가 역설이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기 어렵다는 의미? 〈행복은 진지한 문제다〉의 저자 데니스 프레이저(Dennis Prager)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듯이 행복 또한 예외는 아니다 'ㄱ고 말한다.

'나의 행복어 사전 만들기' 는 그런 점에서 여기저기 흩뿌려진 행복 찾기 작업이다. 행복은 어쩌면 당신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열외돼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커피광인 당신이 길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을 손에 들었다고 하자. 당신은 커피를 받아든 순간 뛰다시피 사무실로 향한다. 엉덩이를 의자에 걸치자마자 업무를 보기 위해 모니터에 눈을 돌리고 커피를 홀짝이는 장면. 이때의 커피는 당신에게 무엇일까? 행복감? 아니면, 신경 안정수?

불교뿐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삶은 '괴로움의 바다[苦海]' 라고 한다. 삶의 바탕이 괴로움이고 인간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목선(木船) 같은 존재다. 바다라고는 하지만 풍랑만 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바다는 어머니의 망막처럼 그윽하게 투명할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 행복은 불만족의 바다에서도 주도적 노력으로 낚아올릴 수 있는 정신적 느낌이다. 커피광인 당신이 커피 한 모금을 입술 사이에 흘려 넣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씁쓸 구수한 향기와 혀를 적시는 따스한 감각 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커피로 인한 당신의 행복감은 허공 에 흩어진 참이다.

행복은 당신 스스로 알아차리고 주워 담아야 할 실체다. '행복 감수성' 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울과 불안, 두려움, 좌절 같은 '불행 감수성' 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유하는 심리적 능력이다. 당신의 유전자는 수십만 년 전 조상의 음울하고 나약했던 기억을 깔끔하게 지우지 못했다. 삶의 핍진과 불행이야말로 인간의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강하게 하고, 뇌 기능의 차원을 타 동물과 다르게 해준 일등공신이기 때문이다. '불행 감수성' 에 비하면 '행복 감수성' 은 상대적으로 허장성세다. 행복이라는 감성은 전쟁과 질병, 대량 학살의 인류사를 비집고 겨우겨우 20세기를 넘어온 감로수 같은 정서다. 그러므로 당신이 애써 채집하지 않으면 허공에 흩어지고 마는 감성이다.

인류가 수십만 년 찾아 헤매온 행복의 영토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비좁고 위태롭다. 그런 점에서 '나의 행복어 사전 만들기' 는 '행복 감수성' 의 영토 확장 공사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의미는 적지 않다. 당신의 행복밭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곡괭이로 일궈주는 일이다. 이 사업은 당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부터 시작한다. 이른바, 행복 영토 일구기 사업이다.

- 종결어미를 모두 '~하면 행복하다'로 적어보기
- 오늘 하루 경험한 일 속에서 크든 작든 행복감이 들었던 모든 순간을 적는다
- 살아온 동안 행복했던 기억,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 행복했던 시절을 적는다
- 생각만으로도 행복감이 드는 미래의 어떤 모습을 글로 그려본다
-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음식맛, 향기, 취미의 순간, 여행 등을 한 줄씩 적는다
-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들의 기억을 '들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 적어본다
- 타인이 나로 인해 행복했던 순간을 한 줄로 적어본다
-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줄 말을 지금 적는다

'작고 확실한 행복' 을 의미하는 '소확행' 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나만의 '행복' 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괴로움의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물 위로 날아오르는 돌고래나 날치 떼를 보는 순간처럼, 작은 행복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 같지 않은가. 돈과 명예가 노력의 결실이라면 행복 또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세상이 눈치 채고 있다.

대학생 집단에서 "~하면 행복하다"로 마치는 글쓰기를 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한동안 집중했고, 적고 난 후 스스로 놀라는 눈치였다. "아무렇게나 흩뿌려놓은 행복을 하나씩 주워 담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 여학생이 답했다. '나의 행복어 사전 만들기' 작업은, 앞서 소개된 어떤 주제보다도 선호도가 높다. 이유는? 그만큼 구체적 행복의 실체를 챙기고 싶어서가 아닐까.

배고파 밥 먹을 때 행복하다/ 겨울에 따뜻한 영철이 손 만질 때 행복하다/ 수업 끝나는 종소리는 늘 행복하게 해준다/ 잠자려고 이불에 누웠을 때 행복하다/ 여행가는 버스가 막 출발할 때 행복하다/ 운동장 10바퀴 뛰고 땀에 흠뻑 젖었을 때 행복하다 (이하 생략)

내가 내린 좋은 결정, 100가지

우리는 하루에 몇 차례나 결정하고 살까? 즉답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결정은 판단과 행동 사이에 놓인 정신 체계다. '결정' 앞에 놓인 다리는 항상 두 개다. '할까' 라는 다리와 '말까' 라는 다리다. 물론 다리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미루기' 혹은 '유보' 가 그것이다. 결정에 관한 또 한 가지 쟁점이 있다. 습관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결정' 을 내리는지 잘 알지 못한다. 심신에 배인 습관적 결정 탓이다.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 속에 당신의 삶이 컨베이어 벨트 위의 상품처럼 놓여있을 수도 있다.

'내가 내린 좋은 결정, 100가지' 는 '자신의 결정' 과 그에 따른 '자기 신뢰' 를 이끌어내는 공부다. 자신의 결정 시스템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기도 하다. 물론, 꼼꼼히 따지다 보면 항목이 엄청날 수도 있다. 내가 내린 결정이 100가지만 되겠는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부터 갈 것인가, 물부터 마실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차를 몰고 갈 것인가. 먼발치에 서 있는 동료에게 인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하고 행동하거나 유보한다.

당신은 이 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기억하는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결정은 유명 아이스크림 가게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누적 점수처럼 쌓인다. 누적된 결정과 유보된 결정, 의미 없는 결정들을 잘 되돌아보라. 그것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들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40해를 살아온 당신은 아마 40해 동안, 50년을 살아온 사람은 50년 동안 뭔가 결정을 해왔다. 만약 그 시간 동안 아무 결정 없이 살았더라면? 당신의 삶은 정지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결정은 생명의 본질이자 특성이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은 거의 모든 순간 당신에게 판단과 결정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최악의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결정하지 않음은 곧 생명의 위반이고 멈춤이며, 멈춤은 이윽고 죽음의 그늘에 놓이게 된다.

결정 하나가 생의 흐름을 바꿨다는 스토리텔링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내재돼 있다. 다만 그것을 돌아보려 하지 않거나, 부질없는 짓이라고 여기며 쓰레기 취급할 뿐이다. 분명한 사실은 당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한 크든 작든 계속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면의 결정 시스템을 돌아보고,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일은 물 마시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업계에서 유명한 N이라는 후배 사진작가가 있다. N은 처음부터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1997년 IMF시기에 실직했다. 17년간 다니던 선박 부품 회사가 파산하자 그는 실제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체험' 을 했다. 회사가 문 닫은 날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그는 일생을 바꾼 '결정' 을 했다. '걷기를 멈추지 않겠다' 는 결정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울 거리를 하루 종일 걸으면서 도심에 피어있는 크고 작은 꽃을 촬영했다. 며칠 전 새로 깔린 보도블럭 사이에서 솟아오른 손톱만한 풀꽃을 발견하기도 했다.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니,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예감을 받았다. 이후 사진들을 묶어서 책도 내고, 강연도 다니게 되었다.

당신이 뭔가를 결정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한 정신적 행위이거나,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함이거나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방식으로 크거나 작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알거나 알지 못한 결정이 당신의 생애를 만들어왔다. 언젠가 결행했던 결정의 순간들을 돌이켜 보라. 이왕이면 '좋은 결정' 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드러내보자.

-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린 모든 결정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 인상에 남은 본인의 사건 하나를 정해, 결정 전후의 상황을 간단히 적어본다
- 살아오면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적어본다.
- 자신이 내린 '좋은 결정 100가지'를 생각나는 대로 적기
-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을 비교해서 적어보기

결정은 호흡 같은 것이 아닐까. 인연의 고리 속에 놓여 있는 한, 우리는 숨 쉬듯 빈번히 결정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든 위험이 따른다. 아무리 건강한 근육이라도 암 유발 요인을 안고 있듯이. 그때는 좋은 결정이었는데 지금 와서 '나쁜 결정' 이 된 게 얼마나 흔한가. 그때는 체념 끝에 내린 결정이었는데 지금 와보니 하늘이 도운 결정이기도 하다. 친구들과의 식사비를 내가 다 지불하기로 한 것이 좋은 결정이거나 나쁜 결정일 수 있겠는가. 놀랍게도 당시에 내린 결정의 '좋고 나쁨' 이 굳세게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 결정의 주인공은 결정 당시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의 당신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그 먼 연애시절의 결정이 좋은 결정이었다가, 지금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그 시절의 결정은 나쁜 결정이 된다. '지금 이 순간' 은 지나간 시절, 언젠가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로서 실재한다. 에크하르트 톨레와 같은 실존 철학자는 말한다. 당신의 삶은 유일하게 '지금 이 순간' 뿐이라고.

'결정' 은 결정 자체로 완결이다. 결정은 앞의 결정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진다면, '책임지겠다' 는 새로운 결정이 발생한 결과다. 당신의 삶은 깔때기 끝에 모인 한 방울의 결정체처럼 수많은 결정들이 중첩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결정' 을 알아차리는 의무만 잘 수행하면 된다. 그런 후, 그냥 떠나보내라. 결정이여 안녕! 난 신선도 높은 '지금 이 순간' 을 만나야 하거든!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3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수선암
• 주 소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서길 332-87
• 대표자 : 송 영 애

위 사찰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생활불교협의회장 법하



대행 스님

한생각에 부처가 될 수가 있는가 하면 한생각에 중생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이런 말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일단 들어 놓으면 때에 따라서 급하면 생각납니다, 급하면.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났다가 자기한테 급한 일이 닥쳐오면 '아이구!' 하고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해 봐야지.'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내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는, 안 되고 되는 것을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카세트에서 나오는 거 자기 카세트에다 되놔라. 안 되는 거는 '아,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나를 다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건 고가 아니다. 나한테 부딪쳐 오는 이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물리를 터지게 해서 지혜를 얻게 해 주는 과정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감사할 거고, 또 '거기서 일체 만법을 다 해 나가니 감사하고, 또 잘됐으니 감사하고 이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렇게 그 감사함을 알고 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감사하더라도 이 내 마음 깊은 속에 감사함을 놓고, 바로 맡겨 놓고 사신다면 나가서 일을 해도 편안하고 또 집에 들어와도 편안하고 따뜻하고 또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뭐든지 좋죠. 몸 건강하니 좋고 내 마음 편안하니 남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말도 편안하게 나오고 또 말이 편안하게 나가니까 화목을 도모하고, 이러니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이 절간 살림이나 바깥의 살림이나 살림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스님네들은 결코 절을 운영하고 살림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바로 원심력을 얻어서 그 원의 항아리를 굴리고, 여러분의 살림살이와 자기 살림살이가 둘이 아니게끔 보고 둘이 아니게 나투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까닭에 둘이 아니게 모든 일을 해 나가고, 죽은 세상 산 세상을 같이 껴잡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손은 이 '공' 안에 꽉 찼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관세음보살의 진짜 손입니까? 또 여기 눈들이 참 많습니다, 눈! 여기 여러분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백 명이 있다면 백 명의 눈이 또 있는데 그 백 명의 눈이 수천수만 가지의 눈으로 되어 있으니 눈이 그렇게 많다면 어떤 것이 진짜 눈일까요? 또 다른 걸 얘기해 볼까요? 지금 저, (화분을 가리키시며) 이파리가 많습니다. 이게 소나무 이파리라면 어떤 것이 진짜 이파리겠습니까? 내가 여직껏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도 그 의미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뿌리와 이파리와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파리들은 말입니다, 자기 뿌리를 못 보거든요, 흙에 가려서. 인간이 무명에 가려서 자기의 참자기를, 자기 뿌리를 못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음미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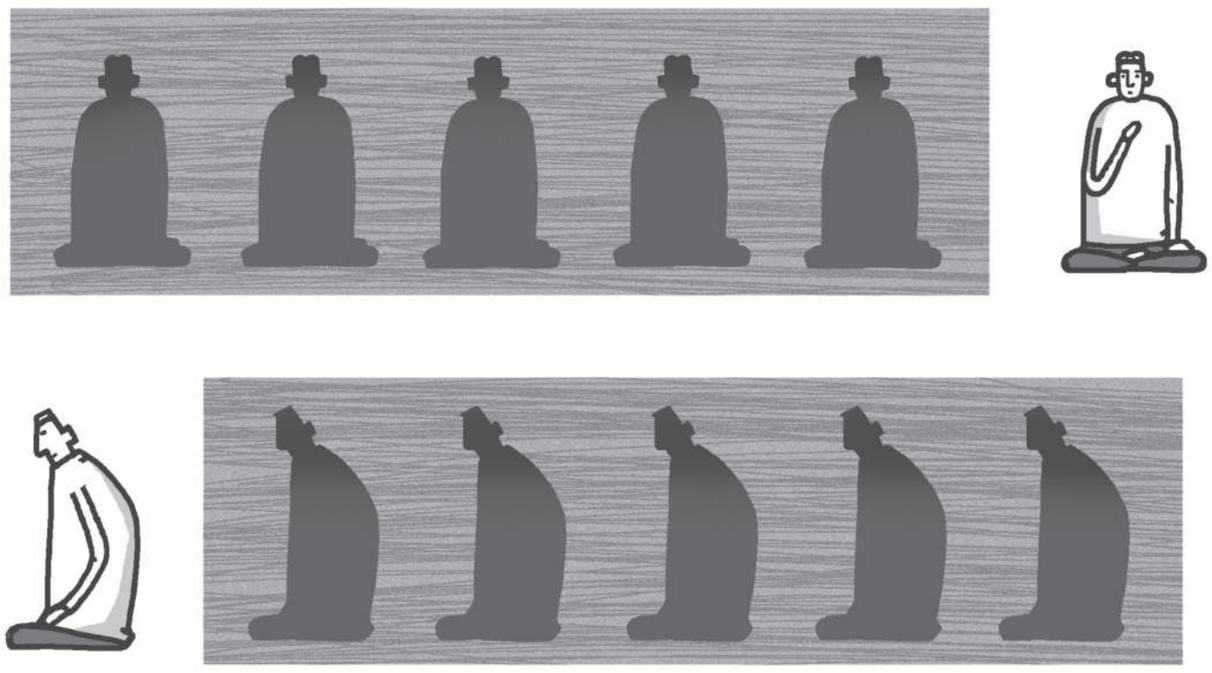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공동묘지에 가 보십시오.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모든 물질은 없어져 버렸죠. 사대(四大)로 태어났다가 사대로 흩어지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았을까요? 보니까 전부 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애가 죽었으니까 천도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천도를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도라는 거는 내 밥 먹을 때도 천도가 되니까요. 이 도리를 알면 뭐 떠놓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두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애가 죽었거나 한다면 애라고 업신여기죠. 그런데 그 애는 먼저 늙었기 때문에 애가 됐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적으로 본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자가 남자로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로 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짐승으로 될 수도 있으니, 또 어른이 애가 되고 애가 어른이 될 수 있으니 어떤 거를 세워서 어른이라고 하며 어떤 거를 세워서 애라고 할 수 있으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몸이라는 집이, 물질이 다 없어졌다면 그대로 물이자 흙이고, 흙이자 바람이고, 바람이자 바로 불입니다. 그렇다면 다 늙었죠. 백(白)이에요. 흙이에요.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았느냐구요? 우리 지금 마음을 내놓으시라면 내놓으실 수 없겠죠? 그 내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뿌리죠. 우리 마음, 내놓을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은 꿈에, 꿈이자 생시고 생시이자 꿈인데, 자기 몸을 뉘어 놓고 나가서 온통 다니다가 오거든요. 지금도 여기 앉으셔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에 지금 뭐를 내려놓지 않고 왔거나 올려놓지 않고 왔거나 뭐, 세워 놓지 않고 왔거나, 하여튼 뭐, 급한 일을 안 해 놓고 왔다면 집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벌써 집에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오고 온통 야단난 거죠, 마음이 말입니다. 체가 없으니까 마음만 갔다가 왔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체 있는 놈을 붙들어다가 그거를 치우게 하거든요. 내가 걱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벌써 딴 식구가 와서 그걸 해 놔요.

그러니 그 몸이 내 몸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에너지가 그냥 자가발전소에서 가설이 된 데로 전력이 다 나가서, 여러분이 가정마다 회사마다 모두가 용도대로 다 쓰는 그 전력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여러분도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을 충만하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배우셔서 가정에 이익 되고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고, 여러분의 우환과 가환을 다 자기 스스로 없애고 화목을 도모하면서 정답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죽 한 그릇을 놓고 숟가락을 셋이든 넷이든 같이 꽂아 놓고 먹어도 그렇게 즐겁고 좋을 수가 없는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이 손을 쫙 벌리면 우주가 다 담겨 올 수 있는 그런 심력(心力)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하실 분은 없을까요? 없다면요, 우스운 얘기 한마디 하죠. 지난번에 앵커리지에 갔거든요. 거기를 들러서 산호세로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거 같아서 우스운 얘기 하나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세미나를 한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달려들었죠. 한국 사람보다도 미국 사람이 더 살밭이 들어섰는데, 타의에서 구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자의에서 구하는 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닥터 웨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리는 기-다란 사람이 배우려고 왔는데, 30분 동안 아침에 좌선을 하라고 하니까 날더러 "그대로, 그대로 참선이라면서 어째서 이렇게 3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것 보시오. 그대로 참선이라 그랬으면 마음먹고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다 참선이지, 또 좀 틈을 내서 앉았다면 이게 참선이다 저게 참선이다 분별하지 말고 참선을 하랬지 누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느냐."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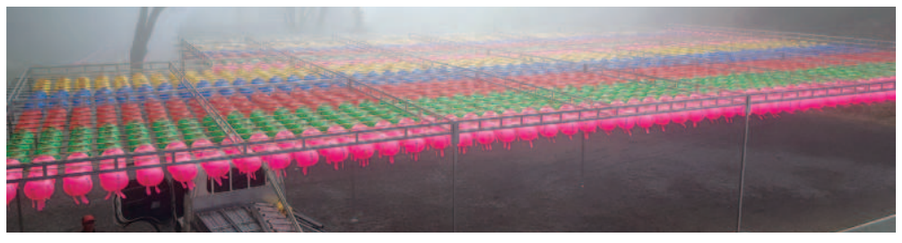
여러분도 여기서 때에 따라 좌선을 할 때 틈을 내서 앉았으면 명상도 되고 참선도 되고 좌선도 되고 그런 거죠. 그것이 마음을 좀 쉬어 볼 수도 있고 관(觀)해 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일할 때는 일하는 것도 참선이고요. 그래서 이 우주 진리가 돌아가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 좌선한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좌선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고런 생각을 하고 좌선을 했다면 그건 좌선이 아닙니다. 그냥 좌선일 뿐이지 참선이 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왜 참선이 될 수 없느냐? 내가 앉는다고 생각하고 앉고 선다고 생각하고 서니까, 그 나머지는 다 끊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누우나 모든 게 참선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관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간도 없다면 그걸 어떻게 정립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그 만 가지의 맛을 알겠습니까?

☞ A18면으로 계속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 시공·임대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행사용 장엄등



공단연등



한지팔각등



만월등



행사용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업보가 있다고 집착을 안다면 그게 정말 업보가 되는 것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내 자가발전소가 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바로 그 생산처니까, 내가 바로 그 맛을 안다면 그 생산처에서는 만 가지의 맛을 낼 수 있고 바로 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가지의 생산을 해서 남에게 만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과 원심력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엊그저께도 보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을 전부 마구니로 돌리는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각자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행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남을 아프게만 하고 전달을 해도 못쓰게만 전달을 하고,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나쁘게만 해 나간다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게 마구니죠. 사람이 마구니 짓을 안 하는데 어찌 마구니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구니 짓을 한다면 마구니가 있을 거고 사람이 마구니 짓을 안 한다면 마구니가 없겠죠. 우리가 전부, 여러분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한 생각에 부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한 생각에 중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구보리(上求菩提)' 하면 '하화중생(下化衆生)'이 거기 따라붙고 또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가 따라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 부처라면 여러분 속에는 다 중생들이 있는 거죠. 이 몸 자체로 인해서 다 중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는 다 중생들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거죽은 부처라고 보더라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중생들이 다 한마음을 깨치게 되면 이 중생들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다 깨쳐져서 인간으로 환토를 할 텐데요. 아니, 짐승들이라면 인간으로 환토를 하고 사람이라면 부처로 환토를 한다 이겁니다. 진화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도리를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들었던 거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해서 실천을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책도 반드시 백지가 있기 때문에 글씨를 쓴 것이고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 글자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백지가 아니었더라면 글씨는 쓰지도 못하고 그 글자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삼위일체로 돌아가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백지가 진짜입니까, 글이 진짜입니까, 글을 보는 게 진짜입니까? 어떤 거 하나 빼 버릴 게 없는 것이니, 바로 한데 합쳐서 부처라고 했고 그게 길이라고 했고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전처럼 그렇게 기복으로만 야단법석 할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자기가 지켜보고 익히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다지고 다지며 자꾸 걸어 나가야 하는 거죠. 놓고 놓고 걷고, 놓고 걷고…. 우리 살아나가는 게 바로 카세트와 같습니다. 거기다가 노래를 넣었다가 또 다른 노래를 넣으면 앞서 것은 없어지면서 채워지고, 또 넣으면 채워지면서 없어지고 채워지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진리요, 지금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거기 무슨 업보가 붙어 있겠습니까, 채워지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는데.

그러니 업보가 있다고 집착을 하거나 이런다면 그게 정말 업보가 되는 겁니다. 또 인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과가 되는 것이고, 전자의 조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음 하나가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 제가 꼭 개를 잡아서 약으로 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습니다. 딴 약은 먹기 싫고 개를 폭 삶아서 먹으면 자기 병이 낫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으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을까요?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잡아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잡아먹게 했을까요?

대중 가운데서 잡아먹게 했을 겁니다.

큰스님 잡아먹게 하긴요. 허허허…. 난 잡아먹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못 잡아먹게도 안 합니다. 단,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소의 그 모습이, 그 살이, 그 고기가 내 고기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 그거는 먹은 것도 없고 안 먹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먹어서 그건 약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죠? 만약에 고기 한 점을 놓고 말입니다, 고기 한 점을 놓고 이게 소 한 마리라고 그런다면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곧이 안 듣죠? 곧이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대중 가운데서 안 듣습니다.

큰스님 안 듣죠? 그런데 이 몸뚱이가 큰데…,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가 몸뚱이라면 마음이, 그 지구도 탁 내놓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니까 말입니다, 지구가 콩 알갱이만도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고기 한 점이 어째서 소 한 마리가 아니 된다는 얘깁니까?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 마음 하나가 수십 마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십 마리를 낳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통에 따뜻한 기가 도니까 생명들이 우루루 쏟아져 나오는 걸 보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 같은데 나 말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대중 웃음) 소 한 마리가 한 점도 될 수 있고 한 점이 소 한 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큰소리하고 다닐 수 있는데, 또 큰소릴 해서 큰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소리를 할 사람은 큰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자비라는 건 뭘 자비라고 하는가! 이거 들떼기로 쬐끔쬐끔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자비라는 건 악하고 선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낮고 높고, 평전하고 평전치 않고,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못나고 잘나고가 둘이 아니고, 남과 여, 동서남북이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자비입니다. 저 강물이 구정물이든 핏물이든 똥물이든 고름물이든 수많은 물이 다 들어와도 여여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흐르죠? 마음은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 쓰기에 달렸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수술하든 생선을 칼로 자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생선을 갖다가, 펄펄 뛰는 거를 한번 칼로 다가 탁 잘라 보십시오. 그 탁 자르는 순간 모든 혈맥의 피는 그곳으로 뭉칩니다. 피만 뭉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피가 뭉침으로써 이 마음, 의식이라는 자체가 딱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었다 하면 병나는 거예요. 언제나 탁 자른 그 자리는 제거해 버리고 다 씻어 버리고 피를 다 긁어 버리고 요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한 점! 한 점도 없는 게 마음인데 어찌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까? 마음이라는 이 자체가 물 한 방울도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째서 소 한 마리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한 점이! 그래도 한 점이나 되는데요.

또 건너뛰어서 알래스카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한번 웃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닥터 웨버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을 통하게 할 수가 있어야죠. (물컵을 기울여 보이시며) 이거를 이렇게 다 따라 내고서는 또 물을 붓고 또 따라 내고 또 물을 붓고 또 따라 냈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끄덕끄덕하거든요. 그렇게 고갯짓을 하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시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호-, 호오-" 하면서 "아, 그렇게 비우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랬죠. (고개를 끄덕이시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 좋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좌선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죠.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면 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 40명 오고, 한국 사람이 한 3, 40명쯤 돼서 한 7, 80명이 법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게 아주 기적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통역을 해 줄 사람이 있나요, 또?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불교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받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나요? 나는 한국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하고 또 외국 사람한테는 또 딴 사람이 영어로 쓴 것을 읽어 주고 그랬으니까 우습죠, 그게.

그랬는데 그 소릴 듣더니 말입니다, 그중에 한국말도 알아듣고 외국 말도 할 줄 아는 중국 사람이 일어서서 대충 얘기를 몇 마디 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다고 손바닥을 치면서, 내가 끝나고 나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가끔들 일어서서 뽀뽀를 하는데 글쎄, 어디다 할 것 같습니까? 하하하…. 뽀뽀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뒤쪽 머리를 짚으시며) 여기다 할 수밖에 없죠? 나는 키가 자그마하죠? 그 사람들은 키가 외이 대같이 크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글쎄. 꼼짝없이 밑에서 뽀뽀를 당하고 말았죠, 뭐. (대중 웃음)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기분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쁘다고 할 것도 없죠. 그 사람네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거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렇게 그런 일 저런 일 다 봐 가면서 다니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처지인데도 이 도리를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그건 참….

부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책을 본다면 그 뜻을 봐야 하고 그 백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백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글자를 알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아는 거죠. 마음이 있다면 마음 내는 게 있고, 육신이 있다면 보고 말하고 하는 이것이 교(敎)가 아닌가요? 불교 말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도떼기로 이렇게, 나는 무슨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만나니까 쪼끔 하고 또 넘어가고, 쪼끔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그러해요. (잔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여기에 가설을 한다면 사방팔방으로 많이 할 수 있듯이 골목이 많아요. 마음이라는 게 체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는 것이,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기웃거리고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기웃거리고 요 골목으로 가서 기웃거리고 이런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질문자1(남) 기도와 관하는 것에 대해 헛갈립니다.

큰스님 근데 지금 기도라고 그런다면 '아이고, 되게 해 주시오.' 하고 비는 거를 기도로 압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꾼 겁니다. 그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 '기도' 하면 아니 되니까 '관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 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그 말 자체가. 그게 좋긴 좋은데 지금 진짜로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비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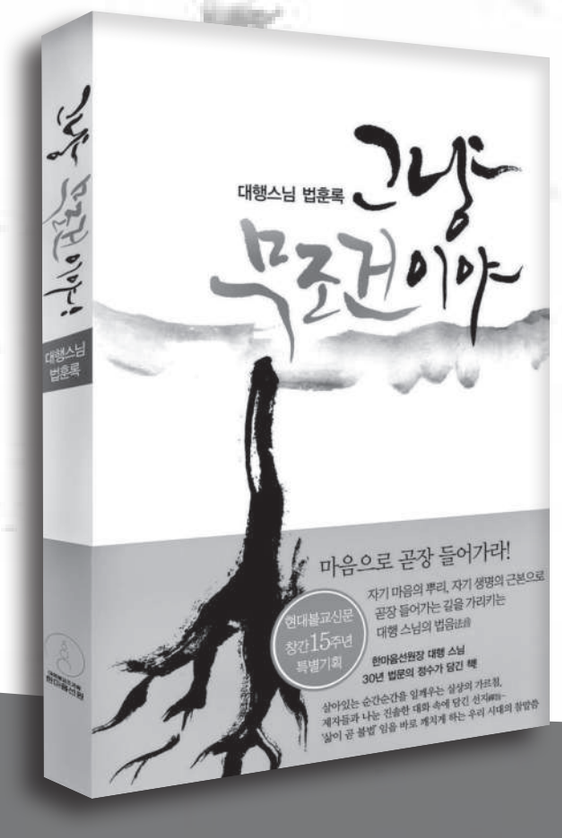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기도가 아닌 관을 하세요. 하여튼 관하는 것에는 일체 만법이 다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몸이 아프든지 뭐든지 간에요. 지금 여기 내 몸속에 공장장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선장이 회장이죠. 그 회장이 사장과 더불어 같이 그 공장장들을 죄 이끌고 나가는 선도자인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가. 그러니까 그 선도자가 한생각에 의해 다 한마음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다 놓는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생활과학인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체험해서 돌아간다면 그대로 천체물리학과 둘이 아님을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해서 듣기에 어수선했겠습니다마는 그저 거기서 한 가지만 터득해도 만 가지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위 법문은 87년 11월 19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자기가 지켜보고 익히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를 다지고 다지며
자꾸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환경저널리즘 필요하다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6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
지난해부터 등교 거부 시위 주도
기성세대에 기후 변화 대응 요구

지난 9월엔 UN 정상회의서 연설
"경제성장 신화들만 말한다" 일갈
미래 방치 어른들 향한 강력 경고

미디어, 인식 변화 · 실천에 견인차
환경 저널리즘에 기업적 투자 필요

그레타 툰베리. 16세의 스웨덴 소녀다. 세계의 주요 언론이 이 소녀의 행보를 처음 주목하기 시작한지 어느 덧 1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무명의 어린 학생에 불과했던 그는 노벨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면서 환경운동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내로라하는 기성세대의 환경운동가들을 제치고 미디어의 중심에 서있다.

그녀의 시작은 2018년 8월 20일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였다. 첫 3주간은 매일, 이후에는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한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이라고 적힌 피켓을 옆에 찬 그의 발걸음은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아닌 정치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했다. 말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기성세대를 향해서다.

이렇게 시작한 툰베리의 결석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s for Future)이라는 이름으로 10대 학생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국경과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등교를 거부한 채 금요일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기성세대에 실망한 툰베리 세대의 분노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그 동안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툰베리는 지난 9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의 연설을 위해 대서양을 건넌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거부하고 바람과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요트를 타고 14일 만에 뉴욕에 도착한 그는 세계 정상들 앞에서 이 같이 포효한다.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갔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학교다. 대멸종의 시작점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은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 신화만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아니든 변화는 오고 있다."

툰베리의 행보와 외침이 이 시기 전 세계 언론에 강한 긍정의 반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그녀가 대변하는 환경 이슈의 중요성이다. 지구촌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속가능성, 재활용성, 친환경성은 시대정신과 가치를 담은 키워드가 되었다.

둘째, 미래 세대로서의 그녀의 외침이 미래를 방치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강력한 항변이기 때문이다.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치중한 기성세대의 사고와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사고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에 환경 이슈가,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환경보존이 중요한 만큼 언론은 환경 이슈에 대한 보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 환경보도에 있어서 미디어는 민주시민이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대중에게 환경 훼손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언론이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시민의 인식 변화와 실천적 행동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인간 공동체의 안녕과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환경 저널리즘에 대한 미디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식 변화가 필요한 오늘이다.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은 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언론은 인간의 지혜를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머물 날은 얼마 안 남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은 많다' 라는 툰베리의 절규를 그냥 지나친다면 언론은 더 이상 환경운동의 새 아이콘 툰베리를 보도할 자격이 없다.

社 說

위례 '상월선원' 개원에 부쳐

위례천막결사의 수행처인 '상월선원'이 문을 열었다. 11월 4일 위례종교용지에서 선원 법당 봉불식과 현판제막식이 봉행됐으며, 11월 11일 입재식이 열렸다.

선원 대중으로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용주사) · 호산(수국사) · 무연(해인사) · 심우(고불암) · 진각(봉은사) · 도림(정수사) · 인산(송광사) 스님이 참여한다. 눈과 비, 최소한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선원에서 스님들은 치열한 수행 정진을 이어간다.

결사 동참 스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체 제정한 청규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옷 한 벌만 허용 △삭발 · 목욕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각서와 제적원도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청규는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는 결사 동참 대중의 고불문이 말의 성찬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상월선원은 막혀있는 수행처가 아닌 열린 도량이다. 옆에는 스님들을 외호하며 자신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됐으며, 유튜브 채널도 개설돼 선원 소식들을 전할 예정이다. 변화된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속(俗)이 성(聖)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걱정한다. 이럴수록 불교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황량한 벌판에 세워진 천막 법당 '상월선원' 은 그 본령을 찾아가기 위한 베이스캠프이자 전진기지이다. 이곳에서 이뤄질 수행이 한국불교를 변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

조계종 거시지표 조사 절실

조계종의 다양한 연구조사를 진행 하는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동안거 결계 포살 법회서 2040조계종 비전 연구설계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탈종교화에 따른 위기 의식이 있었다.

'불교는 가장 평화적이고 미래가 밝으며, 고령화 시대에 긍정적 종교다.' 2011년 전국 16세부터 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외부의뢰 조사 결과다. 단편적인 조사 결과를 추린 것이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조계종은 종단의 인식과 불교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 3년에 한 차례씩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고령화와 탈종교화의 가속으로 조계종의 세부 지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했지만 조계종 안팎의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 그동안 이런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불교사회연구소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최대 100여개 문항으로 결계포살법회를 기해 진행된다. 그동안 외부 업체에 민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승랍 10년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특징이다. 스님들의 여론을 통해 불교계가 종책적으로 결정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스님들이 생각하는 조계종의 방향과 일반 대중들이 함께 호흡하는 조계종의 방향은 같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교사회연구소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던 여론조사 또한 실시 되어야 한다.

불교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는 그동안 멈춰왔던 불교계의 세부지표를 다시 한 번 진단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유기고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수미산 순례 단상

거리마다 코스모스 꽃이 만발하고 산에는 온통 만산홍엽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이다. 지난 여름의 폭염과 태풍을 뚫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 가을의 문턱에 서 있다. 나는 이 가을에 무엇으로 결실을 이룰지 생각해 본다.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채 허송세월이나 하지 않았는지, 공밥 신세는 아닐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영진 스님과 함께하는 티베트 수미산 순례' 를 80여명의 스님들과 다녀왔다. 평생의 꿈이자 소원이었던 카일라스 수미산 코라 순례길을 2박 3일간 함께하며 참으로 행복했다. 어쩌면 그 기간만이 아니라 내 전 생애가 그날을 위한 기나 긴 여정이자 순례가 아니었나 싶었다. 이 모든 자연과 사람들의 인연과 덕화에 고맙고 감사하며 행복했노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해발 5,640m 돌마라 고개를 오를 적에 한 비구니 스님의 거룩한 발자국에 크나 큰 감동과 환희를 느꼈다. 화두를 든채 천천히 걷는 그 발자국따라 그동안 미동조차 않던 수미산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로 부처님을 다시 만나는 듯, 수미산의 진면목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스님의 발로 온 수미산을 들어 올리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일종의 경외이자 찬탄이며 또한 충격과 전율이 아닐 수 없었다.

아주 작은 웅덩이에도 수미산이 깃들어 있고, 한 송이 꽃 속에도 온 세상이 함께 한다. 보잘 것 없는 돌맹이를 조각한 마니석 하나와 바람에 휘날리는 오색의 타르초마다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신심과 원력이 있다. 그것들이 하나 둘 하늘로 올라가 전해지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저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빛나기를 기원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다 보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아무리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과 보석들일지라도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수미산 가는 길에 건라산 고갯마루(4,980m)에서 나는 우리 스님들을 보며 그걸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스님들의 맑고 향기로운 그 마음과, 꽃보다 아름다운 그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티베트의 영혼인 신산 카일라스와 성호 마나사로바 호수를 순례하고 돌아오니 전혀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난 듯한 마음이다. 그래서 졸시 하나 지어본다.

"수천 수만의 히말라야 연봉마다/ 수천 수만의 연꽃이 피어나고/ 수천 수만의 연꽃마다/ 수천 수만의 부처일레라// 수미산정(須彌山頂)에서/ 천수천안(千手千眼)을 베풀고/ 아뇩달지(阿耨達池)에서/ 천강천월(千江千月)을 나툼이라// 수천 수만의 그 모든게/ 바로 나 하나 일레라!"

이 가을의 문턱에서 나는 어떤 무엇으로 함께할는지 생각해 본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처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이었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 그럼 나는 대체 무어라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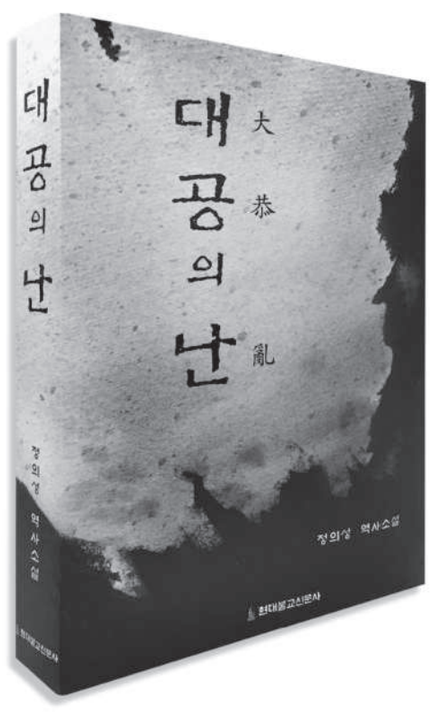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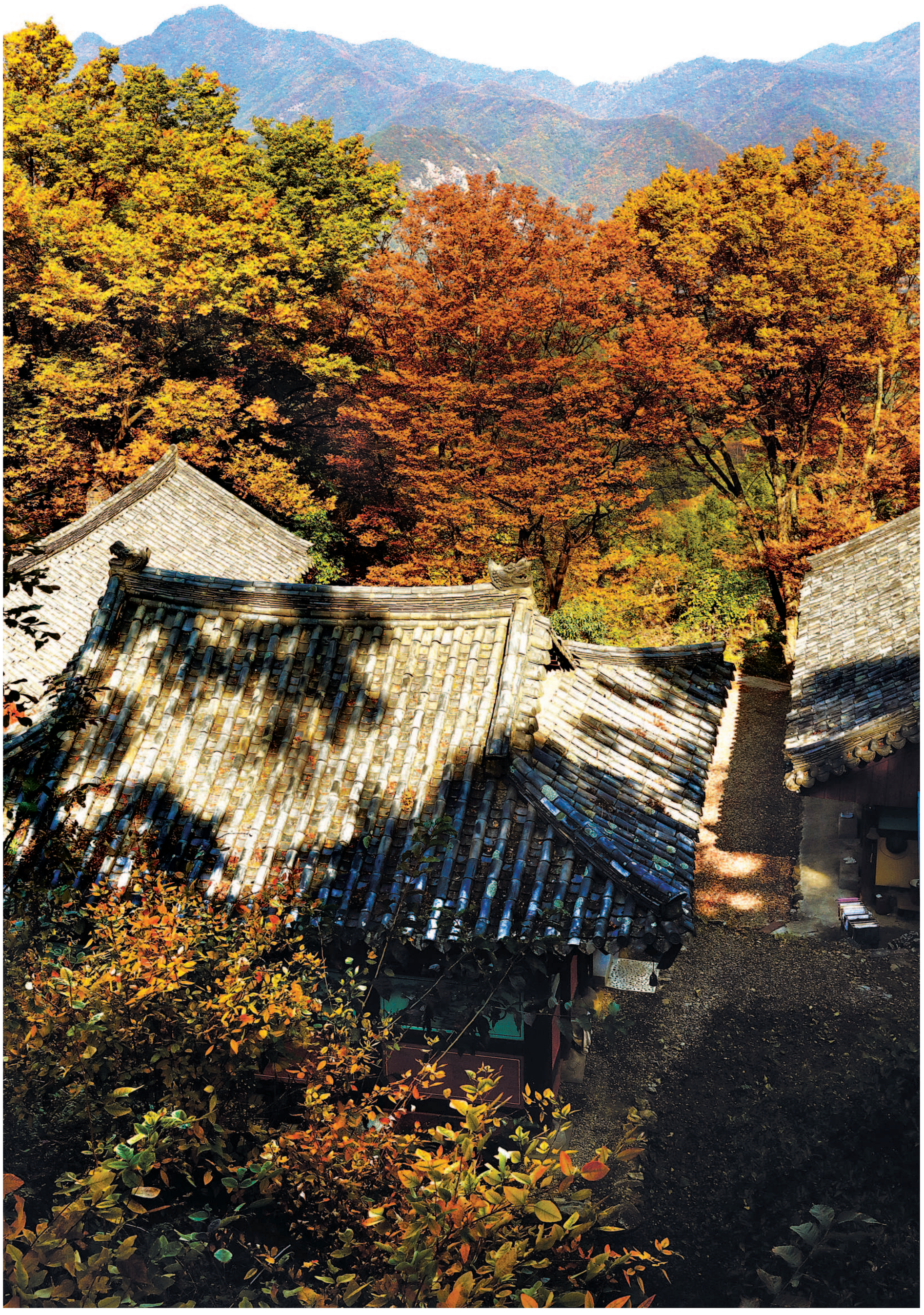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깊어가는 것들과 마주하는 곳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⑧ 충북 제천시 보덕암(寶德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수미산에도 가을이 있을까. 단풍과 낙엽, 높아진 하늘, 깊어진 바람이 있을까. 있다고 해도 이 사바의 가을만 할까. 이 고단하고 지난한 삶에서 한 번 쯤 하늘을 보게 되는 시간, 번개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계절만 할까. 수미산 끄트머리, 사바는 지금 가을이라는 시절에 물들어간다. 문 밖의 모든 것들이 깊어간다. 하늘이 깊어가고 숲이 깊어가고 바람도 깊어간다. 이제 우리가 깊어가야 할 시간이다. 이 짧은 시절에 우리는 하늘보다, 숲보다, 바람보다 깊어져야 한다. 말마다 글마다 걸음마다, 무엇을 바라보든 무엇보다 우리의 두 눈이 더 깊어야 한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이 더 무거워야 한다. 이 가벼운 삶에서 이 짧은 시절은 얼마나 무거운 시간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한 시절만이라도 우리가 단풍보다는 붉어야 하지 않을까. 저 푸른 하늘보다는 깊어야 하지 않을까. 저 헐거움을 누리고 있는 숲보다는 더 많이 뒤돌아봐야하지 않을까. 나누는 말마다, 적고 싶은 글마다, 걷고 있는 걸음마다 '나' 있는 곳에 한 번 쯤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저 깊어가는 것들과 함께 더욱 깊어가야 하지 않을까. 깊어가는 것들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는 곳, 보덕암으로 간다. 수미산에도 없는 가을과 마주하기 위해 월악산으로 간다.

산은 산, 물은 물

울긋불긋한 산봉우리들이 여름내 지었던 숲을 허물고,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충주호가 가을 햇살에 빛나고 있다. 물은 늘 빈 곳을 채우고, 산은 늘 계절을 품고 있다.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선사의 안목을 떠올리며 월악산(해발 1,095m)을 오른다.

보덕암은 월악산의 주봉인 영봉으로 가는 길목(해발 500m)에 있다. 영봉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처럼 서있다. 영봉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덕암을 볼 수밖에 없지만 들르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정표에 불과하다. 스쳐간다면 영봉으로 가는 이정표일 뿐이지만 잠깐이라도 발길을 멈춘다면 깊은 가을로 가는 이정표다.

한국의 5대 악산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월악산은 달이 뜨면 달이 영봉에 걸린다고 해서 '월악'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삼국시대에는 월형산이라 불렀다. 후백제의 견훤이 이곳에 궁을 지으려다 무산되어 와락산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봄에는 다양한 봄꽃과 함께하는 산행이 좋고, 여름에는 울창한 수림을 즐기는 계곡산행이 좋다. 가을에는 충주호와 연계한 단풍 및 호반산행이 좋고, 겨울에는 설경산행이 매력이다. 동서로 이어진 8km의 송계계곡의 월광폭포와 자연대 등의 송계팔경과 16km에 달하는 용하구곡의 폭포 · 천연수림 등이 명소로 꼽힌다. 그 밖에 덕주사, 신륵사, 중원 미륵사지(사적 제317호) 등의 도량과 사자빈신사지석탑(보물 제94호), 중원 미륵리 삼층석탑(충북유형문화재 제33호), 중원 미륵리 석등(충북유형문화재 제19호),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보물 제129호) 등의 문화재를 지니고 있다.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노소도게로 가는 길 〈下〉

B4 책세상
석지현 스님의 〈임제록〉

B5 문화
박찬경 개인전 '모임'

B6 학술
혜유 스님, 서강대 종교연구소서 대행선사 주제발표

잊힌 선지식의 공부 궁금해…



보덕암은 신라시대 왕리 스님이 수행한 곳이다. 왕리 스님이 수행했던 자리에 1918년 보덕암을 축조했다고 전한다.



작은 전망대에 서면 지나온 월악산 봉우리들과 충주호가 한 눈에 들어온다.

‘충북 제천시 보덕암’ B1면에서 계속

보덕암으로 가는 길

본격적인 등반이 아니라면 보덕암으로 가는 길은 힘들지 않다. 해발 500m에 위치한 보덕암이지만 도량 100m 전까지 차량으로 갈 수 있다. 길은 다소 급하고 외길이지만 차량으로 갈 수 있다. 십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작은 주차장이 있다.

차 문을 열면 완전히 다른 호흡이 시작된다. ‘산’이라는 공간적 이동과 ‘가을’이라는 시간적 이동이 호흡에 빛깔을 불어넣는다. 울긋불긋한 호흡 속으로 산새들이 드문드문 운다. 시간은 그렇게 가끔씩 흘러간다.

다소 경사가 급한 계단길 100m 정도를 오르면 이내 보덕암의 지붕이 눈에 들어온다.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나뭇가지 사이로 보덕암이 다가온다. 경내로 오르기 전 작은 전망대에 서면 지나온 월악산 봉우리들과 충주호가 한 눈에 들어온다. 절경이다. 길은 걷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멈춰서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잠시 절경 속에 머물면 길이 보인다. 지나온 길이 보인다. 봉우리들 사이의 길과 길을 거슬러 가슴 속에 봉인되었던 깊은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살아온 날들의 무게와 살아갈 날들의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그렇게 가끔 절경 속에 서는 것도 공부인 듯하다.

경내엔 아무도 없다. 주지 스님이 출타 중인 듯하다. 낯선 발자국 소리에 후원 쪽에서 검은 개가 짖는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반가운 것인지. 알 수 없다. 논란의 공안은 해결이 되었는지. 논란의 공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견공뿐일 텐데. 우리는 여전히 견공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보덕암에서 마주한 가을

도량은 단출하다. 한 눈에 들어온다. 대웅전, 요사채, 보덕선원, 마당 한 칸 그리고 가을나무들. 밖에서 보는 도량과 안에서 보는 도량은 달랐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작은 모전탑이 도량의 중심을 잡고 있다.

보덕암은 신라시대 왕리 스님이 수행한 곳이다. 왕리 스님이 수행했던 자리에 1918년 보덕암을 축조했다고 전한다. 누구의 불사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의 도량은 1979년에 불사를 시작해 1984년, 주지인 적인 스님이 입산한 후 천일기도 정진 속에서 이룬 도량이다. 관음도량인 보덕암은 왕리 스님의 법명을 따라 왕리사고도 했다. 전하는 바에는 기암 위에 탑 3기가 있었는데, 모두 멸실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대웅전을 다시 지을 때 절터에 흩어져 있던 150여 장의 전탑 부재를 모아 전탑을 쌓았다. 전탑 정면에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마당 왼쪽으로 보덕선원과 맞은편으로 보덕암 당우가 있다. 선원 위쪽 산자락에는 약사여래불입상을 모셨다. 경내에는 단엽 복판의 연화좌대 2기와 두 동강으로 갈라진 화염문을 새긴 광배 조각편, 단엽 복판을 조각한 방아확 등의 석조 유물들이 있다.

신라시대 왕리조사 수행처
왕리조사 사료 거의 없어
1918년 ‘보덕암’으로 불사
1979년 중건 불사 시작
1986년 적인 스님 불사 회향

해발 500m 영봉 가는 길목
대웅전 · 요사 · 선원 단출한 도량
전탑 부재 모아 전탑 재 조성
석조연화대 · 광배 조각편 잔해
월악산 · 충주호 등 절경 조망

왕리 스님의 기록은 전하는 바가 거의 없다. 이름뿐이다. 선지식의 전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사라진 도량의 흔적만큼이나 아쉬운 일이다. 폐사지처럼 흔적으로 남아 있는 스님의 법명이 아쉽기만 하다. 그 법명 위에 이루었던 많은 공부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 어딘가에 있을 조사의 공부가 궁금해진다.

선원 뒤쪽의 작은 언덕으로 오르면 도량이 또 한 번 한 눈에 들어온다. 도량은 또 한 번 달라진다. 붉은 숲 속에 보덕암이 깃들어 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물섬 지도 위에 와 있는 듯하다. 잠시 비경 속에 머문다. 논란의 공안이 해결됐는지 개 짖는 소리가 언제부턴가 들려오지 않는다. 모든 것의 논란들이 우스워진다.

전망대에서 보았던 먼 풍경과는 또 다른 모습의 작은 풍경이다. 지붕 세 개와 나무 예닐곱 그루,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늘이 전부인 작은 풍경이다. 그 풍경 속에서 뜻이 있는 것이 있다면 객과 검은 개뿐이다. 계절을 만나러 온 객과 뜻을 알 수 없는 검은 개는 작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같은 가을을 보고 있다.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 볼 때, 푸른 하늘 아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볼 때, 산다는 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중얼거릴 때, 나는 새삼스레 착해지려 한다. 〈중략〉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태어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생자필멸, 회자정리, 그런 것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노상 서운하게 들리는 말이다. 〈중략〉 이 가을에 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 법정 스님이 가을에 쓴 글(가을 이야기)이다. 그렇다. 고해 속에 던져진 우리가 한 번쯤은 하늘을 보게 되는 시절, 이 가을은 특별한 계절이다. 한 사람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계절이다.

언덕을 내려와 다시 도량에 선다. 개가 다시 짖기 시작한다. 그랬다. 견공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 가을이 가면 나와 개는 어디에 있을까.

보덕암 가는 길

길은 쉽다. 보덕암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충주호를 끼고 달리다보면 월악산을 마주한다. 길은 외길이고 경사가 급하다. 주차장은 넓지 않다. 주차장에 차를 두고 보덕암에서부터 산행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량을 이용한다면 시간대를 살펴서 결정할 일이다. 주차장에서 100m 정도 계단길을 오르면 보덕암이다.





일희일비 교차한 하루에도 깨달음이…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㉜ 노소도게로 가는 길〈下〉

노소도게길을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거친 자갈 시멘트로 포장한 길이 끊기고, 거친 자갈길들이 이어진다. 그래도 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정비하기 위해서인지 차가 다닌 바퀴자국이 길 여기저기 나 있었고, 계곡 옆으로도 축대를 쌓아 낙석 등에 대비한 모습도 보인다. 고갯길이라고 하지만, 시코쿠에서는 나름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서 해발 3~400m 가량의 야산을 넘는 길인데도 험하지 않아 마음 편히 길을 나아간다.

자갈길을 나아가진 얼마 안 되어 갈림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지금껏 걸어온 것과 같은 길이 이어지고, 하나는 얼핏 봐도 가팔라 보이는 산등성이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나는 잠깐의 고민도 없이 곧바로 산등성이를 향해 오르는 길로 올라갔다. 아마 당시의 나는 '노소도게길은 산 고개를 넘는 길'이라는 생각이 가득했기에 자연스럽게 산을 오르는 길을 택한 것 같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을 꾸역꾸역 오르기를 근 한 시간. 갈수록 험해져가는 길에 의심을 품으면서도 앞서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기에 순례길의 한 갈래겠거니 하며 계속해서 나아갔다.

결국 숲이 아닌 나무가 드문드문한 산중턱에 이르러서야 잠시 짐을 내려놓고 지도를 펼쳤다. 손가락 마디를 자 삼아 지도의 구불구불한 길들을 재어보고, 지도에 보이는 산등성이들과 지형들을 비교해보니, 그제야 내가 걸어온 길이 전혀 다른 엉뚱한 길이란 걸 깨달았다.

"야! 나쁜 사람들아!"

멀리 산을 향해 왜 갈림길에 이정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애먼 순례자를 고생시키느냐며 이 길을 걸었을 선배 순례자들을 향해 한바탕 욕을 한다.

"아니, 길이 갈림길인데 왜 이정표를 안 세워둬! 또 지도는 왜 이렇게 대충 그려져 있는거야!"

불과 몇 시간 전 오셋타이와 함께 출발했던 감사한 아침이 비지땀과 분통으로 날아가 버렸다. 화가 나니 어젯밤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구시렁댄다.

"아니 명색이 관리를 하는 대사당이라는데 마당은 꺼져있고, 부처님 시봉은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렇게 배낭을 둘러매고 염불하듯 구시렁 구시렁 한참을 올라온 산길을 도로 내려오다 보니 마음속에 맺힌 불만을 다 내 뱉었는지 어느 순간 입이 딱 멈춘다. 잠시간의 정적 속에 산길을 걷노라니 저 산등성이에서 온갖 불만과 욕을 내뱉은 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생긴 일을 누구에게 돌린단 말인가.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연이 없는 대상이란 이유로 온갖 구업과 의업을 지어댔다. 순례길 위의 여러 고난이야말로 오히려 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겨낼 수 있는 가피인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럭 화부터 낸 것을 보면 '아직은 중생심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해 본다.

산을 다 내려와 처음의 갈림길까지 돌아오니 이미 몸은 기진맥진이다. 배낭을 길 한가운데에 풀어 놓고선 어깨를 크게 돌리면서 길을 이리저리 둘러본다. 아까 그 갈림길에서 대여섯 걸음정도 바른 길로 들어서자 수풀 사이로 노소도게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떡하니 서있다. 다시금 마음이 허탈해지면서도, 스스로의 부주의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설마하니 나처럼 또 길을 헤맬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내친김에 돌을 모아 길에 화살표를 하나 만들기로 마음먹는다. 잠시 배낭을 길옆으로 치워두고 적당히 무거우면서 좀 밝은 색깔의 돌을 모아 화살표를 만든다.

옛날 오대산의 구정 선사라는 선지식은 인욕을 시험받으며 가마솥을 아홉 번을 고쳐 걸었고, 티베트의 대스승 밀라레빠는 살인죄라는 악업을 참회하기 위해 9층탑을 짓고 허물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한다.

내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거기에 대해 다른 엉뚱한 대상에 대해 욕을 퍼부은 악업이 얼마나 정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순례자들이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성들여 돌 화살표를 만들어 길 안내를 보탠다.

붉은 유성펜 같은 게 있다면 더 확실하게 길 안내가 되겠으나 필기구라곤 볼펜 하나, 붓펜 하나뿐인지라 붓펜으로 굵게 순례길이라고 써둔다.

다시 배낭을 짊어 메고 순례길로 나아간다. 아까의 고생이 무색하게 편안한 자갈길을 걸은 지 얼마 안 되어 노소도게 고개의 정상을 알리는 안내판이 나타난다. 생각했던 고갯마루와는 달리 그냥 폭이 넓은 산길이 정상이라니 순간 황당했지만 그 곳을 기점으로 내리막일 시작되는 것을 보니 어느새 고개를 다 오른 게 한편으로는 신기하다.

시멘트로 거칠게 포장된 길을 3km가량 내려가니 산길 너머로 큰 차도가 보인다. 44번 다이호지가 있는 쿠마고원을 가로질러 에히메현의 중심지인 마츠야마(松山)으로 이어지는 33호 국도다. 국도 건너편의 산등성이를 바라보니 어느새 곧 44번 다이호지(大寶寺)가 나타날 것 같아 몸과 마음이 절로 가벼워진다. 마치 뛰는 듯이 산길을 내려가 국도를 따라 40분가량 걸으니 곧 44번 다이호지 산문에 이르렀다. 비록 내가 예상한 시간에 비하면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문제 될 것은 없다.

44번 다이호지는 순례자들에겐 아마 특별한 감정이 드는 사찰일 것이다. 며칠을 걸어 깊은 산골을 빠져나와 만나는 44번. 88곳의 순례지의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44번 사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감회가 남다르다.

사찰의 연기 설화에는 백제에서 온 스님이 11면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수행하는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세월이 흘러 암자는 스러지고 보살상만이 남아 있던 것을 사냥꾼 형제가 발견하여 초당을 세워 다시 중창한 것이 다이호지의 시작이라고 전한다. 본존인 11면 관세음보살상은 비불(祕佛)로 공개되지 않지만 백제에서 모셔온 불상이라고 하니 또 괜히 친근감이 간다.

조금 좁은 산길을 따라 산문을 오르고,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본당과 대사당이 나란히 서 있다. 차례로 참배를 마치고 납경을 받으러 내려가려는데 본당 앞에서 할아버지 한분이 큰소리로 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린다. 목에는 유이가사(結袈裟)라고 부르는 법의, 손에 든 염주와 석장은 분명 평범한 순례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석장을 흔들면서 본당과 본당 건너편의 작은 불당을 오가며 외우는 경전은 〈관음경〉이었다. 흥미로운 모습에 잠시 지켜보다 할아버지가 쉬는 틈을 타 이야기를 걸어 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외우시는 건 〈관음경〉이신가요?"

"아,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매년 이날이면 다이호지에 와서 〈관음경〉을 외웁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11면 관세음보살 재일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저기 모셔진 '호리다세 관음(掘り出せ観音)' 님이 세상에 나온 날이랍니다."

"특이한 이름이네요? '파내줘(호리다세) 관음'이라니?"

"대사님 몰라요? 꽤 유명한 이야긴데?"

할아버지를 따라 본당 좌측, 나무사이에 숨듯이 서있는 작은 불당을 향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불당 안에는 작은 금동불 몇 구가 모셔져 있었다. 가장 큰 불상은 보관에 정병을 든 영락없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이었다. 고요한 모습에 가만히 합장하고 있으려니 할아버지가 설명을 한다.

"80년도 전에 일이에요. 마을에 살던 어느 신심 깊은 할머니가 다이호지를 참배하고 내려가는 길에 이곳의 가람신인 우두천왕이 몸이 들려서 '나는 스고산(菅生山)에 있다! 파내어다오! 파내어다오' 하고 계속 말하게 됐어요. 스고산은 바로 이곳의 산호(山號)랍니다. 할머니는 경내의 가람신 사당 옆을 파게 해달라고 계속 주지 스님에게 부탁했지요. 스님도 괴이하게 생각해서 할머니가 말한 곳을 인부들을 시켜 파내었더니 저렇게 7분의 부처님과 백 수십 장의 돌 경판이 나왔답니다."

후에 납경소에 물어보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화재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금동불은 모두 12세기 때 조성된 것으로, 이전 대화재로 사찰이 소실될 때 스님들이 화재를 피해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참 재미있는 날이다. 힘든 밤을 보내고 났더니 아침 먹을거리를 오셋타이 받고, 길을 헤매고 구시렁대다가 다시 참회하고, 또 그 덕에 예상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니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다.

일비일희가 교차하는 하루. 그럼에도 마음속엔 기쁨이 더 생각나는 것은 분명 이 길 위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모두 내 마음에 작은 깨달음으로, 새로운 가르침으로 와 닿기 때문이리라. 마음 한 쪽이 따듯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음 사찰을 향해 발을 옮겼다.

〈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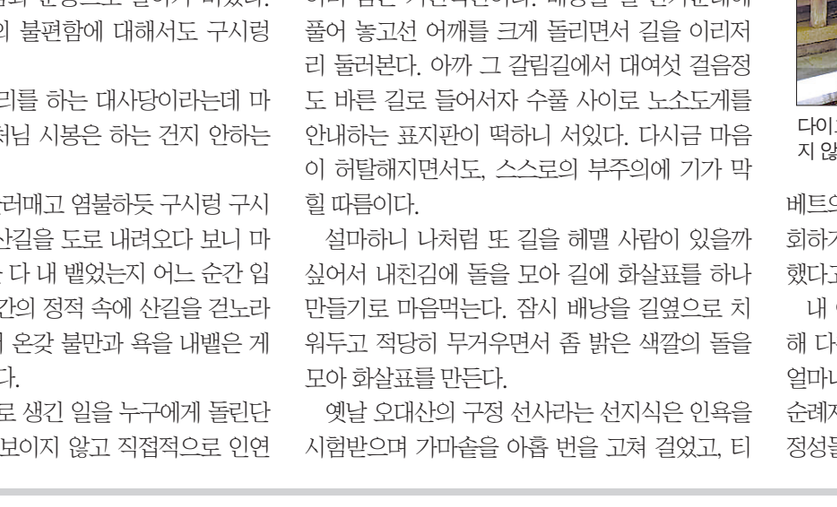
44번 사찰 다이호지 본당 전경. 이곳에는 백제 전래 11면 관음상이 주불로 있다.

순간의 잘못으로 산길 헤메
엉뚱한 대상에 화풀이 '참회'
44번엔 백제 전래 관음상이
길 위엔 항상 깨달음이 있다



다이호지 주불 관음상의 모조. 진본은 비불로 공개되지 않는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6~11/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6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법어집)	대행스님	한마음선원
2	천태소지관	천태지자/윤현로	운주사	7	원빈스님의 천수경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생long는)	원빈스님	이층버스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8	천강에서 달을 보다 (25인의 선지식 이야기)	채문기	모과나무
4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노승대	불광출판사	9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간화심결)	수불스님	김영사
5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10	임제록	석지현	민족사

문학적 감수성으로 쉽게 읽는 '임제록'



임제록
석지현 역주 해설
민족사 펴냄
2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임제록〉이란 어떤 책인가?

〈임제록〉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첫째, 개념과 언어로부터의 해방(不立文字)이라고 파악했다. 〈임제록〉에서는 이 모든 개념과 언어는 '옷(衣)'에 불과하다고 했다. 옷은 계절이 바뀌면 수시로 갈아입는다. 둘째는, 주체적인 삶이라고 파악했다. 이와 같이 〈임제록〉은 진정 견해(眞正 見解)와 수처작주(隨處作主), 즉 정안과 주체적인 삶, 이 두 가지를 갖출 것을 강조한 선어록이다. 임제 선사는 매우 준엄한 선풍(禪風)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친 공안(公案)도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디를 가든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면 현재 서 있는 그곳이 곧 모두 진실한 곳이 된다는 뜻이다. 또 '무위진인(無位眞人, 아무런 속박 없는 참사람)'도 임제 선사 법문을 대표하는 명구이고, '살불살조(殺佛殺祖,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도 유명한 명구이다.

〈임제록〉의 특징과 장점은?

〈임제록〉은 문어체(文語體, 문장체)가 아닌 구어체(口語體, 대화체)로 쓰였다. 구어체는 대화가 주류를 이루는 살아 있는 인간의 언어이고, 개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어록은 모두 구어체로 기술됐다. 구어체에는 특히 옛 시대의 속어(俗語)가 많이 나온다. 속어란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말(대화체)이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 시대에 사용하던 속어는 그대로 사장(死藏)되어 후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아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사전에조차 없는 말들이 대부분이다. 〈임제록〉에 유독 옛 시대의 난해한 속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임제록〉이 구어체로 쓰였기 때문이다.

석지현 역주 · 해설본 〈임제록〉의 장점은 본문을 '11'서 '592'까지 단락으로 나누어 번역, 해설, 원문, 주(註) 순으로 〈임제록〉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한문으로 쓰인 원문이 부담스런 사람은 번역과 해설만으로도 〈임제록〉 요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의 백미는 저자의 혜안이 돋보이는 해설이고, 구어체 스타일의 명쾌한 번역도 여느 번역본과 다른 이 책만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임제 의현 선사는 누구인가?

임제선사의 법명(法名, 僧名)은 의현(義玄), 속성(俗姓)은 형(邢) 씨, 조주(曹州) 남화(南華)에서 태어났다. 젊은 날 출가해서 폭넓게 전통적인 불교경전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의 출가 당시의 나이와 스승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임제의 고향인 조주 남화는 지금의 산동성 연주부로서 황하 하류의 남쪽 지방이다. 이곳은 임제와 동시대에 활약한 선승 조주종심의 고향과도 가까웠다.

그는 특히 법화, 화엄, 유마, 능가, 능엄 등의 경전과 유가, 유식, 화엄합론, 대승성업론, 법원의림장 등 불교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의 출가와 득도(得度: 具足戒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됨)를 통례에 따라 20세 무렵으로 친다면 827년서 835년(원화 연간)에 해당하는데, 이때 청량징관(淸凉澄觀: 738~838)과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의 화엄학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학문이 단지 약 처방전이며 일종의 선전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후 책을 덮어버리고 구도행각을 시작해 황벽(黃檗: ?~850)을 찾아갔다. 하남서 태어난 임제가 무슨 이유로 머나먼 강남으로 황벽을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당시 황벽은 홍주자사인 배휴(裵休: 797~870)의 후원으로 홍주 고안현에 황벽선원을 열고 많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때가 회창년(841~846)에서 대중연초(847)에 해당하는데, 당시 임제는 황벽 밑에서 오로지 수행정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주도명(당시 황벽선원의 수좌)의 권유에 따라 황벽의 방장실 문을 두드렸다. "불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를 세 번 묻고 세 번 얻어맞은 다음 대우에게 가서 크게 깨달았다. 이때의 극적 순간의 기록은 수행록에 자세히 실려 있다.

임제가 깨달은 시기는 회창의 법난이 한창 단행되고 있을 때였다. 임제는 당의 중앙정부와 대치상태에 있던 하북 진주지방으로 올라가 교화를 펴기 시작했다. 당시 이 지역의 실권자인 부주(府主) 왕상시(王常侍)의 적극적 후원이 있었는데, 이 왕상시는 〈임제록〉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하북의 진주 임제원서 교화를 펼치는 장면은 모두 수행록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때 임제의 교화를 도운 인물 가운데 중요한 사람은 반산서 온 광승 보화였다. 반산은 진주 북부지방으로서 도교 영장이었는데, 보화의 자유분방한 역할서 우리는 무위자연적인 삶을 추구하던 신선도자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보화의 이러한 초인적인 행동은 기성불교의 권위에 맞서는 자유로운 인간상으로서, 임제가 제창한 신불교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임제록〉이 후세에 끼친 영향은?

격동의 한 가운데서 그것도 혁명가들의 집결지인 하북 지방서 임제가 부르짖던 '반역의 외침'은 후대 선승들에게 실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임제가 입적하자 임제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의 가르침은 임제종이라는 선풍으로 정비되었다. 이보다 조금 앞서는 위산영우(771~853)와 앙산혜적(807~883)에 의해서 위앙종이 확립됐다. 또한 임제의 선풍이 정비되던 것과 거의 동시대에는 동산양개(807~869)와 조산본적(840~901)에 의해서 조동종이 확립되었다.

당이 멸망하고 오대(五代)가 되자 운문문언(846~949)에 의해서 운문종이, 그리고 잇달아 법안문익(885~958)에 의해서 법안종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다섯 개의 선풍은 송대(宋代)로 들어서면서 난숙기를 맞았고 중국문화 전반에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 다섯 개의 선풍은 임제종과 조동종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맨 처음 위앙종이 소멸했고, 두 번째로 법안종이 없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문종이 임제종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다. 남송(南宋) 말(末)에는 남은 두 개 종파서 각각 한 사람씩 거장이 나왔다. 조동종에서는 천동정각(1091~1157)이 출현해 묵조선(좌선 수행을 강조하는 선 수행방식)을 대성시켰고, 임제종 양기파(楊岐派)에서는 대혜종고(1089~1163)가 나와서 간화선(깨달음을 강조하는 선 수행방식) 운동을 전개했다. 남송 이후에는 임제종과 조동종, 이 두 개의 흐름만이 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진다.

의도적 숨참기… 건강 체력 회복 지름길



숨만 잘 쉬어도 병원에 안 간다
패트릭 맥커운 지음/조윤경 옮김
불광 펴냄/1만 9천원

이 책에서는 건강을 회복하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호흡 능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하면서 섭취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 잘못된 상식 때문에 본래의 호흡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호흡 패턴을 파악해 바로잡고,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호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각각의 기능과 관계 같은 이론적 배경서 시작해 적은 양의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 몸을 적응시키는 훈련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리고 세세히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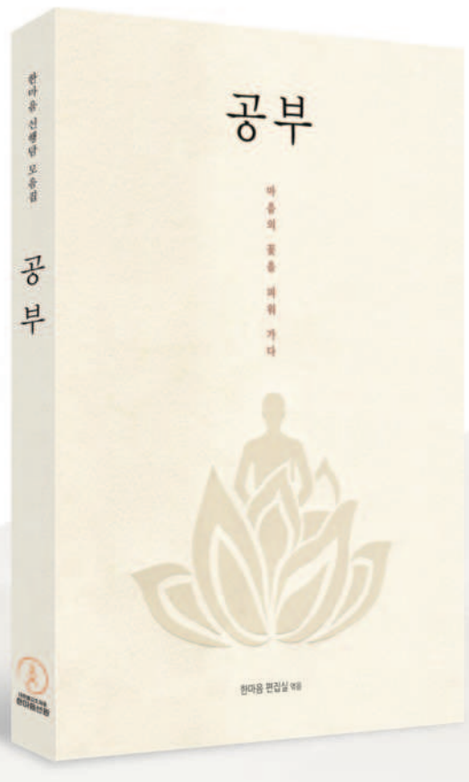
건강한 호흡 습관이란 어떤 것인가

저자가 이 책서 제시한 것은 바로 의도적인 '호흡 중지(숨 참기)'이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숨을 참는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다가 익숙해지면 점차 서서 호흡 중지하기, 걸으면서 호흡 중지하기, 걷는 걸음 수를 늘려가며 호흡 중지하기, 뛰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호흡 중지하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법부터 시작한다. 바로 체내 산소 수치 테스트(BOLT)라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맞는 단계별 훈련법과 그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아주 세세히 풀어 안내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그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상태에 더불어 책의 말미에는 본문 중 나온 훈련법을 요약, 수록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부테이코 호흡법서 시작된 프로그램

'호흡량을 줄여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은 '천식이 기도(氣道)의 수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호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서 개발된 부테이코(Buteyko) 호흡법과 맞닿아 있다.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약을 먹거나 호흡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천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199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이 호흡법은 천식 환자만이 아니라 수면장애,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훈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케이블 텔레비전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됐다.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천식 환자인 저자도 부테이코 호흡법의 도움을 받아 완치된 뒤, 현재 부테이코 호흡법 전문 교육자로 활동하며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했다. 이 책에 소개된 호흡 훈련법, '산소 활용 프로그램'은 바로 이 부테이코 호흡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부테이코 호흡법의 천식 치료 효과가 아닌, 건강과 체력 향상 그리고 운동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훈련법을 소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운동선수들이 지구력과 운동 수행력을 키우기 위해 공기 밀도가 낮은 고지대에 올라 훈련하는 것처럼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치료, 심장 질환 예방 같은 의학적 효과와 특별한 식단 조절 없이도 자연스레 식욕이 줄어 다이어트가 되는 소소한 것까지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부처의 열반과 역사 직조하다

박찬경 개인전 '모임(Gatherintg)'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현대미술관(서울)

10월 26일~2020년 2월 23일

영화 '늦게 온 보살' 등 9점 전시

해인, 곽시쌍부 등 미술에 녹여

사진 · 시멘트 판 등 다양한 재료

분단, 냉전, 민간신앙, 동아시아의 근대성 등을 주제로 한 영상, 설치, 사진 작업으로 국내외 미술계로부터 주목을 받아온 박찬경 화가는 10월 26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서울에서 개인전 '모임 Gathering'을 개최한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대표작 '늦게 온 보살'을 비롯해 '작은 미술관', '후쿠시마, 오토래디오그래피', '맨발', '5전시실' 등 총 8점의 신작과 구작 '세트' 1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액자구조'로 되어 있다.

△전시장 입구 쪽에 설치된 '작은 미술관'은 이번 전시의 액자 역할을 한다. 작품은 벽, 사진, 대여한 미술 작품, 글, 병풍, 단채널 비디오(15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작은 미술관'은 개념적인 측면뿐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에서의 작은 미술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은 미술관'은 낯선 시간대와 낯선 거리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작품은 오늘날의 미술사와 미술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술제도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성찰은 '재난 이후'라는 주제 아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석가모니의 열반 등을 다룬 작품으로 이어진다.

△'후쿠시마, 오토래디오그래피'는 원전사고 피폭현장인 마을을 촬영한 박 작가의 사진과 방사능을 가시화하는 일본 작가 카가야 마사미치의 오토래디오그래피 이미지가 교대로 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과 '세트'(2000)가 나란히 전시되는데, 서로 다른 소재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접점을 찾는 박 작가 특유의 미술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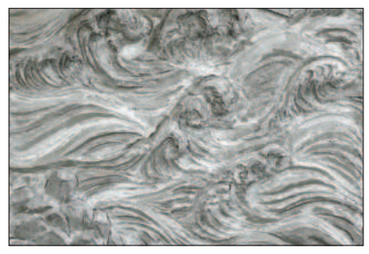
△전시실 중앙에 넓게 펼쳐진 '해인(海印)'은 다양한 물결무늬를 새긴 시멘트 판, 나무마루 등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미술을 '미술에 관한 대화'라고 규정하는 작가의 예술관처럼 비어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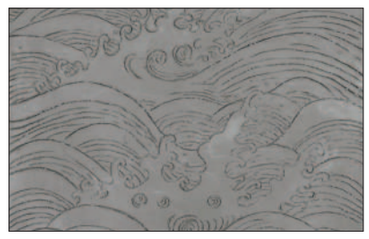
박찬경 作, '맨발' 中 디지털사진.

작가는 오늘날에서 '해인'의 뜻을 생각할 때, 온 세상의 반영이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재생하는 인터넷 매체나 빅데이터라고 생각했다. 작가는 천무학적인 규모의 '빅데이터' 대신 거의 전달하는 것이 없는 '스몰 데이터', 가볍고 빠른 데이터의 재생 대신 지나치게 육중하고 단단한 시멘트 덩어리의 바다를 통해 오늘날의 데이터 만능주의에 답한다.

△'해인'에 이어서 55분 분량의 영화 '늦게 온 보살'이 이어진다. 이 영화는 '석가모니의 열반'이라는 종교적 사건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재난 사건을 하나로 묶었다. 흑백 네거티브의 영상은 '후쿠시마, 오토래디오그래피'와 짝을 이루며 광선, 대기, 방사능, 자연 등에 대해 우리가 관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를 뒤집도록 유도한다. 영화의 섬세하게 조절된 톤은 그 배경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장소라는 설정과 묘하게 마찰을 일으킨다. 등장인물들은 내러티브 바깥을 떠도는 것처럼 보이며, 서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뒤섞이는 산, 불교 신화, 원자력 발전소, 미술 등의 이미지는 줄거리의 개연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개연성을 잃어버린 사회를 묘사하는 것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관객은 이 영화를 보고 위대한 성인의 열반, 각자의 죽음에 도달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생겨나는 '모임' 등을 생각하게 한다.



'해인' 中 일부.



'해인' 中 일부.

△전시실 후반부에 설치된 '맨발'과 '모임' 등의 작업은 앞선 영상 속 소재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맨발'은 부처님의 열반 당시 곽시쌍부의 고사를 소재로 '둘'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 종교적, 문학적 분위기의 '생략'을 통해 '둘의 미학'이 갖는 시원적인 단순함, 맨발을 내보이는 사건의 사소함이 고사의 메시지를 더 명료하고 현대적으로 다가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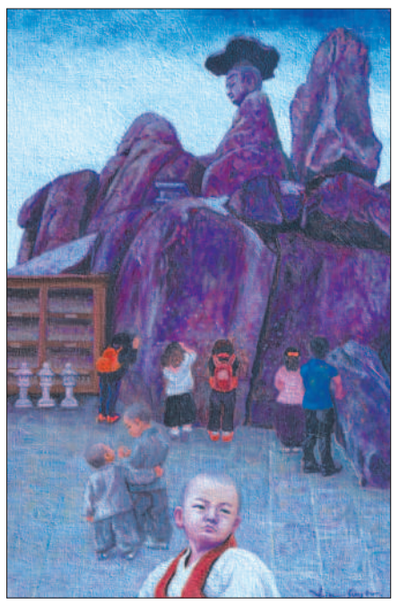
전시실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5전시실의 1:25 배율 축소모형 '5전시실'이 놓여있다. 작품은 '액자 속 스토리', 즉 미술관의 관람 관습에 익숙해진 관객을 다시 액자 밖으로 끌어낸다. 이로부터 작가는 관객에게 미술과 미술관이 같아 보이는지 묻는다. 작가는 강요된 권위와 틀에 저항하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깨어있는 관객들이 곧 이번 전시의 제목인 '모임'에 초대받은 이들임을 이야기한다.

박찬경 화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1997년 첫 개인전 '블랙박스 : 냉전 이미지의 기억'을 시작으로, '세트'(2000), '파워통로'(2004~2007), '비행'(2005), '반신반의'(2018) 등 한국의 분단과 냉전을 대중매체와의 관계나 정치심리적인 관심 속에서 다뤄왔으며 주로 사진과 비디오를 만들었다. (02)3701-9500.

김성은 개인전 'Hello, my Buddha'

대구 동화사 법화보궁 전시실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Hello, my Buddha, 90×60cm.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 주신다는 갓바위부처님. 바위산 솟아날 적부터 나투어 계신 부처님. 간절함에 약사여래불 읊조리며 한 발짝 한 발짝 계단을 오른다."

갓바위부처님을 마음껏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김성은 화가는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대구 동화사 법화보궁 전시실에서 개인전 'Hello, my Buddha'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전시되는 그림들 속에는 다양한 모습의 갓바위 부처님이 그려져 있다.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을 비롯한 주변 뭇생명들의 존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은 주변의 많은 것들 또한 내 삶의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형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들 생명의 존귀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번 전시의 그림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표현한 그림들이다. 작가는 우리들의 힘겨운 삶 속 어딘가에는 해맑은 미소가 있을 것이란 소망과 믿음으로 갓바위부처님과 함께 동자승을 그렸다.

불자로서 삶에서 느꼈던 것들의 표현이다. 작가는 자신이 삶에서 느끼는 환희심을 동자승의 맑고 밝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전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부처님.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팔공산 갓바위. 매일 지팡이에 의지해 무거운 발을 힘겹게 내딛는 할아버지, 기어오르듯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 작가는 매일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갓바위부처님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을 느끼길 바란다.

여명 속에 서있는 갓바위부처님, 부처님전에 간절히 두 손을 모은 여인, 부처님 마당에서 해맑게 뛰노는 동자승, 모두 작가의 소망이다. 박재완 기자

墨으로 그린 禪의 세계

박주남 '墨으로 만나는 禪' 展

보령 갤러리 탑 11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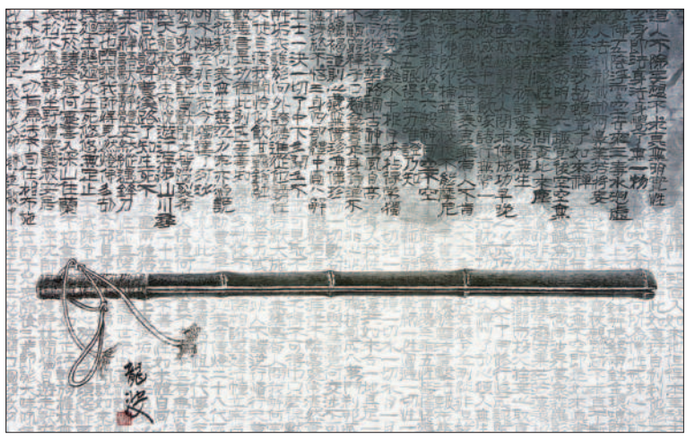
선(禪)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선을 수묵화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일까. 그동안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들며 산수화 · 불화 등 다양한 수묵화를 그려온 박주남 화백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충남 보령시 갤러리 탑에서 초대전 '墨으로 만나는 禪'을 개최한다.

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한 이번 전시의 그림들은 정토사상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그 실천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장군죽비를 소재로 한 작품 등 27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그림들은 박 작가의 선에 대한 고민과 표현으로, 그림 속에는 선의 세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죽비를 비롯해 빗자루, 발우 등이 등장한다. 또한 이번 작품들 속에는 탁본 형태의 문자들과 직접 써넣은 문자들이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그 문자들은 〈금강경〉, 영가 스님의 '증도가', 〈초발심자경문〉, 〈선가귀감〉 등이다.

박 작가는 "이번 초대전은 2017년 개최한 墨, 禪을 만나다'의 연장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장군죽비에 가지와 잎을 더해 여전히 살아있음을 표현했다"며 "많은 여백만큼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선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주남 작가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14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3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041)931-7688. 박재완 기자



박주남 作, 장군죽비.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선사, 한국불교 혁신 이끈 선지식”

혜유 스님, 서강대 종교硏 국제학술대회서 주장

관법 통한 생활 수행 강조
남녀 구분 없이 제자 받아
경전 참뜻 의미로 풀어내
“현대인 맞는 수행 가르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썼던 대행 선사(1927~2012)의 가르침이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학술 발표가 이뤄졌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혜유 스님〈사진〉은 11월 5일 ‘동아시아의 현대종교운동’ 을 주제로 열린 서강대 종교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행 선사가 보인 한국불교 혁신 요소에 대해 발표했다.

‘현대불교에서 대행 선사의 혁신’ 을 주제로 발표한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의 수행과 가르침 전반에 나타난 혁신 요소에 대해 살폈다.

혜유 스님에 따르면 대행 선사가 한국불교에 보인 혁신 요소는 △생활선 주창 △경전 한글화 △성별 초월 제자와 다양한 법회 △한국불교 세계화 △불교 현대화 등 5가지다.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의 선사상은 전통 한국불교의 선맥을 계승하고 있지만, 틀에 갇혀있지는 않았음에 주목했다. 실제, 대행 선사는 일상생활과 수행이 나눠지지 않는 ‘생활 속 수행’ 을 강조했다.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는 관법 수행을 통해 생활 속 끊임없는 수행을 강조한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참나에 귀의하고 참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사의 관법 수행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누구나 생활 속에서 선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비구니 스님이 비구 제자를 받은 점도 한국불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비구는 남녀 구분없이 출가 제자를 두지만, 비구니는 여성 제자만 받아 왔다. 하지만 대행 선사는 1986년 처음 비구 제자를 받아들였고, 금왕 광명선원을 비구 수행처로 삼았다.

혜유 스님은 “비구 제자 스님들은 광명선원뿐만 아니라 문경 · 청주지원, 해외 캐나다 토론토 지원에서 수행 포교를 하고 있다”면서 “최근 불교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성 권리 향상에 대한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다. 대행 선사는 이미 비구 · 비구니 스님의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서 평등 정신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행 선사는 출 · 재가의 차별도 두지 않았고, 남성들의 신행을 독려함으로서 다양한 법회들이 운영될 수 있게 했다. 선사는 1980년 청년회, 1982년 어린이회를 결성했으며, 1990년에는 거사들로 이뤄진 신행 조직인 법형제 법회를 창립했다.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는 여성 신도뿐 아니라 남성, 청년, 어린이 등 모두가 생활 속 수행을 하도록 독려했다”면서 “선사의 노력은 산중불교, 여성 중심의 불교, 기복불교로 각인된 한국불교를 누구에게나 열린 생활불교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대행 선사의 노력은 ‘경전 한글화’ 로 이어졌다. 선사는 경전 번역을 단순 직역이 아닌 뜻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을 이끌었다.

혜유 스님은 “1970년대 중반부터 대행 선사는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단순히 한자를 한글로 글자풀이를 한 것이 아닌 한마음 사상을 기반해 뜻으로 풀어냈다”면서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경전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과 모든 국내외 지원에서 의식예불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불의식이 조금 자유로운 군부대 법회와 교도소 법회에서는 대행큰스님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과 천수경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행 선사는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불법(佛法)의 세계화와 과학화와 포교의 현대화를 이끌었다.

선사는 법문 번역을 통한 불교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1997년 한마음선원 내 번역부를 만들었고, 이는 현재의 국제문화원으로 발전했다. 국제문화원은 대행 선사의 법문집을 번역 · 출간해 2005년부터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정신과학과 물질과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 1996년 심성과학연구원을 설립했으며, 현재 한마음과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2002년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통해 관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04년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2005년 한마음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현 교육의 대안을 제시했다. 2010년에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원들을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혜유 스님은 “불교의 혁신은 승가 내에서 운동(movement)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일반 대중들을 위한 대중화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면에서 대행 선사의 혁신적인 가르침과 사고는 현재 한국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입문서 간행 현황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한국불교사硏, 16일 집중세미나

불교입문서 간행 현황을 분석하는 학술 발표회가 열린다.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는 11월 16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그리고 대안’ 을 주제로 제25회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초빙교수가 ‘불교사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불교철학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학과 교수가 ‘불교명상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가 ‘불교예술 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이자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교수,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신광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국불교사연구소는 “불교입문서 간행 현황과 분석을 통해 종교의 본질인 ‘친절’ 과 ‘소통’ 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국내 유일본 확인

동국대 ABC사업단, 경주 기원정사 문헌 조사 중 발굴

‘삼매참법’ 중권 처음 확인
기원정사만 全卷 모두 소장
아카이브 구축해 일반 공개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중권. 경주 형산 기원정사 소장돼 있으며, 국내 유일본이다. 이는 동국대 ABC사업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법화신행사에 중요한 문헌 자료가 동국대의 조사로 확인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경주 형산 기원정사(舊 왕룡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삼존불(아미타불, 약사불, 석가모니불)에서 출토된 복장유물 가운데 문헌류 30여종에 대해 조사와 촬영을 실시했고, 고려와 조선전기의 문헌을 다수 확인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조사를 통해서는 원(元)이 간행한 〈금강반야바라밀경〉과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묘법연화경삼매참법〉상중하권,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선종영가집〉 언해본 등이 확인됐다. 이들 경전은 보물급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된 경전 중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중권은 특히 가치가 높다.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중권은 국내 유일본이며, 상중하 전권이 소장된 곳은 기원정사가 유일하다. 〈삼매참법〉의 상권은 경주 기림사와 김민영 소장본 두 권이, 하권은 구인사 소장 한 권이 전해지는데, 이들 모두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기운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삼매참법〉은 고려 산긍의 저술로서 〈법화경〉 28품을 12단으로 구성해 법화삼매 수행을 제시한 것”이라며 “ 중국, 일본과 다른 고려만의 법화삼매 수행의 방식이 담겨있는 주석서로서 고려 법화신앙사에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ABC사업단은 문헌 존재만 알려져 있는 희귀 경전을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일반에 제공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ABC사업단은 “〈법연화경삼매참법〉 전권을 영인해 각계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한국불교전서 보유편(제15책)에 고려문헌의 하나로 수록하기 위해 후속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ABC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전국 사찰에 소장된 문헌을 전수조사하고 촬영해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경북 불교문화재 유출 현황 살피다

경북도, 10월 29일 세미나… 용흥사 명문와 기증도

경북 지역 불교문화재들의 반출 현황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주관으로 10월 29일 구미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경북 북부권 불교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전국 개별 사찰 소장 문화유산을 조사 정리한 ‘사찰재산대장’ 과 현재 사찰별 성보문화재 실태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해외로 반출된 성보의 환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성순 동국대 교수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찰재산대장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미’ 주제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상주지역 사찰의 유출문화재 연구’ , 최은령 문화재청 감정위원의 ‘예천지역 사찰문화재의 과거와 현재’ , 안동 대원사 등안 스님의 ‘안동지역 불교문화재 실태와 활용’ 등이 발표됐다.



최선일 위원이 10월 29일 경북도 주최 세미나에서 일본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용흥사 명문기와를 기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선일 위원은 일본 경매에서 구입한 ‘상주 용흥사 명문와(銘文瓦)’ 를 경북도에 기증해 눈길을 끌었다. 기와에는 용흥사 증건 연도(순치 4년)와 시주자의 이름이 양각돼 있어 당시기와 제작기법과 사찰의 건립연대를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3년에 걸쳐 ‘사찰재산대장’ 발간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 중에 있다.

신성민 기자

통일시대에서 종교교육 역할 · 과제 학술적 조명

종교교육학회 22일 추계대회

통일시대 종교교육 역할과 과제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는 11월 2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덕암세미나실에서 ‘통일 시대의 종교교육의 역할과 과제’ 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와 종교, 그리고 개벽’ 주제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통일시대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 발표들이 이뤄진다.

주요 연구 논문으로는 △이찬수(서울대)의 ‘대화로서의 평화: 대화의 자기초월성과 평화교육’ △김용해(서강대)의 ‘평화를 위한 국가와 종교의 사명’ △이재봉(원광대)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의 역할’ △김경이(가톨릭대)의 ‘통일시대의 종교교육의 역할과 과제: 문화간 대화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김상덕(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형수(가톨릭대), 황수경(동국대), 오지섭(서강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뒷모습

나의 뒷모습은 나의 것이 아니다
등에 손이 닿지 않듯이
내 뒷모습에 나는 손을 댈 수 없다
뒷모습에 적힌 나의 지난날을
나는 읽을 수도 고칠 수도 없어
나의 뒤에는 '너'가 있음이다

온갖 것들이 가을에 물든 이 시간
나의 뒷모습은 어떤 빛깔일까
뒷모습을 볼 수 없어
우리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④④ 변순자 보살 (철도원 故 손무생 미망인)

"저는 우리 남편 죽게한 그들을 용서 했어요"

1992년 2월 9일 부산시 동구 범2동 철도건널목에서는 술취한 두 행인을 구하고 달려드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 건널목 철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살신성인의 주인공은 故 손무생씨이다. 그는 살아 생전 25년을 한결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인의 안전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신념으로 고달픈 근무 환경에도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이다. 손씨는 평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팔을 걷어 부치고, 자다 말고도 쫓아갈 정도로 봉사 정신이 투철했다고 한다.

내가 손씨의 딱한 사연을 접한 것은 너무 기이한 인연에 의해서였다. 당시 부산에는 내 포교당이 사고가 난 서면에 있어 일주일에 두 세 번은 부산을 다녀왔다. 사고 다음날인 10일에도 부산엘 내려갔는데, 그날 따라 이상하게도 왠일인지 포교당으로 직행하기도 싫었다. 그래서 시내를 조금 활보하다가 택시를 잡아타고 포교당으로 향했다. 내가 탄 택시가 부산 동구 범2동 철도 건널목 앞에서 차단기가 내려져 잠시 멈춰선 동안 택시 기사가 내게 말을 건넸다. "스님, 바로 어젯밤 저 건널목에서 한 의인(義人)이 슬프게 떠나갔어요." 나는 궁금해 졌다. 다시 택시 기사에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없습니까"라고 요청하자, 기사는 건널목 지기의 살신성인에 대해 들려줬다. 그 기사는 "故 손무생씨의 직무 수행이 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의 직무는 차단기를 제 때 내리고 행인들과 자동차를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어둠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건널목을 가로 질러 가는 두 사람 목숨까지 구해줘야 할 의무는 없는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 이후 언론 보도로 듣자하니 故 손무생씨는 부산 지방 철도청 청원 경찰로 일한 지난 25년간 이사를 25회나 갈 만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손 씨가 구해준 취객 두 명은 그길로 도망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깊게 솟구쳤다. 더군다나 미망인인 변순자 보살은 수족마비 증세로 누워있어 당장 생계마저 위협받게 됐다는 소식도 들렸다. 나는 이 유가족을 돕는 모금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당시 대구교도소 재소자 중 사형수인 차순석씨와 한 젊은 사형수의 어머니도 10만원씩 기부 하는 등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이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청와대를 경비하던 30경비단서도 이 딱한 사연을 내가 강연중에 얘기하자 당시로서는 큰 돈인 3천만원을 모금해 전달하기도 했다. 나도 내 책 〈가난이 죄가 아닐진데 나에게는 죄가 되어 죽습니다〉 인세 중 일부를 모아 250여만원을 갖고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난 2월 16일에 故 손무생씨의 집을 찾았다. 그날 처음 만난 손무생씨의 미망인 변순자 보살은 한 눈에 봐도 약해 보였다. 나는 변 보살에게 "그 술 주정꾼 두 사람은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까?"하고 묻자 그는 담담하게 "스님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용서했어요"라고 아주 순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보살님 남편을 저 세상으로 가게 만든 장본인들을 그리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라고 의심쩍은 말투로 물으니, 그녀의 대답은 지금도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명법문이었다. "그 두 취객은 평소 남편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니, 남편에게는 필시 어떤 악 감정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것도 전생의 업연에 의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충격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빨리 정신을 차려서 남편의 고귀한 희생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열심히 키울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독실한 불자인 변순자 보살의 말에 나는 수행자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단 돈 1백만원을 떼어 먹힌 일가지고도 분해서 잠 못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많은데, 어찌 이런 보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감동 스러웠다.



박삼중 스님이 억울하게 숨진 철도원 故 손무생 미망인 변순자 보살(오른쪽)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1992년 건널목 철도원 남편 살신성인
남편 죽게 한 도망친 취객 모두 용서
자녀들 훌륭한 사회인으로 잘 키워내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얘기 끝에 미망인이 털어놓은 남편 손무생씨의 자상한 마음씨였다. 남편은 가난했지만, 가정적인 성격이어서 몸이 불편한 아내 대신 밥도 지어주고 청소, 빨래도 해주며 가족들을 돌봤다고 한다. 대화 도중 미망인 변순자씨가 갑자기 목에서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는데, 거북이 모양의 제법 무거워 보이는 장식이 달린 금목걸이였다. 이것은 지난 1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선물이 된 이 금목걸이는 남편이 아내 모르게 하루 저녁 한끼씩 굶고 모은 돈으로 계를 만들어 마련해 준 눈물겨운 선물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이 금 목걸이를 마련하기 위해 저녁을 굶는 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지, 건강 잃으면 금목걸이가 다 무슨 소용있냐"고 감사는 커녕 오히려 남편을 야단치고 화냈다고 한다.

암튼 변순자 보살은 인생의 큰 위기를 성실한 삶의 자세와 불심으로 잘 넘기고, 30년전 다짐처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다. 큰딸은 영국에 유학한 뒤 대학 교수로 있고, 작은 아들은 경찰관이 됐고, 막내는 소방관이 됐다. 손자와 함께 4년 전에는 서울 보덕사로 전 식구가 찾아와 나와 식사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요즘도 가끔씩 변순자 보살은 투병중인 나에게 안부를 물어온다.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든 변순자 보살이 그간의 고뇌와 업을 말끔히 씻고 앞으로는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발원한다. 정리=김주일 기자



GREEN EARTH

녹색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생명들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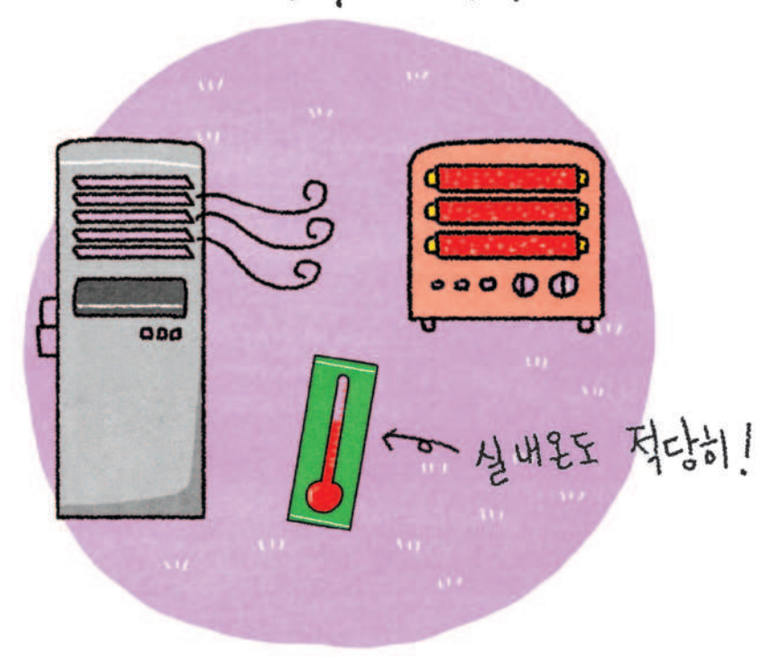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에너지 절약은 쉬워요!



'분리수거하기' 약속해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